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 석사 학위논문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
실행 효과 탐색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정유금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
실행 효과 탐색

지도교수 이 옥 선

이 논문을 체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정 유 금

정유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최 의 창 (인)

부 위 원 장 권 순 용 (인)

위 원 이 옥 선 (인)

국 문 초 록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 실행 효과 탐색

정 유 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본 연구는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 접목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해 초등 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역량 중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실행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성공적 운영 조건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어떻게 함양되는가? 셋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은 무엇인가? 로 설정했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그리고 연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3학년 담임교사 3명, 세 학급의 학생들 각 8명씩 24명으로 총 27명이었다. 질적 자료는 설문조사, 심층면담, 현장문서, 참여관찰을 활용해 수집하였으며

Wolcott(1994)의 기술, 분석, 해석 단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 동료 협의,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써 통합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 연구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 동료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내용 수준에는 체계성, 통합성의 원리를, 방법 수준에는 반복성, 점진성의 원리가 구성 원리로 도출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ENTER’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체육수업에서 심동적·인지적·정의적 목표를 고루 달성하며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체육수업이 소집단 협력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의 도입부에 중점 사회정서역량을 제시하는 것, 전개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것,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성찰 시간을 갖고, 체육수업 성찰일지인 마음기록장을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사회정서역량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CASEL, 2015),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하위 역량이 모두 함양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인적 차원의 ‘더 나은 나’, 대인 관계적 차원의 ‘더 가까워진 너’, 사회 공동체적 차원의 ‘함께 성장하는 우리’로 분석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해당사자들 간 교육 목적에 대한 공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반복 훈련, 다양한 소통, 교사 및 또래 모델링 활용,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물리적, 사회심리적 환경 조성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종합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간 통합 학습·생활 지도·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전인교육의 성격을 띤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발달 특성, 흥미 및 요구를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저학년 대상 질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중심 인성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의 실천적 성격, 소집단 협력 활동과 담임교사의 역할이 긍정적인 영향 요인임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학교 전반에 사회정서학습을 접목하는 인성 중심 체육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 셋째, 일관된 사회정서학습 추진을 위한 교사의 현장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한국형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틀과 실행 과정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타난 사회정서역량 함양이 일상생활로의 전이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난 사회정서역량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특징과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며 신뢰도 높은 사회정서역량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초등, 체육수업, 사회정서학습, 사회정서역량, 인성교육

학 번 : 2020-21275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 문제	8
4. 용어의 정의	8
5.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0
1. 초등 체육교육	10
가. 초등교육의 통합성	10
1) 목표: 전인교육	11
2) 교육 환경	13
나. 초등 체육교육의 통합성	14
1) 목표: 전인교육	15
2) 교육 환경	17
2. 사회정서학습	19
가. 사회정서학습의 주요 배경 이론	19
나. 사회정서학습 프레임워크	23
다.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관련 연구	25
1) 국내 연구	25
2) 국외 연구	30
3.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	33
가. 인성교육에 관한 정과 체육에서의 접근	33
1)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	33
2) 협동학습 모형	36
3)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	39
4) 스포츠교육 모형	41

5) 하나로 수업 모형	44
나. 초등 체육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의 접점 찾기	46
1) 구조적 유사성	46
2) 내용적 유사성	49
다. 초등 체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의 강점	51

III. 연구 방법 53

1. 연구 설계 53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53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54

2. 연구 환경 57

3. 연구 참여자 58

가. 연구자로서의 나	58
나.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	61

4. 자료 수집 63

가. 설문지	64
나. 심층 면담	66
다. 학생 마음기록장	72
라. 교사 성찰일지	74
마. 참여관찰	75

5. 자료 분석 및 해석 77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78

가. 연구의 진실성	78
나. 연구의 윤리	79

IV. 연구 결과 및 논의 80

1.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천 80

가. 프로그램 구성 준비	80
1)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81
2) 문제점 인식	82

3) 구성원의 요구 분석	83
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86
다.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88
1) 교육 내용: 체계성, 통합성	89
2) 교육 방법: 반복성, 점진성	91
라.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92
1) 자기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93
2) 자기관리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95
3) 사회적 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98
4) 대인관계 기술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101
5)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104
마. 프로그램 운영의 주안점	106

2.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변화 109

가. 더 나은 나	110
1) 내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110
2)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113
3)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해 볼래요.	116
나. 더 가까워진 너	120
1) 달라도 괜찮아요.	120
2)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아요.	123
3) 돌아보며 갈등을 해결해요.	128
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131
1) 가족 같은 우리 학급이 좋아졌어요.	132
2) 앞으로도 다짐하고 실천할 거예요.	134

3.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 137

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교육 목적에 대한 공유	138
1)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 간 협력	138
2) 교사·학생·학부모의 합의된 목표의 공유	143
나.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146

1) 여러 번 반복 훈련하기	146
2) 다양하게 소통하기	148
3) 교사나 또래를 모델링하기	151
다.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환경	154
1) 물리적 환경	154
2) 사회·심리적 환경	155
4. 종합 논의	160
가.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논의	160
1)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논의	161
2)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	163
나.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중심 인성교육에 관한 논의	166
V. 결론 및 제언	169
1. 결론	169
2. 제언	174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174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76
참고문헌	178
Abstract	186

표 목 차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초등교육의 통합성··	12
[표 2]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역량과 하위 기술	21
[표 3] 국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연구 요약	26
[표 4] 사회정서학습 시행 절차	29
[표 5] 책임감 수준의 구성요소	34
[표 6]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의 필수 요소와 특징	40
[표 7] 하나로 수업의 내용	44
[표 8]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일부 발췌	47
[표 9] 연구 수행의 절차와 단계	55
[표 10] 연구 참여자 정보	62
[표 11]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의 주요 내용	64
[표 12] 프로그램 사후 설문지의 주요 내용	66
[표 13] 프로그램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	68
[표 14] 프로그램 중도 면담의 주요 내용	70
[표 15] 프로그램 사후 면담의 주요 내용	71
[표 16] ‘체육’ 하면 연상되는 단어 설문 결과	81
[표 17] 체육수업이 필요한 이유 설문 결과	82
[표 18] 과거 체육 경험에 대한 감정 설문 결과	83
[표 19]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체활동 내용 설문 결과	85
[표 20] 체육과 역량의 사회정서역량 관련 내용	86
[표 21] 프로그램 내 차시 활동 운영의 흐름	93
[표 22] 자기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94
[표 23] 자기관리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96
[표 24] 사회적 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98
[표 25] 대인관계 기술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101

[표 26]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104
[표 27] 체육 협동학습의 5가지 요소	149

그림 목 차

[그림 1-1]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14
[그림 1-2] 공간혁신을 통해 변화한 학교 복도의 모습	14
[그림 2] 운동소양과 운동향유력의 관계	16
[그림 3]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17
[그림 4] 2021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추진과제	18
[그림 5] Interactive CASEL Wheel	24
[그림 6] 3학년을 위한 PATHs 모듈 샘플	32
[그림 7] 스포츠교육모형의 요소	42
[그림 8] 체육 교과 역량 설정 근거	49
[그림 9-1] 연구배경 학교 운동장	58
[그림 9-2] 연구배경 학교 체육관	58
[그림 10] 교실 앞 게시판	60
[그림 11] 자료수집 활동의 주기	64
[그림 12] 학생 마음기록장	73
[그림 13] 체육수업 후 학생 마음기록장 예시	74
[그림 14] 연구자의 성찰일지	75
[그림 15] 현장노트 기록 양식	76
[그림 16] 프로그램 구성 원리 도식화	88
[그림 17] 프로그램 3~4월 주간 세부 수업 계획	89
[그림 18] ENTER School	92

[그림 19]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	98
[그림 20]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 발표 및 감상 모습 ..	100
[그림 21]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수업 후 작성한 마음기록	101
[그림 22] 협동 풍선 놀이에 열중하는 학생들 모습	103
[그림 23] 빅발리볼로 삼국 피구를 하는 모습	106
[그림 24] 고마워교실 긍정확인	107
[그림 25] 학급평화회의 회의록	107
[그림 26] 감정 관련 수업 사례	108
[그림 27]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변화 도식화	109
[그림 28] 감정 체크판	113
[그림 29] <다름 인정하기> 그림책	123
[그림 30] ENTER Wheel	137
[그림 31] 학생의 감정조절을 지원하는 공간과 교구	154
[그림 32]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	1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나는 여태껏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 체육이라 들어왔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 시간에 친구들 간의 편 가르기, 비난하기, 폭력 등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교사는 중재자의 역할이 되기도, 판사의 역할이 되기도 하였다. 주로 혼자 활동하는 다른 교과 수업과 달리 체육수업은 단체(팀) 활동이 많고, 자신의 신체 움직임이 남에게 공개되는 셈이라 일부 학생들은 체육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며 아예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평소에는 ‘감정조절’이 잘 되던 학생들도 체육 시간에는 달라진다. 경쟁 활동에서 승리하고 싶은 열망 때문일까, 강당이나 운동장과 같은 넓고 개방된 공간이 주는 자유로움 때문일까?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 요소를 배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체육 시간의 부정적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미래의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학습 내용과 연결되는 ‘사회정서적 기술’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연습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21년 7월, 정 교사의 성찰일지)

체육 시간의 갈등 상황을 보면 헤이우드 브룬(Heywood Broun)의 명언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내지 않는다. 인성을 드러낼 뿐이다.”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 말은 초등학생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초등학생은 사회화 과정에 있고(김영화, 2004), 그 중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 또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 익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는 덕(德)을 기르는 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닌 평생에 걸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만을 중시하였고,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사회적 기술, 정서 능력, 삶을 대하는 태도 등이 간과되어 왔다. 다시 말해 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우연에 맡겨 온 경향이 있었다(김윤경, 2017).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를 보면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9년 연속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한국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은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부족, 그리고 낮은 자기 존중감과 연관되어 있다(도승이, 2013).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업성취와 경쟁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수도 줄지 않고 있다(통계청, 2015).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사회성 저하, 학교생활 만족도 감소,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의 우울감 및 문제 행동 증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임명성, 2020).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차치하고, 각종 비도덕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지탄은 학교 인성교육을 향했다.

최근의 교육과정은 인성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인성’을 강조하였고,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 13004호)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 부족, 법안 기술상의 모호함, 현장에서의 실행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받은 바 있다(이기대, 2019). 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정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한병규, 2016)을 보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훌륭한 인격과 품성을 교육하기보다는 안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만이라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2022학년도 교육과정 설문 결과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최우선적으로 인성교육 중점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교의 모든 교사는 제각기 자신만의 방식과 노하우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주하는 이러한 설문 결과는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과목의 성격상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교육의 필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신체적, 정의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즉, 체육은 전인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이다(최의창, 2010). 그러나 연구자가 학급 생활일지에서 작성한 내용과 유사하게 실생활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근거로 체육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Etizen, 1999; Griffin, 1998; Shields & Bredemeier, 1995; Simon, 2004). 그렇기 때문에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신체활동이 정의적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Strong et al., 2005; West & Allin, 2010)들이 발표되면서 체육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주목받게 되었다(조한무, 2015).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목표 설정, 의사소통, 감정 조절, 행동 결정 등의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정서역량을 실천하고, 모델링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초등교육은 한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 8세부터 13세의 아동기 신체활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체육교과교육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양태석, 2020). 또한 체육 교과와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사회 문제와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과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야로 간주되어 체육시수 증가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이 정책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체육교육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인성교육으로서 체육’이다. 초등 체육과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연결시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초등 체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이다(Graham et al., 2013; 김성곤, 2017; 신기철, 2013; 이정택, 이기청, 2020; 장용규, 이정택, 2021; 전세명 외, 2014). 체육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효과가 단순히 신체활동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으로서 체육교육’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둘째, 인성에 초점 맞춘 체육 수업모형 관련 연구이다(Sinelnikov & Hastie, 2017; 김영식, 2016; 김윤희 외, 2015). 최의창(2021)의 스포츠교육론 분류에 따르면 소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수업모형으로 정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위한 방법적인 체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이다(Holt, N. et al., 2012; García-Calvo et al., 2016; 고문수, 곽은창, 2015; 고상수, 신정택, 2016; 박용남, 2019; 박장근 외, 2016; 송광섭 외, 2014; 조필환 외, 2018; Koh, Ong & Camiré, 2016; 등). 본 분류의 연구들이 가장 많았으며 정규 체육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 체육활동 등 여러 학교체육활동들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혹은 연구자가 인성 발달이라는 목표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체육과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체육 교과와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을 고루 다루지 못하며 단기간의 체험형 프로그램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넷째, 체육과 인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인성교육이라는 큰 맥락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초점을 지녔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TPSR: 개인적-사회적 책임감(Hellison, 2010; Richards & Gordon, 2017; 박대권 외, 2007; 신종필 외, 2009; 이종목, 신재한, 2010; 최흥섭, 이안수, 2009), 라이프스킬(Jacobs & Wright, 2018; 강지웅, 2016; 강지웅, 박용남, 2017), 스포츠 리터러시(최재영, 2019), 사회정서학습(Dyson, Howley & Wright, 2021; Durlack et al., 2011; 유생열, 2020)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인성교육에 대한 4가지 틀은 전통적(덕목 중심) 접근, 인지 발달적 접근, 배려 관계적 접근, 사회정서학습으로 분류한 것이다(김민성, 2014; 신

제한, 2016).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정서학습(SEL; Social Emotional Learning)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체육과 인성교육 관련 연구가 이어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인가?

첫째,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이론이라기보다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포괄적 학교개혁운동의 성격을 띤다(CASEL, 2015). 기존 인성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받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인성 발달 프로그램(강선보, 2008; 현주, 2009)이 아니라 학교 환경과 학교 교육과정의 목적을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두고 체육수업 프로그램은 대표성을 띄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다. 둘째, 인성의 개념이 ‘사회정서역량’이라는 실생활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활용·실행 가능한 역량(competency), 기술(skill)로 확장되었다(임효진, 2017). 도덕이나 가치·덕목 등을 사유하고 논하는 지식교육이 아니라 역량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연구에서 종속변인이 구체화되어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사회정서학습은 대상이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어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을 위해 ①자기 인식, ②자기 관리, ③책임 있는 의사결정, ④대인 관계 기술, ⑤사회적 인식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역량과 하위 기술들을 제시하였다(CASEL, 2003; Elias et al., 2008; 정창우, 2013). 학생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우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체득한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다. 넷째, 사회정서학습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적으로 어떤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들을 획득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CASEL Website). 사회정서역량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의 특성, 즉 성품이나 본성보다는 실제적이고 활동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강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차우규, 2007).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성의 개념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성주, 임현주, 2011; 최의창, 박정준, 2011). 인성교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정서적 발달이 인간의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정서와 사회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도덕성이 발달한다(김윤경, 2020). Seligman et al. (2009)은 아동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의 획득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정서 발달 차원에서 볼 때, 영유아기에 형성된 기초적 정서 능력을 바탕으로 아동기에 정서가 어떻게 성숙되고 교육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인간적 면모와 삶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정명화 외, 2005: 285-286). 이 시기의 공감 능력 발달, 정서 조절과 표현 능력의 발달, 마음에 관한 이해의 발달 등은 인성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만큼 초등학생 시기의 사회정서 발달이 중요함을 역설한다(Davidson R. J. et al., 2000).

사회정서학습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Gurria, 2009). 그러나 국내 사회정서학습 관련 연구는 일반 교육학과 도덕교과에 약 50%에 해당하고, 체육 교과는 5편(이정화, 2012; 이정화, 이한주, 2013; 유생열, 2020; 유생열, 2021; 한상모, 2022)에 불과하였다. 그 중 초등학교 구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는 유생열(2020)의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체육교과에서의 사회-정서 학습’과 한상모(2022)의 ‘초등학생을 위한 신체활동에서의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방안 탐색’ 2편이었다. 신체 기반 알아차림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승현, 2019)에서 신체활동으로 언급된 것이 스트레칭, 요가, 호흡법으로 제한적이므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사회정서학습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이 교육 목표 및 방향성을 설정하는 광의의 의미로, 기존의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TPSR), 협동 학습 모형(CL), 스포츠교육모형(SE),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ABL) 등 혁신 교수법들과의 연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Wright & Richards, 2021). 초등학교 체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은 현 초등

학교 체육 교육 목표와 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사회생활의 맥락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유생열, 2020).

체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역할을 수행한다. 체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초연결 시대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이나 협업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다. 공감과 협업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활동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체험하고 체득할 때 실현될 수 있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따라서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문화 일상화적 관점에서 ‘소통’의 문화이므로 인성교육으로서 사회정서역량 함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체육이 인성교육의 장이라는 데에 혹자는 체육 실제학습시간(ALT-PE)가 감소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일관성 있게 실시할 수 있는 체육 수업에서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 질적 수준의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히, 체육과 교육과정의 다섯 영역 및 내용 요소와 사회정서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도할 것을 지향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 접목 운영 사례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 중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과정, 실천 효과 및 성공적 운영 조건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과정을 탐색하고, 교사와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효과와 성공적 운영 조건을 분석하여 향후 학교체육의 인성교육 방안으로서의 내실화 있는 실천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어떻게 함양되는가?

셋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초등 체육교육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체육 교과 시간의 신체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초등 3-4학년군의 체육 교과 기준 수업 시수를 204시간(초등학교 - 40분 수업)으로 설정하였다. 기준 수업 시수 204시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3학년의 체육 수업은 주 2-3회 가능하다. 체육의 경우, 기준 수업 시수보다 감소는 불가하고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타 교과의 시수를 조정하여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회정서역량

사회정서역량은 사회정서학습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목표 핵심 역량(competency)이다. 사회정서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정서의 경험과 표현을 조절하며 타인의 입장과 정서를 이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서학습은 연구자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동료 연구자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발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실행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을 CASEL에서 제시한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름 그대로 제시하고 3학년 학생들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는 ‘감정 조절’과 ‘사회적 기술’을 특히 강조하여 초점 맞추고자 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 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일 사례 연구이다. 인적, 물적 자원의 차별성은 물론 학교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안한 프로그램은 체육 수업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각 학급에서 운영되는 타 교과 수업 환경, 생활 지도, 학생들의 가정교육 등의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므로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사회정서학습은 대부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효과가 더욱 명확하다고 알려져 있다(Devaney, E. et al., 2006).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환경이 공립 초등학교로, 학습권과 교육권으로 인하여 학교장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등 현실적인 이유로 장기간 실시하기 어렵다. 교사는 새 학년을 시작하는 3월부터 다음 학년 진급하는 1년의 기간 동안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하고, 연구 참여 학생들과 라포(rapport)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학생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 수업 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실천과정 및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초등 체육교육, 사회정서학습, 초등 체육교육에서의 사회정서학습 적용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제 1절에서는 초등교육과 초등 체육교육의 목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교육 환경을 통해 통합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 2절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의 배경 이론과 프레임워크, 관련 국내외 연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 3절에서는 초등 체육교육과 기존 인성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으로서 초등 체육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의 접목 근거와 강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초등 체육교육

가. 초등교육의 통합성

초등교육은 ‘교육’이라는 다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범주 안에 포함되지 만 유아교육, 중등교육 등 다른 교육과 구분되는 독특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박종국, 2004). 따라서 초등교육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은 초등교육이 갖는 특수함을 밝히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초등교육의 특성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통합’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이 광의의 의미로 부분이 하나의 전체로 나아가기 위해 합쳐지는 행위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학습 내용의 ‘융합’, 학습 방법의 ‘종합’, 인간관계의 ‘협력’, 발달 영역의 ‘도합’ 등을 포괄한다.

1) 목표: 전인교육

대한민국 교육부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던 7차 교육과정 이후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개발 중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목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교육부,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목표는 ‘주도성과 포용성을 갖춘 창의적인 사람’ 또는 ‘주도성을 갖춘 포용적인 사람’으로 제시한다. 목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교육이다. 전인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 통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전인(whole person)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이다.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전인교육은 일찍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Pestalozzi)는 교육의 목적을 3H, 머리(Head)와 마음(Heart)과 손(Hand)의 조화로운 발달이라고 주장(홍신기, 2007)하였다. 강충열(2004)은 초등교육의 정의를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교육은 전인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교육이 사회적인 삶에 입문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초등교육은 삶의 특수성을 탐색하는 단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특성을 총체적으로 갖게 하는 교육이다(박종국, 2004).

1996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당시 7차 교육과정(1997-2009년 실행)이 개발되고 있었다.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교육의 목표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보통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이다. 정광순(2004)은 초등학교 교육의 역사를 연구한 문헌 분석을 통해 초등교육과정은 기초적인 것이라는 공통점을 도출하였고, ‘기초’가 긍정적인 의미로는 근본적인 것(이병진, 2002), 중요한 것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초급 지식에 해당하는 것(엄태동, 2003), 초등교육은 쉬운 것으로 인식된다

고 하였다. 초등교육과정으로서 ‘기초’의 의미를 두 가지로 재규정하였다. 하나는 Hirst의 지식의 형식, Bruner의 지식의 구조, Dearden의 이해의 형식으로 대표되는 교과와 ‘핵심 개념 및 원리’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참여를 통해 ‘체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엄태동(2003)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학습에 대한 학습’ 즉, ‘메타학습’으로 보았다. 학습해야 할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과 관련된 정서 혹은 자질, 태도, 습관을 중시한다.

초등교육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에 관한 내용 중 초등교육의 통합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항목을 부분 발췌하여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초등교육의 통합성(교육부, 2015)

<p><교수·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 환경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는 self-contained classroom(Lane, K. et al., 2005) 구조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역시 한 학급을 한 명의 담임교사가 한 해 동안 전담하는 담임교사 제도를 택하여 교사가 학생을 통합적인 전 일체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고재천, 2001).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학급당 평균 20-25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한다. 또한 한 명의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교과를 가르친다. 초등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실과 10개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교과교육, 생활지도, 학생과 학부모 상담, 급식 지도, 학급의 학사처리, 동학년회의, 학교 업무,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가장 주가 되어야 할 ‘가르치는 일’을 설계하고 수업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한다(Tina, 2019). 그리고 다른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조언을 참견으로 생각하여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한다. 담임교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으로부터 다양한 문제(예: 근무 시간 내 교사의 사적 업무, 아동학대 등)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은 학생과 교사 간 신뢰와 협력, 안정적인 학급 운영, 교과 간 통합 수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근거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며 세종시교육청이 담임연임제, 담임중임제와 같은 초등학교 맞춤형 담임제도를 시범운영하기도 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1).

그리고 아동 발달을 위한 신체활동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환경이다. [그림 1-1]과 같이 교실 앞쪽에 교사의 책상, 대형 TV, 칠판 등이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가 기본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교실 옆이나 뒤에는 학생의 사물함과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이 있다. 그러나 최

근에는 교실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공간을 만든다([그림 1-2] 참조). 예를 들어 교실 내에 바닥에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곳, 복도와 화장실의 변화, 새로운 놀이터 등이 있다.



[그림 1-1]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연구자 촬영)



[그림 1-2] 공간혁신을 통해 변화한 학교 복도의 모습(경상북도교육청, 2020)

나. 초등 체육교육의 통합성

초등 체육교육 또한 초등교육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체육 만 병통치약’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의 건강 유지,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향상 등 좋은 점을 익히 들었다(최의창, 2005). 여기서 체육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체육이 개인의 미래 신체활동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갖는지, 즉 ‘체육 효과(PE effect: Green, 2012)’라고 부를 만한 경험적 증거가 오늘날까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다(Gerald Griggs 저, 이옥선 외 공역,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주장은 아동기에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것이다(Green, 2012: 18). 평생에 걸친 신체활동 참여의 기초가 초등학교 시기에 구축(Birchwood et al., 2008; Scheerder et al., 2006)되려면, 어린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발달 단계에 적절한 신체활동을 폭넓게 잘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Griggs & Stidder, 2012).

1) 목표: 전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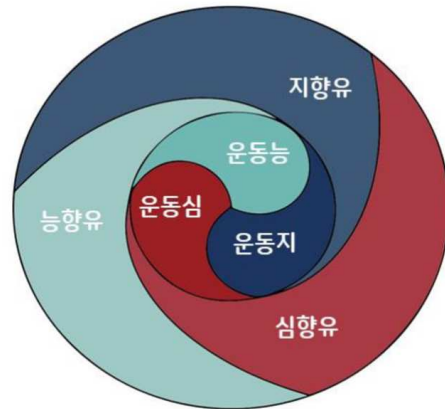
체육 교과는 여러 교과 중에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유일한 교과이기에, 편중됨 없는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 제시된 체육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략)

이와 같은 체육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체육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 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신체활동의 심화 및 적용 교육’을 담당한다.

초등 체육교육에서도 궁극적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의창, 전세명(2011)은 초등체육의 목적을 ‘전인교육을 위한 운동소양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한 바 있다. 운동소양(Sport Literacy)이란 체육교육을 통해 최종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자질 혹은 능력으로, 운동소양의 함양은 신체활동을 온전히 수행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조해내는 통합적 자질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운동소양은 운동능(能-운동을 하는 능력), 운동지(智-운동에 관한 지식), 운동심(心-운동을 대하는 태도)으로 구성되어 있다(최의창, 2013). 이 운동소양이란 개념은 ‘운동향유력(運動享有力)이라는 개념과 이어진다. 운동향유력이란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므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량을 말한다(최의창, 2018). 통합적 체육을 통해서 함양된 운동소양은 운동향유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은 운동향유력에서 능향유, 지향유, 심향유의 형태로 발휘된다. 능향

유는 해봄으로써 맛보는 것, 지향유는 지성으로 즐기는 것, 심향유는 마음으로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림 2] 운동소양과 운동향유력의 관계

SHAPE America(홈페이지 <https://www.shapeamerica.org/standards/pe/>)에서 ‘체육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가?’를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하여 다음의 5가지 특징으로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첫째, 다양한 운동 기술과 움직임 패턴의 유능함, 둘째, 움직임과 운동 수행에 관한 개념, 원리, 전략 및 전술적 지식 적용, 셋째, 신체활동과 피트니스의 건강-강화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지식과 기술, 넷째,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다섯째, 건강, 즐거움, 도전, 자기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등 신체활동의 가치 인식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체육교육도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위한 체육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합적인 방법으로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육활동을 신체활동과 인문적 지혜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법은 ‘인문적 체육교육’이라 불리며, 인문적으로 운동을 이해하고 느끼고 실천한다는 것은 신체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적 지혜와 체험을 함께 맛보는 것을 의미한다(최의창, 2006; Anderson, 2001).



[그림 3]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교육부, 2015)

인문적 방식은 대표적으로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의 서사적 체험을 통해 체육을 접하고 즐기는 것이다([그림 3]의 ‘간접 체험 활동’ 참고). 수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수영을 배우는 학생이 수영의 영법, 호흡법과 같은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수영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수영의 역사를 이해하거나 수영을 통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수영이 가진 가치를 더 깊이 음미할 수도 있다. 또 수영과 관련된 영화, 음악, 미술 작품, 건축물 등 다양한 인문적 자산들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맛을 보고 그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체험은 운동에 대한 지혜를 쌓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실제 운동 행위의 실천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렇듯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은 서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함양되게 된다.

2) 교육 환경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체육은 초등교육 속 체육이라는 한 교과로 교육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대부분 교사는 체육전문교과교사가 아닌 학급 담임교사라는 점 등 중등교육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최

재영, 2019).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삶과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존중해 자율적 학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배우며, 움직이고 말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놀이와 재미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Halliwell, 1992). 즐거움을 지향하며 기반으로 하는(joy-oriented) 체육교육에서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즐거움, 내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강조한다(Blankenship & Ayers, 2010). 그러나 무분별한 놀이 위주의 수업 또는 정교한 스포츠 스킬 습득을 위한 기능 위주의 수업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실외 환경이 아동들의 신체활동 촉진과 사회정서학습 실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연구(Rosiek, M. et al., 2020)를 토대로 우천, 미세먼지 매우 나쁨, 폭염이나 한파 등의 환경적 제약과 운동장 사용 시간 배정 등의 물리적 제약을 고려하되 학생들의 야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충청남도교육청, 2021)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더불어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림 4]에서 ‘건강과 인성: 전인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과정’ 부분에서 체육 교과가 기능 위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필수 교과임을 알고 신체활동과 어울리는 통합적 체육교육 활동들을 찾아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 2021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추진과제

2. 사회정서학습

가. 사회정서학습의 주요 배경 이론

사회정서학습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의 시초를 James Comer 박사의 SDP(School Development Program)에서 찾는다. 예일대학교의 아동정신과 의사였던 코머 박사는 1968년 지역에서 소득과 학업 성취가 가장 낮았던 두 학교를 대상으로 SDP를 만들어 적용하였다. SDP는 아이들이 잘 성장할 때 잘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었다. 그 결과 두 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으며 학업성취도가 상승하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감소했다. SDP로부터 사회정서학습의 시초를 찾는 이유는 학교 전반의 노력들을 조정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꾀함으로써 학업과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성과를 낸 첫 개입 사례로 보기 때문이다(김윤경, 2020). 당시 SDP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젊은 연구진은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처방보다 문제 행동이 생겨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적 틀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그간 행해진 학교 개입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핵심적인 사회·정서 역량 목록을 만들었다. 그 뒤 1994년 교육자를 비롯해 예방의학 연구자와 아동 권익 운동가들이 모여 ‘사회정서학습’이라는 용어를 만든다. 그러고는 예일 아동연구센터에 사회정서학습의 시행과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CASEL(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다. CASEL은 홈페이지(<https://casel.org>)에 사회정서학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회정서학습은 어린이와 성인이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보여 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사회정서학습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는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CASEL, 2015).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의 영향을 정교하게 인지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자신감과 긍정성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자기 관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스트레스를 다루고 충동을 억제하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적·학업적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역량이다. ‘사회적 인식’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동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규범을 이해하는 능력, 가정·학교·공동체의 자원과 지원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대인 관계 기술’은 다양한 개인 또는 집단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또한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경청하기, 협동하기,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기,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기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은 윤리적 기준, 안전, 사회적 규범, 다양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자신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사려에 근거해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능력이다. 다음 [표 2]는 사회정서학습의 다섯 가지 핵심역량과 그 개념을 구체화한 하위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

[표 2] 사회정서 학습의 핵심역량과 하위 기술(Elias et al., 2008: 251-252)

핵심역량	하위 기술	
<p>자기 인식 (Self aware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의 이유 및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 내면의 힘(강점)을 인식하고 자신, 학교, 가족,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결합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대해 알기 •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 • 자기 효능감 갖기 • 여성(삶의 의미 및 목적감) 갖기
<p>자기 관리 (Self manag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 분노, 우울을 말로 표현하고 이런 감정들에 대처하기 •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통제하기 • 개인적 또는 대인 관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목표 설정하기 •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기 • 피드백을 통해 행동 수정하기 • 긍정적 동기를 결집시키기 • 희망과 낙관주의를 활성화시키기 • 최선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
<p>사회적 인식 (Social aware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존중하기 • 타인에 대한 존중 보여주기 • 주의 깊게, 정확하게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정서에 대해 공감하고 민감성 증대하기 • 타인의 관점, 견해, 정서를 이해하기
<p>대인 관계 기술 (Relationship skil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에 있어 정서를 조절하고 다양한 정서와 견해를 조화시키기 • 사회-정서적 단서들에 대해 민감성 보이기 •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사회적 상황에 참여시키기 • 관계 형성하기 • 협력해서 일하기 • 자기주장, 리더십, 설득 발휘하기 • 갈등, 협상, 거절 관리하기 •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기

책임 있는 의사 결정 (Responsible decision 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을 민감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 사회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술을 실행하기 • 대인 관계적 장애물에 대해 생산적이고 문제해결적 방식으로 반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기 •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	---

사회정서학습의 교육철학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긍정적 아동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접근이다. 긍정적 아동 발달은 아동이 자신을 지지하는 관계와 환경의 지원 속에서 사회·정서적 기술과 회복탄력성을 길러 문제를 예방하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한다. 긍정적 아동 발달 프로그램은 부족 또는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예: 폭력 방지, 중도 하차 방지)의 대안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아동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아동 중심의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Catalano et al.,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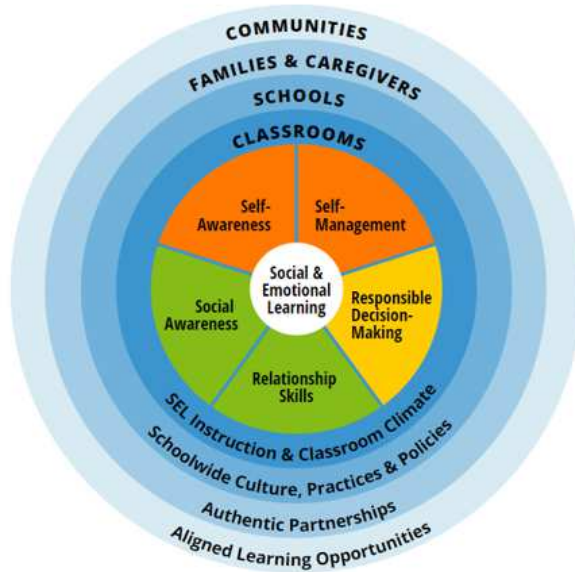
둘째,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이다.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아동이 맺고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보여 준다. 아동 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이웃 등 체계들은 매우 역동적이며, 다른 체계와도 영향을 주고받는다(Bronfenbrenner, 1996). 아동은 특히 많은 환경의 미시 체계 맥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중에서도 학교는 학생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아동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교정하기보다 아동 스스로 문제 환경을 다룰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정서학습이 ‘과정’인 이유도 어떤 단일하고 특별한 방법, 지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학교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이다. 사회인지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반두라에 따르면, 사회인지이론은 인간의 학습이 사회적 환

경에서 아동의 행동과 인지적 과정, 사회적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Bandura, 1986)고 보며 자기 조절 능력을 매우 강조한다. 자기 조절 과정은 목표 수립, 예상되는 행동의 결과 판단하기, 자기 규제적 사고, 감정과 행동에 대한 과정 평가를 포함한다. 학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사회인지이론은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아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도 모델링, 행동 시연, 또래와의 훈련 등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나. 사회정서학습 프레임워크

사회정서학습은 사회적(Social), 정서적(Emotional), 그리고 학습(Learning)이라는 개념을 통합하고 있다(Elias et al., 2008). 사회적 측면은 개인 간의 측면으로 가족, 또래, 교사 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서적 측면은 개인 내 측면으로 정서와 인지에 관련되어 자기 인식 및 자기 지식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은 이러한 사회정서역량의 발달을 위해서 수업, 연습, 피드백 등을 활용함을 의미한다(Merrell & Gueldner, 2010). 사회정서학습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구체화한 개념이다. 처음 정서지능을 언급한 것은 가드너(Gardner)였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론의 8가지 지능을 이야기 하면서 그 중에 대인인지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과 자기인지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에 대해 소개했다. 이것을 토대로 Salovey와 Mayer은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처음 학술지에서 사용하였다.



[그림 5] Interactive CASEL Wheel (CASEL, 2020)

많은 사람들에게 “CASEL Wheel”로 알려진 사회정서학습 프레임워크는 학생들의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기술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5]을 보면 사회정서학습의 다섯 가지 역량(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발달을 지원하는 네 가지 핵심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급의 사회정서학습과 환경’, ‘학교 전반의 문화, 실천과 정책’, ‘가정과의 협력’, ‘지역 공동체에서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까지 제시되어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신뢰와 협력 관계, 엄격하고 의미 있는 커리큘럼과 교육, 지속적인 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학습 환경과 경험을 확립하기 위해 진정한 학교-가족-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과 우수성을 향상시킨다. 사회정서학습은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번영하는 학교를 만들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다(CASEL, 2020).

다.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관련 연구

1) 국내 연구

국내에서 많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졌다. 이혜숙 외(2011)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정서 발달 프로그램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별 평균 효과 크기에서 주 4회 이상, 1~4주 기간, 1회 40~50분 정도 실시하는 것과 미술, 체육, 치료프로그램 순으로 효과가 높았다고 한다. 특수교육을 제외하고, 관련 연구들을 [표 3]에 연구 대상, 연계 교과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학교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많았다(이인재 외, 2010; 이정화, 이한주, 2013; 김은정 외, 2015; 김동일 외, 2021 등). 김은정 외(2015)는 국외 사례를 통해 효과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Strong kids, PATHS,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한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진행하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과 학급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인재 외(2010)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학습이론에 근거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4개월 간 25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학생의 의견조사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과 학생들이 사회정서적 능력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 연구는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박유미, 최인숙, 김은아, 2010; 이정화, 이한주, 2013; 노민자, 2015; 양옥승, 류은미, 2016; 오윤아, 김대식, 2019; 최미영, 2017, 2019; 권슬아, 최준섭, 이재용, 2020; 김가현, 신태섭, 2020 등). 사회정서학습을 연계한 교과로는 국어, 미술, 음악, 체육, 실과 등이 있었다. 최미영(2017, 2019)은 Strong kids를 바탕으로 음악 교과와 연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반부에는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명시적 학습이 있고, 후반부에는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학업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정화, 이한주(2013)는 사회정서학습을 고등학생의 체육 표현활동 무용 수업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일지와 협력교사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필요한 긍정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가 드러났지만 부정적 사고 또한 발견하였다. 창피함, 어색함, 어려움과 같이 사회정서학습 기반의 표현활동 무용 수업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권슬아 외(2020)는 동화를 활용한 공감 6단계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정서역량과 인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초등학교의 1학년, 2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비교적 폭 넓게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로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교과와 연계되지 않고 일반 교육학적 측면에서 다른 연구들도 있다(성정민, 2017; 이선숙, 박종효, 2019; 김현정, 2020; 김동일 외, 2021).

[표 3] 국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연구 요약 (연도순, 저자 가나다순)

대상	저자(연도)	연계 교과	주요 연구 결과
영·유아	박유미, 최인숙, 김은아(2010)	체육	만2세 또래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별, 2인, 소집단 활동으로 순차적 제공, 영아의 신체운동, 사회-의사소통, 사회-정서 영역,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
	노민자(2015)	국어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30회기를 개발하고, 이를 유치원 만 4세 2학급 30명에게 적용, 사전-사후 검사 결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에 긍정적 효과
	양옥승, 류은미(2016)	음악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28회를 개발하여 적용, 자발적인 음악 활동 참여와 감정 표현 증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

대상	저자(연도)	연계 교과	주요 연구 결과
	이강훈, 황해익(2019)	통합	만5세반 유아 52명(실험집단 27명, 통제집단 25명) 대상, 실험집단은 스토리 플레이(그림책 활용 신체활동) 프로그램, 통제집단은 누리과정에 따른 신체활동 실시, 유아의 기본운동능력, 창의적 신체표현 능력, 이야기 이해력, 사회적 유능감, 정서지능,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과 함께 유아기 놀이성 증진에 효과
	김가현, 신태섭(2020)	미술	10차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집단에 적용,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유의한 차이 발견
초등	이인재, 지준호, 한성구, 손경원 (2010)	도덕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 간 25회기의 사회정서학습이론에 근거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효과 검증,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학생의 의견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증, 사회정서적 능력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 실생활에 활용
	김은정, 김춘화, 이상수(2015)	일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국외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Strong Kids, PATHS, 비폭력대화에 근거하여 재조직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11차시를 실시,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회정서역량과 공동체의식의 유의미한 변화
	성정민(2017)	일반	6학년 학생 총 30명(남 17명, 여 13명)을 대상으로 ‘강한 아이 프로그램’ 13회 분량을 적용,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인성 함양에 유의한 차이, 90%가 변화모습을 긍정적으로 기술
	오윤아, 김대식(2019)	실과	사회정서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방과 후 농업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11-13세) 초등학생 총 30명(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2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 실시, 학생의 정서지능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
	이승현(2019)	신체 기반	4주간 예비프로그램 설계하여 운영, 사전-사후 검사 결과 사회-정서적 역량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대상	저자(연도)	연계 교과	주요 연구 결과
	최미영(2019)	음악	Strong Kids를 바탕으로 사회정서적 지식의 수준과 사회정서적 특성 및 회복탄력성 등이 유의하게 증가
	권슬아, 최준섭, 이재용(2020)	국어	동화를 활용한 공감 6단계 프로그램을 개발, 초등학교의 1, 2, 5학년 214명(실험 111명, 통제 103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 실시, 사회정서역량과 인성수준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청소년	이정화, 이한주(2013)	체육	SEL 표현활동 무용수업 모형을 고등학생에게 적용, 학생들의 수업일지와 협력교사 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 학생들의 사회·정서 발달에 필요한 긍정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가 나타났지만 부정적인 사고 또한 발견
	이선숙, 박종효(2019)	일반	9회기의 프로그램 개발, 실험학교(본 프로그램)-통제학교(보통 수업), 실험집단의 안녕감 향상, 내재화 문제행동 감소,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적
	김현정(2020)	일반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의 난타 프로그램 10회기 개발, 치료적 음악으로서의 난타를 통하여 직접적인 폭력 감소 효과 기대
	김동일, 우예영, 박찬훈, 한다솜(2021)	일반	사회정서학습 이론 기반의 인성 집단프로그램 12회기 실시, 중학교 1학년 학생 1285명(실험집단 733명, 비교집단 552명)을 사전-사후 검사한 결과 자아존중감, 사회결속, 공감, 협력에 유의한 효과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Zins, Bloodworth, Weissberg, & Walberg, 2004). 이를 사회정서역량으로 이름 붙이고 그것의 하위범주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 절차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정서학습은 시행 절차를 염두에 두고 따를 때 더 체계적이고 일관

성이 있으며 교육 효과도 높다. 다음의 [표 4]와 같은 절차를 많은 실행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표 4] 사회정서학습 시행 절차(CASEL, 2020 재구성)

준비	1	이론적 토대 마련(관련 연구 분석)
	2	팀 결성
	3	시행의 공표
계획	4	비전 및 목적 설정
	5	학교 특성, 수요, 자원 조사
	6	실행 계획 수립
	7	프로그램 설계
	8	전문가 피드백
실행	9	교수 역량 강화(프로그램 공유)
	10	프로그램 실행의 확대
	11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피드백
	12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정
	13	프로그램 일반화

준비 단계에서는 사회정서학습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프로그램 사례 등을 탐색하고 분석하며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리고 팀을 결성하여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시행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정한다. 학급, 학년, 부서, 학교 전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하겠다고 공표 즉,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지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준비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사회정서학습이 무엇인지, 사회정서역량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한다. 학교 특성과 수요, 자원을 조사한 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다.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가정과의 연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은 프로그램 설계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기존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을 학교 특성과 교육 목적에 맞게 재구성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계획상 적절하고 바람직한지 전문가 피드백을 받는다.

마지막 실행 단계에는 교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 전체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및 전략 등을 공유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점차 가정, 학교 밖 생활 등으로 확대하고 학교 전반에 걸친 활동들에 통합한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의 평가적 피드백을 통해 즉각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을 정리하여 둔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정 과정은 사회정서학습을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해를 걸쳐 효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은 일반화를 통해 여러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양적 연구였다(성정민, 2017; 이승현, 2019; 김동일 외, 2021). 사전-사후에 각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을 수치화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변인을 측정,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이 영·유아인 연구는 교사평가, 교사의 반성일지를 통해 성인 연구 참여자의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2) 국외 연구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213개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결과(메타 분석)는 양질의 사회정서학습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학습태도와 행동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Durlak et al., 2011).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ynn(2000)은 50 Activities for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Goleman의 정서지능을 기초로 제작하였다.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자아인식, 감정 다루기, 의사결정, 스트레스 관리, 개인의 책임, 자아개념, 감정이입, 의사소통, 집단 역동, 갈등 해결의 총 열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하나의 단원에서 다루게 된다. 자아인식은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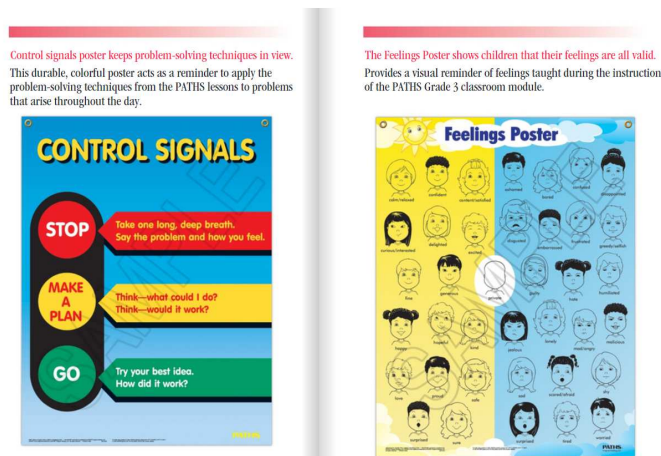
의 선호와 문화적 배경 장단점을 지각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감정 다루기는 생각, 감정, 행위 간의 관계알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기, 감정이면의 욕구 이해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개념영역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감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혼잣말’ 관찰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 영역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Dasho, Lewis, & Watson(2001)는 Child Development Project (CD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조발달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아동이 자신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평가하는 내용은 구조발달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타 프로그램과 구별이 되는 것은 Child Development Project(CDP)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교실 공동체 영역, 협동 학습 영역, 문학작품 도서 영역, 발달 훈육 영역이다. 교실 공동체 영역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협동 학습 영역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려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문학작품 도서 영역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 경험, 가치관 등을 학습하고 작품에서 나타난 대처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달 훈육 영역은 학생들이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Merrell et al.(2007)은 강한 아이(Strong Kid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Pre-K, K-2, Grades 3-5, Grades 6-8, Grades 9-12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고 모든 프로그램은 정서 이해, 감정 확인, 분노 관리,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 대인간 문제해결 등의 사회정서기술을 다룬다. 프로그램은 12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시는 사회정서기술의 소개, 모델링, 역할놀이, 실습 시나리오와 적용, 집단 토의 등을 통해 사회정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교사가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자원과 전문적 훈련만 가지고도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강화에 최대한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강한 아이 프로그램은 사회

정서적 문제 중에서도 내재화 증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학생들이 내용지식을 잘 기억하고, 내재화 증상이 감소하고 개입충실도와 사회적 타당도가 높아졌다(Harlacher, 2008, Merrell et al., 2008).

Kusche & Greenberg(2011)의 PATHs가 있다.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의 약자로 PATHs로 불리어진다([그림 6] 예시).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의 예방연구센터에서 개발된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이해, 자기조절, 긍정적 자기 존중감, 대인 관계 및 관계문제 해결 기술의 발달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PATHs는 일반 교육을 받는 아동들과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들 모두에게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으며(Greenberg, Kusche, Cook, & Quamma, 1995; Kam, Greenberg, & Kusche, 2004; Riggs, Greenberg, Kusche & Pentz, 2006). 구체적으로는 정서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증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문제해결 전략의 향상; 좌절 인내 능력의 증진; 슬픈 기분과 파괴적 행동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Greenberg et al.(1995)는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PATHs를 실시한 결과 아동들의 정서 경험에 관한 어휘가 증가하였고 정서조절과 정서표현에서 유의미한 발달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Kam et al.(2004)는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이던 아동들이 PATHs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우울증



[그림 6] 3학년을 위한 PATHs 모듈 샘플 (<https://info.pathsprogram.com/> 제공)

상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3.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

가. 인성교육에 관한 정과 체육에서의 접근

체육 교과는 운동 기술 향상과 체력 증진과 같은 신체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영역의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다(Bailey et al., 2009; Merkel, 2013). 하지만 단순히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전인교육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전략, 수업 모형 등을 사용해왔다. 국내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기능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전통 체육수업을 탈피하려는 시도로서,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 스포츠교육모형,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과 같은 소론부터 인문적 체육교육, 현상학적 체육과 같은 대론의 형태까지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최의창, 2021).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천 선언’을 개최하였다(서울시교육청, 2021). 이는 승자독식의 경쟁 지향적 스포츠 문화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성의 바탕 위에 도전, 경쟁, 공정, 공존, 평화 등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가치를 실천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과 편견 없이 스포츠를 향유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유대 증진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

Donald Hellison(1995, 2011)에 의하여 개발된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Teaching Personal-Social Responsibility; TPSR) 모형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모형 중의 하나이다. 신체활동이나 스포츠는 학생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 세계와 연계된 문자적 수준 이상의 인성교육을 위한 입체적인 재료이자 실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발된 것이 책임감 모형이다(이옥선, 2013).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은 원래 위기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감소와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초기 연구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위험 요인이 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책임감 모형의 폭력 예방 효과(Wright, 1998), 학업성적, 문제행동의 빈도, 출석률과 같은 학교생활 지표에서 개선 효과(Cummings, 1998; Martinek, McLaughlin, & Schilling, 1999)를 보여 주었다. 위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 프로그램에 주로 적용되었던 책임감 모형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정규 체육수업의 모형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까지도 TPSR 모형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TPSR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은자(2007)의 책임감 모형을 적용한 체육수업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존중, 노력, 책임감, 배려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책임감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축구 기본 기능 향상과 축구에 대한 흥미, 관심의 증대를 발견한 연구(김신규, 2008), 책임감 모형의 실천이 학급을 책임감 공동체로 거듭하게 하고 인성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고 이야기한 연구(조기희, 2014) 등이 있다.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은 “What’s worth doing?(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What’s best for kids?(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형태는 유연하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책임감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Hellison(2011)은 책임감 수준을 0단계 무책임부터 1-5단계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의 구성요소를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책임감 수준의 구성요소

책임감 수준	구성요소
1: 다른 사람의 권리와 기분 존중(Respect for the rights and feeling of others)	자기 통제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한 권리
	포함될 권리 및 협력적 동료를 가질 권리
2: 참여와 노력 (Participation and effort)	자기 동기부여
	노력과 새 과제에 대한 탐구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3: 자가지향성 (Self-direction)	과제에 대한 자립성
	목표 설정 진행
	동료의 압력에 저항할 용기
4: 다른 사람 돕기와 리더십 (Leadership)	배려와 동정
	민감성과 응답성
	내면의 힘
5: 삶으로 전이(Transfer outside the gym)	이 아이디어를 삶의 다른 분야에 시도하기
	다른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의 긍정 롤모델 되기

Hellison(2011)은 효과적인 책임감 수준의 증진을 위하여 수업의 데일리 포맷(daily format)을 계획하였다. 먼저 관계맺기 시간(relational time)이다. 교사는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위기와 개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허물없는 1대1 대화를 나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지내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등이고 수업 전과 후 기회가 생길 때 가능하다. 이어서 인식 대화(awareness talk)를 진행한다. 이는 수업 계획, 학생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공적인 대화이다. 그리고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을 수행하고,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책임지고 학습 내용에 몰두한다. 신체활동이 끝난 후 그룹 미팅

(group meeting)과 성찰 시간(reflection time)을 제공한다. 그룹 미팅은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에 대한 의견, 그룹의 활동 수행과 화합 등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이에 반해 성찰 시간은 자기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 기회를 갖는 것이다.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과 사회정서학습에 사용되는 언어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복과 정렬의 정도가 심하다. 사회정서학습은 다소 새로운 것이지만,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은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 정교함,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거의 50년 기간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의 사회정서역량은 TPSR 수준 1과 3으로 가장 잘 다루어지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자기 인식은 TPSR 수준 2와 강하게 일치하며, 대인 관계 기술과 사회적 인식은 TPSR 수준 4에 의해 지지된다. TPSR 수준 5와 가장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세 가지 SEL 역량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기 인식, 사회적 인식이다. 개인적-사회적 책임감 모형의 경우, 내용은 신체 활동이며 능동적인 형태의 학습으로 사회정서역량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TPSR 그룹 미팅과 성찰 시간은 감정, 강점 및 약점을 인식하여 인식을 구축하는 SEL 프레임워크와 가장 잘 일치한다(Gordon, Jacobs & Wright, 2016).

2) 협동학습 모형

세계 체육의 흐름이 ‘스포츠 기술(sport skills) 습득’에서 ‘활동적인 생활 기술(active life skill)의 발달’로 옮겨가고 있다(유정애, 200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취 지향적이고 과정중심적인 모형으로 알려진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모형은 변화하는 교육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체육수업 모형 중 하나이다(김성곤 외, 2006). 협동학습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이고 교수·학습 전략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타 교과의 협동학습 관련 연구는 1995년부터 2002년 사이의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만도 300여

편이 넘게 보고 되었을 만큼 매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체육학 분야의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몇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체육수업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부 학생에게만 학습 기회와 상호작용이 집중되지 않으면서 모든 학생들을 동시에 학습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Metzler, 2000).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업 모형이 협동학습이다. 협동학습이란 학습 능력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하여 이질적인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 방법이다(Slavin, 1987). 협동학습은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와 학습자 중심 학습(student-centered learning)에 기반을 둔다. 교사는 학생 각각의 참여와 책임감을 독려할 수 있는 과제를 계획하여 제시하고, 학생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 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협동하는 학생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육 교육 실천으로서의 협동학습에 대해 설명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positive interdependence), 둘째, 개인 책무성(individual accountability), 셋째, 면대면 상호작용 증진(promotive face-to-face interaction), 넷째, 대인·소집단 기술(interpersonal and small group skills), 다섯째, 그룹 처리(group processing)이다. 협동학습에서 모든 학생들은 상호의존적인 그룹 활동에 기여하며, 이것은 학생들이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는 학습 환경을 확립한다. 이는 한마디로 “We sink or swim together.”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구조 하에서는 다른 학습자가 목표를 성취했을 때에만 자신도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학습을 하게 된다. 협동학습에서 경계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무임승차자(free rider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은 책무성을 가지고, 면대면 상호작용을 늘려 물리적으로 가깝게 활동에 임해야 한다. Dyson과 Casey(2012)는 각 구성원에게 매니저, 독자, 기록자, 확인자, 코치와 같은 상호 연결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가 학습

과제를 협동적으로 구조화시킬 때, 학습자들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 발달된다. Orlick(1982)은 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협동적인 학습 내용을 통해 크게 향상되며, 협동 게임은 학생들의 성공감과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준다고 보고하였다(Orlick & Pitman, 1988).

체육은 모든 학생들이 반기지 않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지 않았던 다시 말해, 많은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소외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Carlson, 1995). 대조적으로, 협동학습은 학생들이 서로 지원하고, 주제 내용을 마스터하거나,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2-4명의 동료들과 함께 작고, 구조화된, 이질적인 그룹으로 일하는 것을 보는 교육학적 접근 방식이다(Cohen, 1994; Slavin, 2010). 이질적인 그룹은 협동학습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포괄적인 교육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교실의 실제 세계에서 진정 이질적인 그룹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성별, 민족성 또는 능력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진정한 이질적인 집단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학생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들을 잘 아는 것이다.

협동학습에는 ‘과제분담’ 방식과 ‘보상’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정문성, 2002). 과제분담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 모형으로는 직소(Jigsaw) 모형과 집단탐구(Group Investigation) 모형,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Co-op Co-op) 모형 등이 있다. 보상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 모형으로는 성취과제 분담학습(Student Team-Achievement Division; STAD) 모형과 팀 경쟁 학습(Team Games Tournaments; TGT) 모형이 있다. 최근에는 학생의 상호작용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과제분담과 보상을 결합한 모형이 개발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Jigsaw II 모형이다.

Dyson, B. et al.(2021)은 체육교육에서 협동학습 구조를 활용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조사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 성과에 대한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팀의 일원이 되는 것, 경청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는 것, 체육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협

동학습 체제에서는 운동기능의 높고 낮음이나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가 집단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well-being)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협동학습은 사회·정서적 역량과 학생이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학적 모델로 부상했다(Dyson et al., 2020).

3)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

학생들이 체육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 중 일부에는 ‘창피하고, 지루하고, 무관하고, 개인적 의미가 결여된(embarrassing, boring, irrelevant, and lacking personal meaning)’이 있다(Carlson, 1995; Cothran & Ennis, 2000; Ennis et al., 1997). 이에 대한 대안적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미국과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것이 어드벤처형 학습(Adventure-Based Learning) 모형이다.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이란 경험의 교육적 목적이 강조되고 학생들이 보고(debrief) 과정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발전을 반성하는 어드벤처의 형태를 포함하는 학생 중심 접근이다(Sutherland & Legge, 2016). 선택에 의한 도전은 학생들이 활동 내에서 자신의 참여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하기 위한 배려와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은 대인관계 기술(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skills)을 촉진하는 활동의 의도적인 흐름을 수반한다. 이 모형에서 사용되는 활동은 암벽등반, 래프팅과 같은 전통적인 실외 활동부터 체육관, 교실, 실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적은 장비로 가능한 그룹 활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의적 영역의 학생 성장은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의 주요 초점이며, Kolb(1984)의 경험적 학습 사이클(Experiential Learning Cycle; ELC)에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 정의적 영역은 태도와 감정과 같은 내부적 과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종종 외부 행동에 의

해 입증된다. ELC의 전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 주기는 4단계 학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A) 구체적인 경험: 경험에 참여하는 것, (B) 반성적 관찰: 경험을 되돌아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질문에 답하는 것, (C) 추상적 개념화: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기존의 개념을 수정하기, (D) 적극적인 실험활동: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전이시키기. Kolb의 사이클은 어드벤처형 학습 분야에서 경험적 학습을 위한 모델로 가장 폭넓게 인용되었다(Priest & Gass, 2005). ELC가 가장 중요한 틀임을 이해하였다면, 다음 [표 6]은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의 필수 요소 다섯 가지와 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의 필수 요소와 특징

필수 요소	특징
순서와 흐름 (Sequence & F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서: 어색함 깨기, 의사소통, 협력, 정서적 신뢰, 물리적 신뢰, 문제 해결, 도전 순서를 안내하기 위한 질문 -주어진 시간은 얼마인가? -참여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이전 경험은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공간과 장비가 있는가? ▶흐름: 순서가 선정되고, 참여자에 의해 경험되어 지는 방법
과정 (Proces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 하기(brief): 수업의 강조점을 먼저 배치. 인용문, 단편소설, 유튜브 클립, 만화, 사진, 다이어그램, 노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보고 듣기(debrief):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의미 이끌어내기, 수업의 강조점 이해하기
촉진과 내용 지식 (Facilitation and Content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촉진: 경험적 학습 과정을 통해 그룹을 안내, 보고 하기를 통해 학습 단계 설정, 활동의 경계선 설명, 정서적,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는 데서 그룹 활동 수행, 학생 중심의 보고 듣기를 통해 수업 마무리 ▶내용 지식(CK):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에 관한 내용 지식이 필요-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의 순서와 흐름의 중요성 이해, 과정, 촉진, 선택에 의한 도전, 완전 가치 계약, 경험

	적 학습 이론, 사회정서학습, 집단 관계 역학
정서적, 물리적 안전 (Emotional & Physical Safety)	▶정서적, 물리적 안전: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지지받는 환경 조성
평가 (Assessment)	▶평가 중점: 학생의 이해와 사회정서역량 발달, 어드벤처형 학습 이후로의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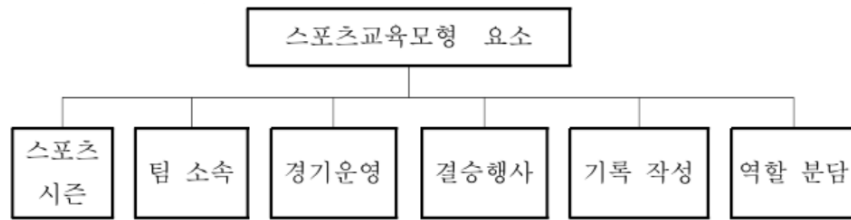
몇몇 연구들은 체육수업에서 도전 및 어드벤처형 교육과정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수용 인식, 신체적 외형, 운동 능력, 행동 수행,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Gibbons & Ebbeck, 2011; Gibbons et al., 2018).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은 사회정서역량과 관련 있는 일부 구성요소에 관한 중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즐거움, 신체상, 자부심, 인지 능력 등 말이다(Baena-Extremera et al., 2012). 어드벤처형 학습 모형은 고등학생들에 의해서도 전통적인 체육 피트니스 수업보다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새롭고 색다른 방법이자 전반적인 신체활동으로 건강, 유연성, 힘과 같은 신체 자아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인식되었다(Gehris, Kress, & Swalm, 2010).

4) 스포츠교육 모형

Daryl Siedentop(1994)에 의해 개발된 스포츠교육(Sport Education) 모형은 실제적이고 발달에 적절한 학교 내 스포츠 경험 연구를 통해 잘 정착되어 왔다(Siedentop, Hastie & van der Mars, 2004; 2011; 2020). 학교교육에서 스포츠교육모형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에게 문화 양식으로 ‘스포츠’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스포츠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 기능이 뛰어나고 유능한 스포츠인(competent sportsperson)이다. 경기를

만족하게 수행할 만큼의 기술(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경기상황에 따르는 적절한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고, 게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기자를 말한다. 유능한 학생은 스포츠와 다른 체육활동에 있어서 점점 더 복잡한 형태들을 편안하고 자신 있게 수행하는 것을 배운다(Siedentop, 1994). 둘째, 지식이 풍부하고 박식한 스포츠인(literate sportsperson)이다. 스포츠의 규칙, 의식,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며 어린이나 프로스포츠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행동 혹은 그렇지 못한 행동을 구별한다. 셋째, 열정이 넘치는 스포츠인(enthusiastic sportsperson)이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스포츠 문화를 보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여자로부터 흥미를 이끌고 경험의 가치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Siedentop, 1994).

스포츠교육모형은 학생들이 선수, 코치, 심판, 기록통계원, 트레이너, 그리고 홍보담당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스포츠 경험의 성공을 위해 주인정신을 계발하고 그 시즌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한명선, 2007). 즉,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스포츠교육모형의 요소([그림 7] 참고) 중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은 부분은 '팀 소속(Team affiliation)'이다. 학생들은 시즌 초반부터 각자 자기가 선택한 팀에 소속되어 필요한 기술 및 전략연습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체육수업의 취지를 점차 잘 이해하게 되면, 학생들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팀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팀에 소속되어 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단체정신을 북돋아 준다(최의창, 2003). 이러한 동료관계는 집단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개인의 책임을 요구하며 그러한 과정은 학생의 자아 성장을 위한 잠재력으로 작용한다. 팀 내의 동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며 학생들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동료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7] 스포츠교육모형의 요소

이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Harvey, Kirk & O'Donovan, 2014). 학생들은 시즌 동안 지속적인 팀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계획하고, 연습하고,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공유된 팀 목표를 향한 이 협력적인 활동은 팀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소속감과 연관성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는 사회적 인식과 대인 관계 기술이라는 주요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서학습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명시적인 것은 주어진 활동에서 그러한 기술이 자동으로 개발/학습된다고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러한 기술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Richards et al., 2019). 사회적 인식의 사회정서역량은 지속적인 팀 구조와 관련 팀 소속 내에서 개발될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은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취하고 공감하는 것을 포함한다(CASEL, 2019). 스포츠교육모형 내에서, 자기 표현과 협력은 팀이 과제에 대해 함께 성찰한 다음 후속 과제에서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할 때 종종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기술의 사회정서역량은 팀원들과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경청하기, 협력하기, 부적절한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기, 갈등을 건설적으로 협상하기,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기를 포함한다. Ang 외(2011)는 팀 코치/감독이 경기 중에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선수들 간의 갈등, 특히 공식적인 담화 자리에서의 갈등에 대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때 대인 관계 기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5) 하나로 수업 모형

하나로 수업은 인문적 체육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체육수업 모형이다(최의창, 2010). 인문적 체육교육에서는 ‘체육활동이 갖는 문화적 의미의 구현을 통하여 학생을 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문화에 입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문화에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기능의 습득(기법적 차원)만이 아닌 운동의 정신, 전통, 안목의 체득(심법적 차원)이 절대적이다. 후자를 위해 학생들에게 서사적 체험과 역사, 철학, 예술, 종교적 차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으로 제공한다.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직접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 영화나 사진 감상, 도서 읽기, 에세이 쓰기, 자기성찰을 위한 반성일지 등의 간접체험활동을 병행한다. 이러한 인문적 체험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 담긴 인성을 나아지도록 돕고, 전인(whole person)에 다가가도록 한다.

[표 8] 하나로 수업의 내용 (전세명, 2010 수정)

수업 내용의 성격	수업의 내용(예시)
직접체험활동 - 운동을 잘 하는 것	기술연습, 전술훈련, 게임하기, 관찰과 영상 촬영을 통한 동작 분석, 새로운 기술·전술·규칙을 만들어 보기 등
간접체험활동 - 운동을 잘 아는 것	스포츠영화 보고 감상문 작성, 스포츠 관련 시·소설을 읽고 독후감 쓰기, 경기 관람 및 시청, 스포츠를 소재로 한 미술 활동, 동료와 토론하기, 조사하기 등

하나로 수업 모형은 ‘하나로’라는 말에 담긴 ‘통합적 특성’을 드러내는 명칭이다. 하나로 수업에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음의 4가지다.

첫째, 기능과 지식과 태도를 하나로!(그리하여 전인이 되도록!)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그리하여 온몸과 마음으로 겪

는 수업이 되도록!)

셋째, 학교수업과 일상생활을 하나로!(그리하여 삶의 체육이 되도록!)

넷째, (능력, 성별,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그리하여 모두를 위한 체육이 되도록!)

이런 측면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학생은 그 체육문화에 입문하게 되며, 자신의 인성적 측면에 영향을 받아 전인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극을 받는 것이다(전세명, 2010). 또한 하나로 수업의 운영 방법 중 하나인 ‘패’는 학생들이 서로 함께 연습하고 과제를 해결하고 즐거움과 곤란함을 맛보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발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로 수업에서는 개인과제와 패 과제를 적절히 부과함으로써 협동심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게 설계한다.

통합적 체육수업모형인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강유미, 2009; 김숙경, 2005; 서장원, 2008; 유은정, 2008; 유태균, 2008; 이승재, 2007; 이창현, 2009; 전세명, 2010; 정현우, 2010; 한민국, 2007 등). 그 중 특히 학생들의 인성적 측면에 초점 맞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유은정(2008)은 좋은 생각과 올바른 태도를 지니도록 반성일지를 쓰면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라는 존재, 그리고 타인에 대하여 고려하고 배려하는 교육적 효과가 생겨났다고 한다. 유사하게 글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으로 타인을 보다 넓게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강유미, 2009). 또한 유태균(2008)은 패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의 돈독한 정을 형성하고, 서로 배워가며 인정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이해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실천들을 보여주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남규(2011)는 고등학생 대상의 하나로 수업 모형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배려하는 마음, 자신감, 협동심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나. 초등 체육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의 점점 찾기

1) 구조적 유사성

초등 체육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둘의 구조 차원에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다양한 정의적 요소를 제시하는 구조(이정택, 이기청, 2020), 역량 중심의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지금까지 ‘가치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징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오고 있다. 여기서 체육과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는 스포츠, 운동, 무용을 포함한 모든 신체 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로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나 동기 등의 목적적 가치와 함께 신체 활동 수행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는 개념, 원리, 기능 및 전략, 태도, 예절 등과 같은 내용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이정택, 2015). 물론 체육과의 가치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으나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라는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역량을 강조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목표 및 내용 구성 원리의 근거를 ‘신체활동 가치 중심’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또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가치이자 영역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표 8]과 같이 각각의 학년군별·영역별 내용에 정의적 요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5-6학년군 건강과 여가 생활에서는 ‘근면성’을, 3-4학년군 영역형 경쟁에서는 ‘협동심’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과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의적 요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장용규, 2008).

[표 8]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일부 발췌 (교육부, 2015)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건강	건강 관리 체력 증진 여가 선용 자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은 신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전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지된다. (이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과 체력 자기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여가 생활 체력 운동 방법 실천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성장 발달 운동과 여가 생활 운동 체력의 증진 자기 수용 근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하기 계획하기 관리하기 실천하기 	
경쟁	경쟁 의미 상황 판단 경쟁·협동 수행 대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다양한 유형의 게임 및 스포츠에 참여하여 경쟁 상황과 경쟁 구조를 경험한다. 경쟁의 목표는 게임과 스포츠 상황에서 숙달된 기능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의 활용을 통해 성취된다. 대인 관계 능력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 활동의 의미 경쟁 활동의 기초 기능 경쟁 활동의 방법과 기본 전략 규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형 경쟁의 의미 영역형 게임의 기본 기능 영역형 게임의 방법과 기본 전략 협동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드형 경쟁의 의미 필드형 게임의 기본 기능 필드형 게임의 방법과 기본 전략 책임감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형 경쟁의 의미 네트형 게임의 기본 기능 네트형 게임의 방법과 기본 전략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하기 협력하기 의사소통하기 경기 수행하기

마찬가지로 사회정서학습에서도 다양한 정의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정서학습은 차별적 정서이론(Differential Emotions Theory)에 근거하여 정서를 확인하고 이름 붙이는 활동, 즉 정서 문해력(emotional literacy) 습득을 중시한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정서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 학교 전반의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사회정서역량에서 정서의 역할을 세 가지 수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인 관계 수준에서 정서는 ‘얼굴 표정, 음성, 몸짓’ 등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정서 상태나 신념 또는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집단 수준에서는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수준에서는 한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 체계

를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초등학생들은 감정 이입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인데, 감정 이입 능력은 넓은 범위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단서를 모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증가한다. 이처럼 사회정서역량 발달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정의적 요소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은 역량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량(competency)은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재적인 특성(Boyatzis, 1982)으로 개인의 행동,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망라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무엇을 아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욱 강조하는 개념이다(박민정, 2009). 그동안의 인지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동기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천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실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관찰하고 다듬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이 강조된다. 이럴 때 인간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역량들로 전환된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 8]은 체육 교과 역량에 관한 것이다. 체육과에서는 신체활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 요소를 종합적으로 체험하여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즉, 다양한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체육과 역량인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길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신체 문화 활동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공헌하는 교과이다. 체육 교과 역량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일반 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다(교육부, 2015).



[그림 8] 체육 교과 역량 설정 근거(교육부, 2015)

사회정서학습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 하위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교육이 학문 분과적인 교과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삶에 적합한 내용을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능력, 사고능력, 독창력을 추월하고 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인간성’과 ‘도덕성’이 외면 받아서는 안 된다(이도흠, 2020). 사회정서학습에서는 이전의 인성교육처럼 훈육하기, 감동 감화하기, 덕목 익히기 차원을 넘어 특정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 높이기를 분명한 목표로, 프로그램 개발, 역량 측정 도구 개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학생들의 역량 변화, 그리고 이 변화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김동일 외, 2016).

2) 내용적 유사성

초등 체육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의 목표, 교육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둘 사이에 교육 내용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 중심의 교육, 전인 교

육의 목표 달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먼저 수행 중심의 교육은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 모두 실천적 차원에 초점 맞춘다는 것이다. McIntyre(1984)는 실천(a practice)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스포츠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하면서 스포츠를 기술적 차원과 가치적 차원으로 구성된 다양한 요소로 보았다. 말하자면 스포츠를 학습함으로써 그 안에 담겨있는 이상과 전통을 내면화시키고 학습자와 이들이 속한 사회가 바르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활동은 스포츠, 운동, 게임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걷기, 달리기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용어(최선희 외, 2007)로서 체육과는 체육을 타 교과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나 도구인 '신체활동'을 강조한다. 초등 체육교육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행' 즉, '경험'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사회정서학습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행을 중시한다. 학생이 맞닥뜨리는 여러 경험으로부터 감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잘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강조한다. 체육도, 사회정서학습도 결국에 수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학생들은 실제 생활에서 신체활동과 올바른 사회·정서적 행위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의 목표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물론 어떤 학자는 전인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너무도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 우리 주변에는 전인의 개념들이 넘쳐난다고 주장한다(김성곤, 2017). 전인 교육은 전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어느 것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조화롭게 발달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교육이다(홍은숙, 1999). 전인 교육이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한다고 볼 때, 이러한 전인 교육은 인성(인격)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김정환, 1982; 최의창, 2006). 왜냐하면, 전인 교육의 태동은 원래 인성 교육의 강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의 접점이 바로 인성 교육을 지향하는 데 있다.

다. 초등 체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의 강점

사회정서학습은 기존 인성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정서학습이 등장하기 전, 학생의 인성 발달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은 Character Education(인격교육)이었다. Ryan & Lickona(1992)는 인격교육의 대표 학자로, 가정 해체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대중매체, 탐욕과 물질주의 등을 학생들의 도덕적 일탈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대신 학교 공동체 전체가 덕을 계발하기 위해 인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윤리적 문맹(ethical illiteracy)을 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격교육이 받았던 가장 큰 비판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위해 기존에 있던 모든 설명과 방법을 포괄하려는 우산 개념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회정서학습 연구자들은 옳은 행동을 하고 싶은 것과 그것을 실제 성공해낼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책임은 시간과 과제 관리 기술을, 존중은 공감 기술을, 정직은 자기 인식 기술을, 훌륭한 시민은 문제 해결 능력 및 의사 결정과 소통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정서학습은 도덕적인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기존 인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는 바람직한 덕목과 인격을 구호처럼 외치거나 감동적인 감화로 가르치고 아는 것을 토대로 막연히 실천을 기대하는 데 치중했던 우리나라 인성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윤경, 2020).

이는 사회정서학습이 초등 체육에 적용될 때의 장점으로도 이어진다. 체육은 타 교과에 비해 그룹 활동이 많고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요 연습과 실천의 장이 된다. 물론 타 교과 학습과 생활 지도, 가정과의 연계로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학교 교육에서 사회정서학습을 다룬다. 인성 개념의 확장인 사회정서역량을 통하여 학생들의 행위를 구체화할

수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상황에 맞는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취하고 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이때,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이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도 배움이 일어날 수 있게끔 지지하고 격려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맥락에 적합한 초등 체육에서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실천과정에서 교사의 인식 변화와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접근법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 체육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었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의미에 주목하는 해석적 틀에 해당한다(Creswell & Poth, 2017). 본 연구는 연구자인 교사가 체육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동학년 교사들에게 충분히 트레이닝 시킨 후 학교 현장에서 해당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시각을 최대한 신뢰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에 따라 연구 대상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의미를 분석 및 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식을 따른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연 상황에 있는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다(Denzin & Lincoln, 2011). 그리고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이 현상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미와 관점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곽영순, 2009). 그러므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3학년 체육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들이 활동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연구자가 학교라는 맥락 안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동학년 다른 학급의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특징은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로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하며 면대면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3학년 3개 학급 최대 2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해석적이며 수치화 되지 않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으며(Lazaraton, 2003), 관찰, 면접, 문서 등을 활용하여 문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본질적이며 다각적인 연구방식이다(Denzin & Lincoln, 2008).

셋째, 본 연구는 교사 연구자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적 연구를 통해 현장교육을 개선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성격을 갖는다(Stringer, 2004). 실행연구는 이론보다는 실천을 통한 현장 개선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김영천, 2013)로 연구자는 초등체육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교육적 효과 특히, 사회정서역량 함양 과정을 탐색하였다.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후 정식으로 체육 교과를 배우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실천과정을 통해 전인교육의 실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연구의 틀을 구상한 2022년 1월부터 연구 집필을 마치는 2023년 2월까지 총 14개월간 이론적 탐구, 연구 설계, 연구 진행, 결과 정리의 4단계를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수행의 절차와 단계는 [표 9]와 같다.

[표 9] 연구 수행의 절차와 단계

연구단계		연구일정		2022												20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이론적 탐구	문헌의 이론적 고찰																				
	연구 주제 선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설계	목적과 문제 구체화																				
	연구 참여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진행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결과 정리	심층적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제언 작성																				

첫째, 계획 수립 단계(2022년 1월 ~ 2022년 5월)이다. 본 연구자는 2022년 1월에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갈등 문제와 이를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수업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 주제는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체육과 사회정서학습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연구 문제를 구체화 시켰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사회정서역량에 해당하는 개념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반 교육학과 도덕과에서 관심이 뜨거운 사회정서학습을 국내의 체육교육 맥락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행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정서학습을 기존의 인성교육과 비교·분석하여 특징을 정리하였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때,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 현장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교사, 스포츠 교육학 연구실의 교수 및 석·박사 실원들의 조언을 받아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가 될 학생들을

만나 개인적인 특징 및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 실행에 참고할 만한 요소로 정리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IRB 승인일 ~ 2022년 12월)이다. 2022년 IRB 승인 이후부터 프로그램을 수정 및 구성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함과 동시에 심층 면담, 참여 관찰, 현지 문서(학생 마음기록장, 교사 성찰일지, 교수·학습 과정안 등)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은 초 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 학생의 마음기록장과 교사의 현장노트는 프로그램의 실행기간 동안 꾸준히 작성할 것이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과제들을 수집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2학년도 학사 일정 중 겨울방학 전인 2022년 12월까지 실행될 것이며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2022년 7월에 1회, 2022년 12월에 사후 설문조사와 1회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수집과 동시에 Creswell & Poth(2017)가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자의 확대 해석이나 오해석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 그리고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실행 단계에서는 Kemmis & McTaggart(1988)가 제시한 ‘계획-실행-관찰-반성’의 단계를 반복하는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을 따랐다.

셋째, 결과 정리 단계(2022년 9월 ~ 2023년 6월)이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체계화하고,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때, 현장과 가까이에 있어 놓쳤을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고 해석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비판적인 동료의 조언을 구하고 관련 문헌 속에서 연구결과를 맥락화 하였다(Mills, 2011).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실천과정과 효과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고, 제언을 작성하였다.

2. 연구 환경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이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학교는 전교생 1020명에 총 46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대 학교(전교생 1000명 이상인 학교)이다. 특히 2022학년도 3학년의 경우 학생 정원이 총 204명, 8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급당 25-26명의 학생이 배정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3학년 최소 3개 학급의 학생들 최대 24명(각 학급당 8명)이다. 학생들의 성비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4명 더 많다.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는 2005년에 개교하였고, 개교 당시 4층이었으나 학교 주변 거주시설 증가로 학생 수가 급증하며 2016년 5층을 증축하였다.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 보통 모래가 깔린 운동장과 4층의 체육관, 교실을 사용한다. 실외 운동장은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고, 지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운동장에 5-10대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잦다. 체육활동에 필요한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개 학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다만 우천, 미세먼지 등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실내 체육관의 경우 전교 46개의 학급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짝수 달, 홀수 달로 나누어 3개 학년씩 주 1회 사용할 수 있다. 홀수 달에는 2, 4, 6학년이 체육관 사용 시간을 배정받고, 짝수 달에는 1, 3, 5학년이 체육관 사용 시간을 배정받는다. 1년 동안 총 16회 사용 가능하므로 3학년은 체육수업 중 대부분은 운동장,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실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본교의 체육 관련 용·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 편이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 실제로 체육 수업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학년 학생들의 체육 수업은 담임교사가 담당하며, 2학기에는 학교 운동부인 육상부의 학생선수 모집 및 선발을 위해 육상부 전담 코치와의 협력 수업이 8회 이루어졌다.



[그림 9-1] 연구배경 학교 운동장



[그림 9-2] 연구배경 학교 체육관

해당 학교는 아파트가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수준이 비슷한 가정들로 학군이 이루어져 있다. 학부모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남부 교육지원청(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학구열 또한 높아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 주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 학교 주변에는 태권도장, 복싱장, 유소년 축구단, 줄넘기 스마트 점프, VR 활용 스포츠 수업, 안양천 자전거길 등이 있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접하기 쉬운 환경이다.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에서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는 연구의 전체 과정에 참여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연구자가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역시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다(김영천, 2016). 연구자의 성장 과정, 직업 경험, 문화 체험, 가치관 등의 배경은 연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고, 자연스럽게 연구에 연구자의 배경이 반영되게 만든다(Marshall & Rossman, 2010). Wolcott(2010)는 독자들이 연구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주제를 탐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연구자의 배경을 밝힘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밝히고 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인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신체활동을 즐겨 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수영을 배우고 여가 시간마다 가족들과 축구, 배드민턴 등을 하였고 초등학교 5-6학년 때는 줄넘기부에 소속되어 대회를 나가기도 하였다. 부산 사직야구장(종합운동장), 아시아드주경기장 가까이에 살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람을 다니며 야구와 농구, 축구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축구부 동아리 소속으로 운동장을 뛰어다녔으며, 고등학교 때는 제주도로 이사 가며 TV 중계로 보는 배구 경기에 푹 빠졌었다. 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여 뉴스포츠, 육상부, 여자축구부 등 운동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서울시 육상대회 일반대학부, 교대배 육상대회에서 멀리뛰기, 투포환에서 메달을 획득하였다.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필라테스, 테니스, 수영을 평생스포츠로 삼고 등산, 러닝 등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자는 타고난 신체 기능과 운동친화적인 환경으로 스포츠를 향유하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인내와 자신감을 길러주며 타인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런 성장배경은 신체활동이 동반하는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대한 교육적 관심의 배경이 되었다. 연구자가 느낀 신체활동의 즐거움과 타인과의 교류에서 오는 가치들은 소수 사람들만 아는 것이 되기에는 아쉬웠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활동이 배제될 수 없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즐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체육수업시간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연습과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자인 ‘나’는 2022학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5년차 교사이다. 교육대학교 재학과 임용고시 준비를 하며 다양한 교육 패러다임과 교수법, 수업모형 등을 접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겪으며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정립해 나가는 중이고, 학생들과

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성찰한다. 매해 만나는 아이들마다 개성이 제각기 달랐고 함께 지내는 학교생활이 뿌듯할 때도, 실망할 때도, 화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배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여야 했다. 그리하여 초등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를 교실 앞 게시판에 [그림 10]과 같이 게시하였다. ① 감정 조절과 사회적 기술로 마음을 가꾸는 나, ② 교실 속 책임기로 생각을 키우는 나, ③ 협동, 창의 놀이로 하나 되는 우리, ④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멋진 어린이다. 이 4가지를 위한 1년 학급살이를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림 10] 교실 앞 게시판 (연구자 촬영)

셋째, 연구자인 ‘나’는 현재 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체육 교과를 통한 전인교육 특히,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직 3년차부터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후 도덕과 수업을 통해 사회정서학습(SEL)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 체육수업과의 연결고

리를 고민하였다. 그 과정에서 초등체육의 낭만체육으로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교육 현장에서 직면하는 갈등 상황으로부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초등체육의 실천가이자 동시에 연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초등체육을 통해 초등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실천적 렌즈와 학문적 렌즈를 고루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나. 연구 참여 교사와 학생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이들의 내부자적 시각 및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연구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천, 2016; Creswell, 2015).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폭 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접근, 관계 형성, 그리고 ‘내부자’ 관점을 얻기 위해 현장 이슈에 몰두해야 한다(Creswell & Poth,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밀착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배경 학교 기관장(교장)의 허락 하에 3학년 전체 학급에 체육과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그램을 일상적 교육활동으로써 운영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stic sampling)’의 방법으로 유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 학생을 선정하였다. 먼저 3학년 전체 8개 학급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최소 3개 학급의 담임교사를 모집하였다.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연구 주제와 목적에 대해 안내하고 ‘초등 체육수업,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관심 있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나 학교장의 강요는 없다. 그리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담임교사 입장 하에 접근하

여 연구 주제와 목적, 수행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실에 모집 문건을 게시하여 3개 학급의 학생 중 최대 24명(학급당 8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성별과 체육교과 선호도에 따라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24명으로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 및 관찰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밝힌 학생 중 사전 설문을 활용하여 체육교과 선호도와 사회정서역량 정도를 진단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범주의 학생들로 참여자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 참여자(위: 교사, 아래: 학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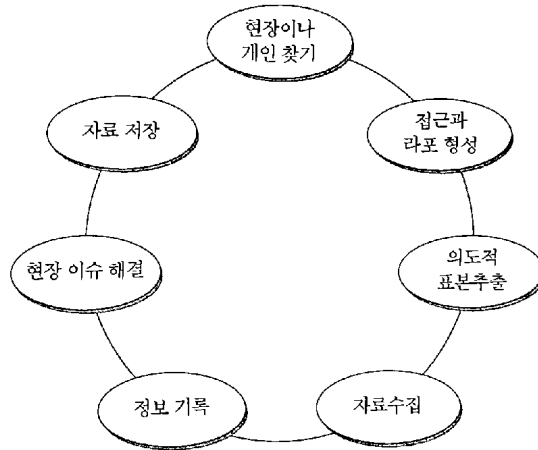
순	가명	학년반	성별	교직 경력	학력
1	최진심	3-a	여	29년	대학교 졸업(국어교육과 전공)
2	장초심	3-b	여	1년	대학교 졸업(음악교육과 전공)
3	오열심	3-c	여	12년	대학원 졸업(과학교육과 전공)
순	가명	학년반	성별	체육교과 선호도	특징
1	송흥미	3-a	남	중	실행 전부터 지레 걱정을 하며 도전하지 않으려 함
2	이사랑		남	상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제공함
3	장만죽		여	상	자신의 할 일을 시간 내에 성실하게 함
4	조통쾌		여	상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즉각 해야 함
5	황궁금		남	중	호기심이 많음, 불필요한 말이 잦은 편임
6	백기쁨		여	상	체력수준 및 운동기능이 뛰어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함
7	김시원		여	중	운동기능은 보통이나 리더십이 있음
8	문자랑		남	상	승부욕이 강해 남을 깎아 내릴 때가 있어 교우관계가 좋지 않음
9	양다행	3-b	여	중	좋아하는 활동은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그 외에는 낮은 관심을 보임

순	가명	학년반	성별	체육교과 선호도	특징
10	강기대		남	상	체육수업을 매우 좋아하지만 다소 언행이 거칠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11	정아름		여	상	성격이 활달하며 평소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함
12	배두근		남	중	체육을 잘하고 싶어 하나 운동기능이 낮음
13	윤개운		남	상	조용한 성격이며 평소 운동보다 독서를 즐겨함
14	이뿌듯		남	중	스스로 운동기능이 낮다고 생각하여 조그만 성취에도 기뻐하며 꾸준히 연습함
15	김따뜻		여	하	또래에 비해 성숙한 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함
16	김호감		여	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끈기가 있음
17	이설렘	3-c	여	중	운동기능과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부족함
18	민꾸준		남	상	학교생활이 바르고 교과 공부도 매우 열심히 참여함
19	한의욕		남	상	적극적이나 혼자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욕심이 있음
20	신든든		남	상	평소 여러 운동을 즐기며 성격이 유순함
21	김민음		여	상	모든 친구들과 두루 잘 지내고 명랑 쾌활하며 학습태도가 훌륭함
22	박편안		남	중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으며 독서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음
23	이산뜻		여	상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편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음, 감정기복이 심함
24	전행복		여	하	운동하기를 싫어하며 주목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함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이란 드러나는 연구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좋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상호 관련된 활동들이며, 이때 연구자는 복합적인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형태로 요약해야 한다 (Creswell & Poth, 2017). 또한 [그림 11]의 자료수집 활동의 주기에 따

라 순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심층면담, 학생 마음기록장, 교사 성찰일지, 참여관찰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 효과 탐색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11] 자료수집 활동의 주기(Creswell, 2015)

가.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 총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프로그램 사전 설문조사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사회정서역량 수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및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프로그램 사전 설문지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체육’과 관련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

	<p>해도 좋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나요? ▪ 체육수업을 1~2학년 때의 신체 놀이, 신체 표현하기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신체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수업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p>사회정서역량 수준 진단</p>	<p>내용을 읽고, 1~5점 중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에 ○표 해주세요.</p> <table border="1" data-bbox="478 627 1324 1691"> <thead> <tr> <th data-bbox="478 627 550 694">하위 범주</th> <th data-bbox="550 627 1324 694">설문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8 694 550 884" rowspan="5">자기 인식</td> <td data-bbox="550 694 1324 728">나는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td> </tr> <tr> <td data-bbox="550 728 1324 761">나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쉽다.</td> </tr> <tr> <td data-bbox="550 761 1324 795">나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td> </tr> <tr> <td data-bbox="550 795 1324 828">친구들은 나를 존중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828 1324 884">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td> </tr> <tr> <td data-bbox="478 884 550 1097" rowspan="5">자기 관리</td> <td data-bbox="550 884 1324 918">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td> </tr> <tr> <td data-bbox="550 918 1324 952">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td> </tr> <tr> <td data-bbox="550 952 1324 985">나는 화가 났을 때 조절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550 985 1324 1019">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019 1324 1097">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편이다.</td> </tr> <tr> <td data-bbox="478 1097 550 1321" rowspan="5">사회적 인식</td> <td data-bbox="550 1097 1324 1131">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131 1324 1164">친구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164 1324 1243">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243 1324 1276">나는 선생님이 화났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안다.</td> </tr> <tr> <td data-bbox="550 1276 1324 1321">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픈 마음이 든다.</td> </tr> <tr> <td data-bbox="478 1321 550 1512" rowspan="5">대인 관계 기술</td> <td data-bbox="550 1321 1324 1355">나는 친구를 잘 사귀다.</td> </tr> <tr> <td data-bbox="550 1355 1324 1388">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다.</td> </tr> <tr> <td data-bbox="550 1388 1324 1422">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좋아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422 1324 1456">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도 편안하다.</td> </tr> <tr> <td data-bbox="550 1456 1324 1512">친구들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td> </tr> <tr> <td data-bbox="478 1512 550 1704" rowspan="5">책임 있는 의사 결정</td> <td data-bbox="550 1512 1324 1545">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545 1324 1579">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여 결정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579 1324 1612">혼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612 1324 1646">나는 내 말과 행동,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td> </tr> <tr> <td data-bbox="550 1646 1324 1704">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바람직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td> </tr> </tbody> </table>	하위 범주	설문내용	자기 인식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나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쉽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은 나를 존중한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관리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편이다.	사회적 인식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친구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나는 선생님이 화났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픈 마음이 든다.	대인 관계 기술	나는 친구를 잘 사귀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도 편안하다.	친구들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책임 있는 의사 결정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여 결정한다.	혼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는 내 말과 행동,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바람직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위 범주	설문내용																															
자기 인식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나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쉽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은 나를 존중한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관리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편이다.																																
사회적 인식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친구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나는 선생님이 화났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픈 마음이 든다.																																
대인 관계 기술	나는 친구를 잘 사귀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도 편안하다.																																
	친구들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책임 있는 의사 결정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여 결정한다.																																
	혼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나는 내 말과 행동,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바람직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p>프로그램에 대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수업 중 어떤 활동을 제일 하고 싶은가요? 왜 그런가요? ▪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해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체육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요? 																																

프로그램 사후 설문조사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사회정서역량 관련 실천도 변화, 사회정서역량 수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개방형 및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사후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프로그램 사후 설문지의 주요 내용

범주	내 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서 했던 체육수업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 프로그램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도 좋습니다. ▪ 그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나요? ▪ 그 활동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정서역량 관련 실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사회정서역량이 성장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나요? ▪ 프로그램 이후 여러분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 프로그램 이후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 중 평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사회정서역량 수준 진단	내용을 읽고, 1~5점 중 자신이 해당하는 점수에 ○표 해주세요. (사전 설문지와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그램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나. 심층 면담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연구 참여 학생과 1:1로 진행된다. 연구 주제에 적절한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개방형 질문들이 적힌 면담 지침서 또는 면담 안내서(Kvale & Brinkmann, 2009)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와 정서 표현,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인식,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서역량의 함양 정도,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생 3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담 지침서 또는 면담 안내서를 참고하되 피면담자의 답변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허용하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Patton, 2002)을 활용하여 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을 연구 과정에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면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하기 위해(Creswell, 2015)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 내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은 40-50분씩 사전, 중도, 사후 면담으로 총 3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심층면담 진행 시에는 녹음을 하고, 이는 연구 참여자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설명서를 통해 안내하였다.

심층면담을 수행할 때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면담자와 피면담자 모두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도록 두 개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실시하고, 녹음이 되지 않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면담 중에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단어 위주로 면담 지침서에 기록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가능한 보다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면담 종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다.

사전 면담의 경우 체육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사회정서역량 파악 질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로 세부 영역이 나뉘어 질문이 구성되었다. 특히 사회정서역량 파악 질문은 정량적 측정도구로 포착되기 어려운 사회정서역량을 구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학생의 말과 행동, 사고 과정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프로그램 사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 용
<p>체육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했던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 그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나요? ▪ 작년까지 했던 체육수업(신체 놀이, 신체 표현하기 등)에서 주로 많이 했던 활동들을 설명해 보세요. ▪ 그 중 좋아하지 않았던 활동이 있었나요? 무엇인가요? ▪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수업에서 내가 자신 있는 것과 자신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체육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p>사회정서역량 파악 질문</p>	<p>[사회정서역량 중 자기 인식·자기 관리와 관련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0~10점으로 표현해보세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와 잘 맞는 사람의 특징, 나의 장단점 등)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나요? 0~10점으로 표현해보세요. ▪ 여러분은 감정 언어를 몇 가지 알고 있나요? ▪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 그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 만약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p>[사회정서역량 중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학교생활, 또래 관계, 가정에서의 자신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나요? ▪ 여러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 선택에 책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범주	내 용
	<p>[사회정서역량 중 대인 관계·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과제를 함께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 대화나 과제가 잘 되었다면 잘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주세요. ▪ 대화나 과제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어려웠는지 알려주세요. ▪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모둠 활동을 할 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하나요? 어떻게 파악하나요? ▪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교과서 속 그림 삽화를 보고 체육수업 중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골라보세요. 왜 그런가요? ▪ 사회정서역량을 길러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프로그램 중도 면담의 경우, 프로그램 실행이 절반 정도 달성된 7월 말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사항을 2학기 체육수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이 구성되었다. 중도 면담의 경우는 학생들의 답변의 양과 질을 위해 프로그램 중 찍은 사진과 이미지 프리즘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면담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중도 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프로그램 중도 면담의 주요 내용

범주	내 용
<p>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 및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참여했던 체육 수업과 비교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 여러분이 이해한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체육수업 활동 사진 중에 골라 보세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이 프로그램은 □이다.’라는 문장은 완성하는 데 어울리는 이미지를 골라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p>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솔직하게 어떻다고 이야기하나요? ▪ 2학기에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에서 다시 경험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새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 프로그램에서 잘된 점과 고쳐야할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사후 심층면담은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이 끝이 나는 12월경에 실시하였다. 사후 면담의 경우, 프로그램 실행 후에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 효과와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사회정서역량의 변화 정도, 영향 요인, 프로그램의 방향성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이 구성되었다. 사후 심층면담은 사전 심층면담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중도 면담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답변의 양과 질을 위해 프로그램 중 찍은 사진과 이미지 프리즘을 활용하여 깊이 있는 면담을 이끌어 내었다. 프로그램 사후 면담의 주요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프로그램 사후 면담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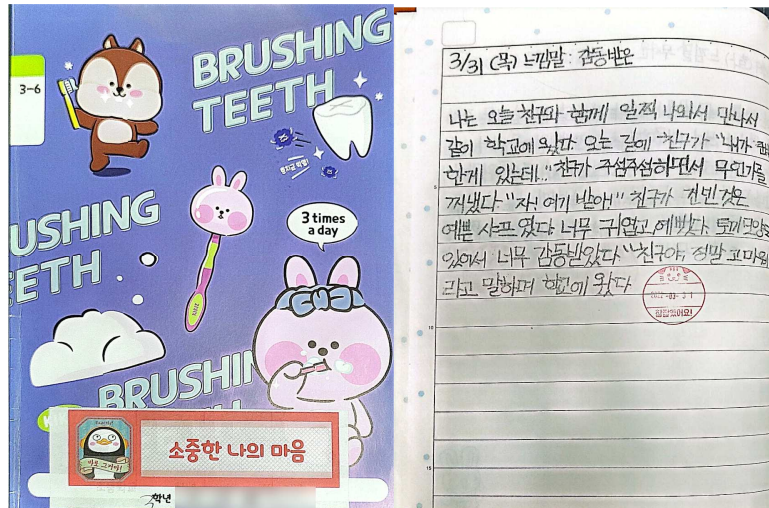
범주	내 용
<p>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경험 및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어를 떠오르는 대로 5가지 말해보세요. ▪ 여러분이 이해한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체육수업 활동 사진 중에 골라 보세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활동 중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이 프로그램은 □이다.’라는 문장은 완성하는 데 어울리는 이미지를 골라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p>사회정서역량 변화 파악 질문</p>	<p>[사회정서역량 중 자기 인식·자기 관리와 관련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0~10점으로 표현해보세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와 잘 맞는 사람의 특징, 나의 장단점 등)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고 생각하나요? 0~10점으로 표현해보세요. ▪ 여러분은 감정 언어를 몇 가지 알고 있나요? ▪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화를 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 그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 만약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p>[사회정서역량 중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학교생활, 또래 관계, 가정에서의 자신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에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나요? ▪ 여러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 선택에 책임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범주	내 용
	<p>[사회정서역량 중 대인 관계·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과제를 함께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 대화나 과제가 잘 되었다면 잘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주세요. ▪ 대화나 과제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어려웠는지 알려주세요. ▪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모둠 활동을 할 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파악하나요? 어떻게 파악하나요? ▪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p>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영향을 준, 또 다른 것들이 있었나요? 무엇인가요?
<p>프로그램의 방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그램에서 잘된 점과 고쳐야할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 부모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 만약 다른 학교 친구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준다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나요?

다. 학생 마음기록장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감정 언어(느낌말)를 배우고 아침활동으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는 활동을 [그림 12]와 같이 주 2회 실시한다. 그리고 체육수업을 통한 신체활동 경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 다른 친구와의 관계나 의사소통 기술 등을 되돌아보고 이를 그림일기의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주의집중이 짧고 금방 다른 것에 몰두하는 3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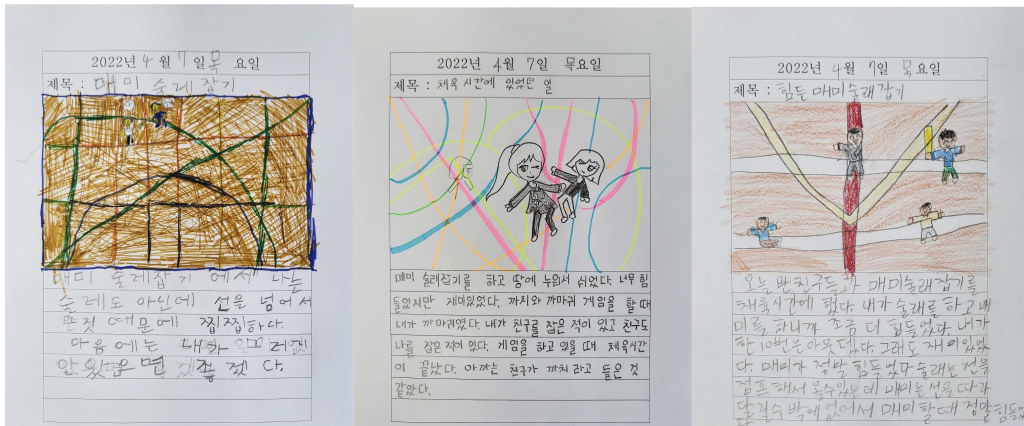
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수업을 마치고 바로 마음기록장을 작성하고자 한다. 학생 마음기록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학생 마음기록장(표지와 내용 일부)

첫째,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월별로 느낌말이나 체육수업 후 마음기록의 기본적인 형식은 제공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최대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줄글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시와 같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자는 주 2회 학생들의 마음기록장을 확인하지만 연구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감정 알아차리기, 올바르게 표현하기, 다른 친구의 마음 생각해보기 등의 사회정서적 기술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학생들에게 마음기록장을 쓰는 행위 자체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주도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이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며, 연구를 위한 ‘좋은 변화’를 가장하지 않고 진솔하게 쓸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림 13] 체육수업 후 학생 마음기록장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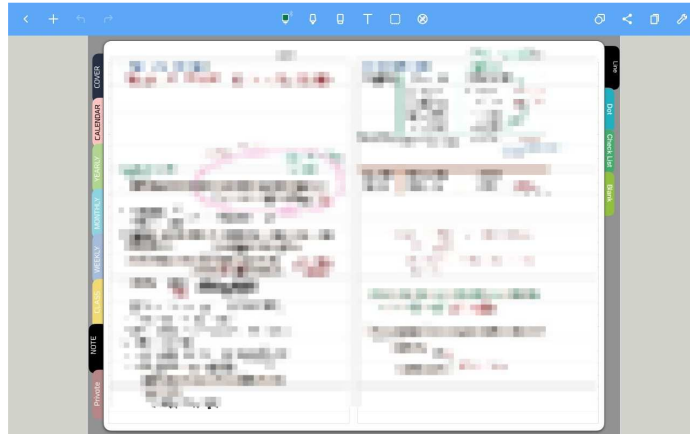
또한 [그림 13]과 같이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마치고 활동 과정에서의 나의 말과 행동, 감정 혹은 활동 규칙, 교사의 강조점 등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그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인지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때 멋진 그림, 맞춤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 중점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하였다.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참여하면서 생산해내는 기록물들은 그 자체로 연구결과에 의미를 주기도 하며, 심층 면담 등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에서 의미 있는 점을 찾아내는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라. 교사 성찰일지

성찰일지는 교사인 연구자가 교육현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일지를 뜻한다. 이러한 일지에는 그날의 생각, 느낌, 사실, 메모, 대화내용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에서의 상호작용과 경험이 기록된다. 교육 현장을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구성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연구자가 가진 학술적, 개인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찰 일지를 작성하게 된다(Atkinson, 1992). 이런 점에서 볼 때, 성찰일지는 단순한 현장의 기술, 혹은 모사라는 측면을 넘어 연구자의 세계관이 반영

된 현장에 대한 반성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인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나가며 새롭게 알게 된 것, 지난 활동에 대한 반성 및 앞으로의 수정 사항, 동료 교사들의 체육수업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고민 등을 교사 반성일지를 통해 꾸준히 기록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아울러 실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나 생각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교사 성찰일지에 그것을 지문 잠금이 설정된 개인 태블릿 PC에 기록하여 저장하였다([그림 14] 참고).



[그림 14] 연구자의 성찰일지 (태블릿PC로 작성)

마. 참여 관찰

일화적 관찰(anecdote observation)은 관찰자가 현장에 들어가 모든 것을 관찰하지 않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주제만을 선별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화’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 관찰 방법은 관찰자가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들(특정한 이야기, 사건, 감정 표현 등)을 미리 결정한 다음에 관찰 과정에서 그러한 대상만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3학년 담임교사로, 학생들의 체육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를 모두 맡고 있다. 연구 참여 학생인 다른 학

급의 학생들이 체육수업 또는 학교생활 모습을 ‘관찰참여자’의 역할에서 수행하였다. 관찰은 연구자의 학급이 교과 전담 시간일 때 다른 학급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고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체육수업 및 학교생활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되, 관찰 중 의미 있는 현상이 포착될 경우 그것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간헐적이고 짧은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현장에서 관찰을 할 때 항상 현장노트 ([그림 15] 참고)를 작성하며 프로그램 중 보이는 연구 참여자의 말과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때로는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연구자는 살아있는 현장 자료이자 현장노트를 활용한 관찰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현장노트 기록 양식

2022년 <u> </u> 월 <u> </u> 일 <u> </u> 요일		
관찰 현장 : <u>사회정서역량 함양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u> / 기타()		
<현장노트> 보통 전담하기, 자기 관리 역량 *		
시간	관찰 내용	관찰 분석
1'	미리 교실에서 학습 목표, 활동 방법, 중점 사회중심역량 설명 완. → 학생들끼리 준비운동 시작	학생들이 수업의 중점을 잘 파악.
4'	교사 : 다시 활동 시 유의할 부분 설명. 학생 1명이 교사 설명 중 앞으로 나옴. 교사는 설명 이어가며 멈추라는 제스처 (손)	학생 1명 : 편상시 갈음은 남학생, 설명에 대한 질문 있어 나옴. 교사의 제스처 이해 → 기다림.
7' ~ 20'	활동 시작. 6오동 모두 워드 공전달, 아래. 좌우까지.	형량 0
20'~26'	스론 ~ 스 반환점 까지 갔다가 돌아와 오동할 정점으로 게임 변명. 모든 권락 회의 시간 - 동그라미 모여 회의 중 ① 오동할 ② 순서 다시 강해기 + 오동 구로 위아래 반복까지.	다양한 권락을 지는 과정 에서 오동할과 오사오동. 의류이 낮은 학생도 잘 참여하도록 격려.
26'~35'	서로 "의뢰!" 오동할을 써가며 형량 ↑	수업 구원에 대해 익숙함.
35'~	등걸게 모여서 스트레칭 후 소강 내쉬기 (받이 좋게 보통 찬열한 사람, 격려 응원해주는 사람, 귀찮아할 자전 사람 칭찬)	
<기타사항>		
* A 학생이 활동 시 재빠르게 뒤로 이어가서 보물(금)을 받아주지 않고 거만히 서 있거나 모래 장난을 하는 모습 → B학생이 어깨 돌무 하여 오동으로 데리고 오고, 다음 활동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적으로 설명해 줌. 실천 우수.		
* 마음기록장 작성은 생략.		

[그림 15] 현장노트 기록

5.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Wolcott(1994)이 제안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단계를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술, 분석, 해석의 3단계는 순환적인 과정이다.

연구 자료의 기술 과정에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전사(transcribe)하여 기술한다. 전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여 함께 정리하였다. 전사가 완료된 자료는 개방형 설문지의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자에게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표시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trauss(1987)가 고안한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3가지 코딩 방식을 사용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개방적 코딩은 초기 분석 단계로 제한 없이 연구자가 다양한 범주를 설정하고 검토해보는 과정이다. 축 코딩은 중심축을 이루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수집 자료들과 다른 범주들을 수렴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코딩이란 검토된 모든 카테고리를 단일 체계로 정리하여 그 체계 안에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조용환, 2012).

자료의 해석은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를 초월하여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통찰하는 작업이다(조용환, 2012). 연구자는 분석 단계에서 코딩된 자료를 연구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구조화하며, 구조화된 자료를 다시 조직화하여 글로 작성되었을 때 의미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통하여 결과의 내용이 선행연구들에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가 일부 병행되었다.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5점 척도 설문조사가 사전과 사후에 실시된다. Payton의 연구를 바탕으로 Merrell et al.,(2007)이 개발한 사회정서역량

척도를 수정·보완하였다.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개념 요인인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책임 있는 의사결정’ 5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 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되었다.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자료를 수집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로서 활용되기는 어려우나 이 또한 자기 인식에 대한 척도로서 일부 연구에 반영되었다.

6.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가.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구성, 분석,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의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member check)는 연구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임의적 분석과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 그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재평가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영천, 2006). 본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은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되돌아가 자료를 구하고, 분석하며, 해석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들이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확보하였다.

둘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는 연구자의 연구 과정에 대한 외부의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Merriam, 1988). Lincoln과 Guba(1985)는

동료 보고자의 역할을 연구자가 정직하기를 요구하는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정의했다. 연구자의 연구에 관여하지 않으나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같은 연구 동료를 선정하여 자신의 질적 분석과 해석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조언, 평가를 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용숙, 김영천, 1998).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스포츠 교육학 전공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에 대한 조언을 받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방법적 오류와 해석적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은 ‘다각적 분석’으로 불리기도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원천에서 나온 자료들을 확증하고 다원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Creswell & Poth, 2017). 본 연구자는 설문지와 심층 면담을 통한 학생 의견, 교사와 학생의 일지, 수업 관찰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해석적 오류를 막고자 노력하였다.

나. 연구의 윤리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해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인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교육을 2020년 5월 18일에 이수하였다. 또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 계획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2년 3월 10일에 승인(No. 2203/001-009)받았다. 이후 승인 문서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중 실행하는 연구로서 보다 높은 연구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아동의 자발적 동의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 중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원리,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변화를 학생 입장과 교사 입장에서 탐색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영향을 준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1.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천

본 연구자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갈등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를 관찰하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며 사회정서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하여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 과정을 면밀히 탐색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 내용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구성 준비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구성을 준비하면서 동학년 교사들과의 교육과정 분석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사전 설문,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습과 생활 측면에서 학생들의 말과 행동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사회정서역량과 3학년에서 처음 정규 교과로써 배우게 될 체육수업에 대한 인

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동학년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1)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며 학교생활의 큰 변화를 마주하였다. 1~2학년에 비하여 증가한 주당 수업시수(26시간), 교과 분과로 증가한 교과목 수와 비례하는 교과서 수,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서 급식 배식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체육 첫 시간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설문에서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서술형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이 떠올린 단어는 [표 16]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장 많은 학생이 떠올린 단어는 ‘운동’이었다. 그 이유는 ‘체육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배우기 때문에’였다. 그 뒤를 이어 체육시간에 자신이 참여했던 신체 활동에 포함되는 ‘달리기’, ‘피구’, ‘축구’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또 본교의 체육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장, 금강관’이 2명, ‘신나는 마음’이라는 감정을 연상한 학생이 2명 있었다. 마지막으로 ‘줄넘기’, ‘공’, ‘게임’이라고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1~2학년 통합 교과 중 ‘즐거운 생활’에서 학습하였던 경험과 일상생활(가정, 사설 기관 등)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체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연상하였다. 학생들은 체육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신체활동과 관련된 단어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표 16] ‘체육’ 하면 연상되는 단어 설문 결과

응답 내용	운동	달리기	피구	축구	운동장, 금강관	신나는 마음	줄넘기	공	게임
응답 수(명)	7	4	4	2	2	2	1	1	1
비율(%)	29.1	16.6	16.6	8.3	8.3	8.3	4.2	4.2	4.2

그리고 ‘체육수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서술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생 답변은 건강 증진(31.8%), 재미 요소(31.8%), 운동 능력 향상(13.6%), 체력 향상(13.6%), 신체 발달(4.6%), 협동 요소(4.6%)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고). 이는 체육 교과의 목적과 목표를 상기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였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건강, 재미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표 17] 체육수업이 필요한 이유 설문 결과

응답 내용	응답 수(명)	비율(%)
건강하려고(튼튼하게 지내려고)	7	29.1
몸을 움직여서 풀어주는 활동을 통해 지루함을 줄이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7	29.1
운동을 잘하게 만들려고	3	12.5
체력을 길러주려고	3	12.5
몸을 키우려고	1	4.2
협동을 배우려고	1	4.2
무응답	2	8.3

위의 두 응답을 통해 체육수업 초반에 학생들에게 ‘체육’이라는 교과의 의미, 인지적·심동적·정의적 목표, 다섯 가지 영역 및 꼭 지켜야 할 수업 규칙 등에 대해 **학생 수준에 맞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2) 문제점 인식

학생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체육 경험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 [표 18]과 같이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부정적인 감정을 겪은 학생들이 22명 중 5명 있었다. 그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보면 공이나 도구 등에 맞았던 경험, 패배하였을 때 놀림을 받았던 경험, 자신이 잘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긴장했던 순간 등을 진술하였다.

[표 18] 과거 체육 경험에 대한 감정 설문 결과

응답 내용	(+)				(-)				무응답
	재미, 신남	뿌듯	궁금	신기, 놀람	아픔	화남	긴장	아쉬움	
응답 수명	14	1	1	1	2	1	1	1	2
비율(%)	58.2	4.2	4.2	4.2	8.3	4.2	4.2	4.2	8.3

이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감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정태옥, 2008; 김지수, 이승범, 2014; 고유현, 김영식, 2016; 한남익 등, 2020)과 일맥상통하게 많은 학생들이 체육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을 응답한 학생들의 경험으로부터 이들은 체육 시간에 소외, 혐오, 배제 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회정서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을 뒷받침한다.

3) 구성원의 요구 분석

연구 참여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기존의 체육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 체육이 최고 선호하는 교과목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2~3회 체육수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1시간이라도 운영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의 아쉬움과 불만이 나타났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는 수업 내용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교사로서 체육과 교육과정에 알맞은 수업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수업 운영 방식을 선정하고 있었다.

연구자 : 체육수업은 주로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최진심 : 저는 **학년 체육과 교육과정 계획**에 의해 수업을 운영하는 편입니다. 특히 수업 내용은 체육 교사용 지도서에 안내된 활동 위주로 운영합니다. 지도서에 관련된 여러 활동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최진심 교사, 사전면담 中)

최 교사는 체육과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계획하는 ‘**체육의 정석형**’이었다. 최 교사는 체육수업 내용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지도서와 교과서를 펼쳐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었다. 가끔 학생들이 요구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요구를 거절하였다.

최진심 : 수업 준비하는 데 얼마 안 걸려요. 지도서 펼쳐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고, 날씨나 미세먼지에 따라 조금 바꾸는 정도예요.

연구자 : 그렇군요. 그러면 학생들이 피구나 축구 같은 종목을 하자고 요구할 때도 있지 않나요?

최진심 : 아이들은 그러죠. 그럼 “교과서에 있으면 할게요.”라고 대답하고 넘어가요.

연구자 : 학생들이 교과서 열심히 찾아보겠네요. 그래도 다른 반은 뭐 한다던데 이런 얘기하면요?

최진심 : 그래도 “**선생님은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에 제시된 걸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죠. (웃음)

(최진심 교사, 사전 면담 中)

그와 달리 장 교사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만큼은 많이 움직이고 즐거운 수업이길 바라며 매 시간 흥미 위주의 신체활동을 계획하는 ‘**백화점 쇼핑형**’이었다. 장 교사는 책, 유튜브, 체육 관련 연수 등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 환경을 고려하여 재구성하여 수업을 운영하였다. 수업은 대부분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되고, 한 번 했던 활동은 다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다양한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데 방향성이 있었다.

연구자 : 체육수업은 주로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수업 내용 측면에서는?

장초심 : 네, 일단은 수업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영역을 참고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놀이나 게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교실 놀이 관련된 책이나 유튜브를 많이 참고해서** 종목을 정하는 편입니다.

연구자 :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에도 그 책이나 유튜브에 나온 내용 중 팁을 얻어서 하시는 편인가요?

장초심 : 네. 거기 참고하여 게임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같이 유튜브를 볼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는 제가 따로 PPT에 규칙이나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실에서 설명하고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 그럼 체육수업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장초심 : 그렇죠. 5단원 안전 공부할 때 정도...?

(장초심 교사, 사전 면담 中)

본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교사들의 요구를 타협하여 체육과 교육과정에 적합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수용하는 체육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사전 설문지를 통하여 선호하는 신체활동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이 중 3학년 체육과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학교 환경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설계 시 반영하였다.

[표 19]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체활동 내용 설문 결과

응답 내용	피구	몸으로 말해요	줄넘기	축구	숨바꼭질	공놀이	뉴스 포츠	경찰과 도둑	드론 조종	무응답
응답 수(명)	7	4	3	2	1	1	1	1	1	3
비율(%)	29.1	16.6	12.5	8.3	4.2	4.2	4.2	4.2	4.2	12.5

그리고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역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들은 교사가 대부분 해결해주기를 바랐다. 학생들의 이전 경험으로부터 어른이 개입하여 해결해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 문제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탐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은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있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잘 해결한 경우에는 격려를 통해

강화하도록 하였다.

연구자 : 혹시 갈등이 생긴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꾸준 : 갈등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친구랑 누가 싸우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걸 봐서 선생님한테 일단 말하고 **그냥 선생님이 대부분 상황을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친구들끼리 해결이 될 때도 있나요?

이꾸준 : 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꾸준 학생, 사전면담 中)

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본 프로그램은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목표, 내용, 방법을 적절히 재구성하여 내실 있는 정규 체육수업 시간 내 교육활동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서술하기에 앞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떠한 배경에서 설정되었는지 국가 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의 신체활동 가치와 안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교과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길러야 할 체육과 역량 네 가지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설정하였다. 각 역량에서 사회정서역량과 관련 있는 내용을 [표 20]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0] 체육과 역량의 사회정서역량 관련 내용

체육과 역량	사회정서역량과 관련 있는 부분
건강 관리 능력	·자신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적 삶의 태도와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 ·모두 함께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와

	존중의 공동체 의식과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의식 및 시민 의식
신체 수련 능력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취의 기쁨과 자신감, 도전 정신 등의 자기 계발 역량 ·목표와 자신에 대한 이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과정
경기 수행 능력	·문제 해결력과 상황 판단력, 경기 수행 상황에서 겪게 되는 협동, 책임감, 공정성, 배려 등의 태도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을 고려하는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의 발달과 대인 관계 능력의 함양
신체 표현 능력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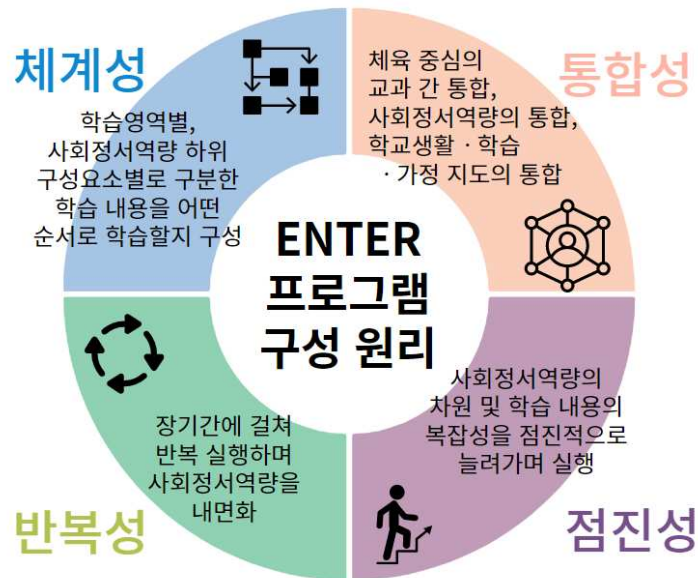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 명칭은 ENTER(Enter↵) 프로그램이다. 각각은 사회정서역량의 주요 하위 요소들의 앞 글자를 따서 명명되었다. EN은 Emotions Notice 감정 알아차리기(자기 인식), T는 Treat 감정 다루기(자기 관리), E는 Empathy 공감하기(사회적 인식과 대인 관계 기술), R은 Reflection 성찰하기(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다. 또한 enter는 영어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다. 의미를 활용하여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속으로 enter(사회), 자기 자신의 정서와 인지 속으로 enter(정서), 수업을 통한 연습에서 삶 속 실천으로 enter(학습)’이라는 통합 개념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각 영역을 반영하여 구성된 본 프로그램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 체육수업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자신의 여러 감정 알기
- ☞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조절하기
- ☞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 다양성 존중하기
- ☞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고 협력하여 문제 해결하기
- ☞ 스스로 체육수업에서의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하기

다.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인식한 체육시간의 갈등 문제를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에 초점 맞추어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먼저 초등 체육교육 정책과 인성교육을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인성교육 효과가 나타났는지, 정규 교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또,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는 [그림 16]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림 16] 프로그램 구성 원리 도식화

1) 교육 내용: 체계성, 통합성

프로그램의 내용을 체계성과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체계적으로 조직된 프로그램의 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체육의 신체활동 가치와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으면서도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단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체육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성취기준,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려하였다. 이를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 중 체계성이라 한다. 3학년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체육 신체활동 가치 영역을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으로 분류하고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여 해당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을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3~4월 주간 세부 수업 계획을 살펴보면 [그림 17]과 같다.

월	주	기간	수업 일수	주간 세부 수업 계획 (1학기)																	
				연간 수업 일수				1차시 - 운동장			2차시 - 운동장			3차시 - 체육관			*우천, 미세먼지 나쁨 시 실내				
				월	화	수	목	금	주제	활동	역량	주제	활동	역량	주제	활동	역량	주제	활동	역량	
3	1	2~4	3			2	3	4								만남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수업목표 안내 체육활동 안내 체육수업 규칙 만들기 	책임 있는 의의결정			
	2	7~11	4	7	8	9	10	11	연간계획안내, 진단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계획/평가 안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기초체력측정(30m 달리기) 	자기 인식	체육대형, 구호, 건강순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구호 약속 준비운동 순서 피자 배달 놀이 	책임 있는 의의결정	모둠 구성, 모둠 결속, 마음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 구성 모둠 결속 활동 마음기록 안내 	대인 관계	건강스트레칭 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별 스트레칭 체조 만들기 	사회적 인식	
	3	14~18	5	14	15	16	17	18	건강민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 멀리뛰기 편이나 검질 게임 	대인 관계	건강심폐 지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 보물 옮기기 가위바위보 팻 줄레잡기 	대인 관계	건강유연성 스트레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기형 스트레칭 체조 대장을 찾아라! 	사회적 인식	표현용직임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비이동 움직임 모양이나 글자 표현하기 	자기 인식	
	4	21~25	5	21	22	23	24	25	건강순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까마귀와 까치 손에손잡고 놀이 	사회적 인식	건강민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꼬리잡기 	자기 관리	건강평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잡기 DMZ 놀이 	자기 관리	표현용직임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비이동 움직임 그림자 놀이 	자기 인식	
	5	28~1	5	28	29	30	31	1	도전이어 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차 이어달리기 	사회적 인식	경쟁태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어떼 놀이 	대인 관계	도전장애물 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장애물을 넘어 탈출하기 	자기 관리	표현용직임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비이동 움직임 어울리는 동작 표현하기 	자기 관리	
4	6	4~8	5	4	5	6	7	8	도전이어 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구무 이어달리기 	사회적 인식	경쟁영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 던지기, 받기 동작 던지고 넣기 게임 	자기 관리	도전요래 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 1 줄레잡기 미니 구단 마라톤 	자기 인식	표현용직임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비이동 움직임 장면 표현하기 	사회적 인식	
	7	11~15	5	11	12	13	14	15	도전단거리 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당풍당 빠르게 달리기 	자기 인식	경쟁영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지 게임 	책임 있는 의의결정	경쟁태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킨볼 태그 게임 	대인 관계	표현용직임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각 움직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장면 표현하기 	사회적 인식	
	8	18~22	5	18	19	20	21	22	도전단거리 달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 동작 하여 달리기 복불복 달리기 게임 	자기 인식	경쟁필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 차기, 받기 동작 차고 달리기 게임 	대인 관계	경쟁태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킨볼 자동문 게임 킨볼 미로 게임 	대인 관계	표현동작 릴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슨 글자일까? (모듬별 무언 동작 릴레이) 	대인 관계	
	9	25~29	5	25	26	27	28	29	경쟁영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잉디스크 잡기, 던지기, 받기 동작 플라잉디스크 얼티미트 	대인 관계	경쟁필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잉디스크 빌아구 	자기 관리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으로 게임 만들기 	대인 관계	표현용야표현 나도 아이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 뮤직비디오 감상 나도 아이돌 - 모듬별 음악에 맞춰 동작 변형 표현하기 	사회적 인식	

[그림 17] 프로그램 3~4월 주간 세부 수업 계획

이는 매달 연구자가 계획하고 동료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되어 공유되었다. 또한 우천이나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수업도 다양하게 준비해 두어 변경되는 일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은 3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 사회정서역량의 통합, 학교(생활·학습)·가정 지도의 통합을 의미한다.

먼저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이 제시한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을 활용하였다.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내용을 배치하여 재구성하였다. 체육과를 중심으로 도덕과, 국어과, 음악과, 미술과를 융합하는 체육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도덕과는 내용 체계의 기능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인식 및 존중하기, 자기감정 조절하기, 자기감정 표현하기, 모범사례 반복하기, 타인 입장 이해·인정하기, 공감 능력 기르기, 다양성 수용하기,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실천 의지 기르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 등이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요소들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정서역량의 통합을 위해 프로그램 전체에서 골고루 모두 함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회정서역량은 각 하위 요소 5가지가 분절적인 동시에 총체적이기 때문에 매 차시에 중점 역량을 정하였으나 그것만을 다루는 수업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정서역량을 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서도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학습)·가정 지도의 통합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접근을 중요시 생각하였다.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는 감정을 항상 읽어주고 다루는 발문을 하고, 정규 수업 전 아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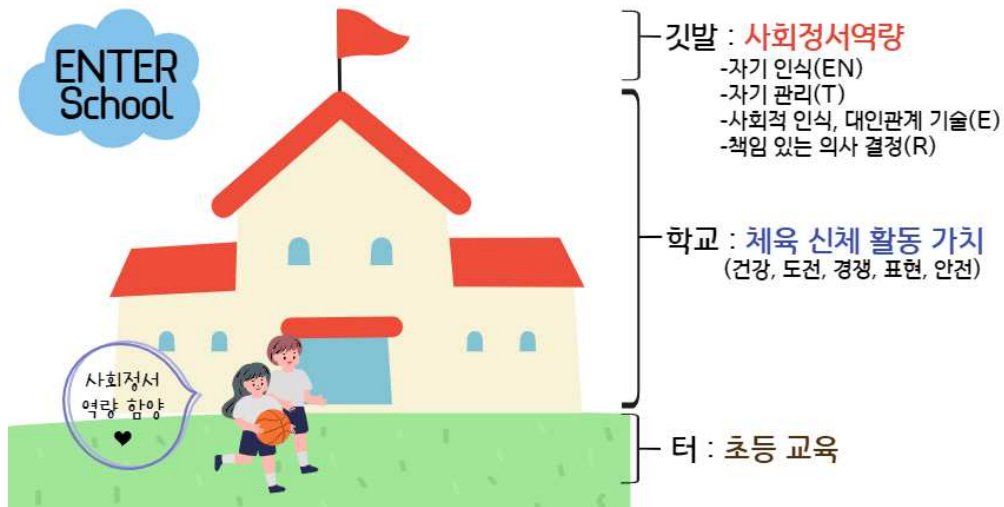
시간에도 감정과 관련된 학생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교과 시간 역시 사회정서역량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둠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중간 놀이 시간에는 자신의 할 일을 먼저 마치고 다른 친구들과 신체 놀이, 보드 게임 등을 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 사회정서역량과 관련된 통신문을 여러 차례 보내어 가정에서도 감정을 주로 다루는 대화를 실시하고 아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가족 구성원과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관계 내에서 행동할 것을 일관되게 지도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의 실행을 조사한 메타 분석 연구(Durlak et al., 2011)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사회정서적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 성취도와 사회정서역량의 증가, 자아와 타인에 대한 태도의 개선,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행동 문제와 정서적 고통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 학교 위치 및 학교 유형에 걸쳐 일관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 전체에서 사회정서학습을 공표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

2) 교육 방법: 반복성, 점진성

프로그램의 방법은 **반복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에 따라 실행한다. 학생들은 일회성이나 불규칙한 실행으로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연간 102차시 이상 실시하는 동안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과정들을 반복 실행하면서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정서역량과 신체 능력은 효과 측면에서 점진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발달은 서서히 이루어지며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3학년 학생 수준에서 자기 인식 단계부터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갈수록 고난도, 고

차원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을 알고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조절하는 단계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다룰 줄 아는 단계, 나아가 인지적으로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여 의사결정하고 성찰할 줄 아는 단계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체육수업과 학교생활, 가정에서의 생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차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ENTER School**이라고 이름 붙였다([그림 18] 참고). 본 프로그램은 초등 교육이라는 터에서 체육의 신체 활동 가치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을 주된 학습 내용 자체이자 수단으로 하여 학교생활에서 익히며 사회정서역량이라는 깃발 즉,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여 전인(全人)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의 통합성을 기반 삼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 내용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였다.



[그림 18] ENTER School

라.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프로그램에서 매 차시 활동 순서는 [표 21]과 같이 조직화하여 루틴으로

[표 21] 프로그램 내 차시 활동 운영의 흐름

체육 수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 · 학습 과제 안내 · 중점 사회정서역량 확인 · 준비 운동, 모둠 구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주제에 맞는 신체활동 · 중간 점검(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피드백/전략 회의 등의 의사소통, 체육수업 규칙 상기 등)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운동 · 목표 달성 확인, 자신의 강점 발견 · 마음기록장[체육수업일지] 작성 · 차시 예고
마음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수업 후 ‘활동 경험’과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도록 그림일기 형식으로 작성 	

만들었다. 초등학교의 1차시 수업 40분을 ①학습 과제 안내(3') → ②준비 운동, 모둠 구호(5') → ③활동 참여(10') → ④중간 점검(4')(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피드백/전략 회의 등의 의사소통, 체육수업 규칙 상기 등) → ⑤활동 재참여(12') → ⑥정리 운동(2') → ⑦목표 달성 확인, 자신의 강점 발견(1') → ⑧마음기록장[체육수업일지] 작성(3')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주 1회 체육 시간에 이어서 도덕 시간을 배치하여 교육과정 내의 내용과 체육 상황에서의 사회정서역량을 추가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하위 사회정서역량별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자기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본 차시는 3월 초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준비 운동으로서 맨손체조와 정리운동으로써 스트레칭의 중요성과 단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구성하였다.

[표 22] 자기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영역	건강 영역	단원	1. 튼튼한 체력으로 건강 쑥쑥 - (2) 건강한 생활을 알아봐요	
학습 주제	몸과 마음의 건강	수업 준비물	사진 자료, 모둠 칠판 세트, 맨손 체조용 배경 음악	
학습 목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다.	중점 사회정서역량	자기 인식 역량	
학습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p>동기 유발</p> <p>학습 문제 확인</p> <p>학습 활동 소개</p> <p>역량 확인</p>	<p>•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찾아보기 - 칠판에 붙어 있는 여러 사진 중 사진 속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이유와 함께 설명하게 한다. - 친구의 발표에 동의하면 ○, 그렇지 않으면 ×를 손으로 표시해 본다.</p> <p>• 학습 문제 확인하기 건강한 몸과 마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봅시다.</p> <p>• 학습 활동 소개하기 [활동 1] 건강이란? [활동 2] 건강한 생활 습관 [활동 3] 실천하기</p> <p>• 역량 확인하기 자기 인식 역량 :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내면의 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평소 자신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실천 의지를 다짐)</p>	8'	<p>☞ 사진 자료(근육질, 부상 입은 운동선수, 어린이, 장애인 등)</p> <p>☉ 학생들이 가진 건강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확인한다.</p> <p>☉ 역량은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단어로 풀어서 설명한다.</p>
전개	<p>[활동 1] 건강이란?</p> <p>[활동 2] 건강한 생활 습관</p>	<p>• 건강의 의미 탐색하기 - 학생들이 발표한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건강의 개념 속에 <u>신체적, 정신적, 사회적</u> 건강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 건강 관련 사진들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중 무엇을 강조한 모습인지 분류해 본다.</p> <p>• 나의 건강 점검하기 -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안내한다.</p> <p>• 건강한 생활 습관 의견 나누기 - 모둠별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돌아가며 말한다. - 모둠 공통 의견을 2~3가지 정리하여 칠판에 게시하도록 한다.</p>	7' 7'	<p>☉ 건강의 사전적 정의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여러 사례를 보며 학생 스스로 건강의 의미를 탐색하게 한다.</p> <p>☉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식사, 운동, 수면, 위생,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이</p>

	[활동 3]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의지 다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중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한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를 칭찬한다. • 건강 실천으로서의 맨손 체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인 맨손 체조를 하며, 동작을 익힌다. -활동 중간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확인한다. (예: 맨손 체조만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 음악에 맞게 몸을 움직이니 즐거운 마음, 교실에서만 활동하니 아쉬운 마음 등) 	15'	<p>있음을 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 칠판 세트 ☞맨손 체조용 배경 음악 ☞추후 체육수업에 모듬원이 돌아가며 준비운동으로 맨손 체조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안내한다.
정리	배운 내용 정리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면 건강한 사람이다.’ 문장을 완성하며 건강의 개념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 차시 예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시간에는 ‘모듬별 스트레칭 체조 만들기’를 할 것이므로 다양한 영상 자료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준비해오도록 안내한다. 	3'	☞가정에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평가 요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평가 방법	관찰 평가, 자기 평가
평가 계획	잘함		보통	노력 요함
	건강한 생활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으나, 실천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

2) 자기관리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학생들이 건강 영역에서 학습한 ‘줄넘기로 체력 기르기’와 3학년 ‘속도 도전’을 연계한 차시이다. 학생들은 본 차시 수업에서 체육수업의 기본이 되는 규칙 준수, 협력과 경쟁의 과정 속에서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여 완수해 내도록 요구 받았다. 이 수업을 통해 교사들은 금세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사는 반복하여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수업에서 자기관리역량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강화하였더니 이후 수업에도 선한 영향을 미쳤다.

[표 23] 자기관리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영역	도전 영역	단원	2. 빠르게 달리기 - (3) 친구들과 함께 이어 달려요	
학습 주제	줄넘기 이어달리기	수업 준비물	교사용 전자호루라기, 스펀지 주사위, 줄넘기	
학습 목표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다.	중점 사회정서역량	자기 관리 역량	
학습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p>학습 문제 확인</p> <p>학습 과제 안내</p> <p>역량 확인</p> <p>활동 준비</p>	<p>· 학습 문제 확인하기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봅시다.</p> <p>· 학습 과제 안내하기 [줄넘기 이어달리기 활동 방법] 1. 4명씩 1개의 모듬을 이룬다. 2. 달리는 순서를 정하고 출발선 뒤에서 주사위를 던져 눈의 수를 확인한다. 3. 줄넘기가 있는 선까지 달려가서 (주사위 눈의 수)×5회 줄넘기를 넘는다. 방법은 양말 모아 뛰기, 뒤로 뛰기, 엇걸었다 풀어 뛰기 등으로 난이도를 조절한다. 4.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 다음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로 이어달리기를 실시한다. 5. 마지막 모듬원이 먼저 출발선에 들어오는 모듬이 승리한다.</p> <p>· 역량 확인하기 자기 관리 역량 :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 (게임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듬원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최선을 다함)</p> <p>· 준비 운동과 모듬 구호 외치기 -모듬별로 모여 준비 운동을 한다. -모듬 구호(예: “실수해도 괜찮아!”, “다치지 않고 즐겁게!”, “멋지다 ㅇ모듬!” 등)를 외치며 활동 전 모듬 결속을 견고히 한다.</p>	8'	<p>☛수업 전 미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p> <p>☛1,2,3이 2개씩 있는 스펀지 주사위, 줄넘기(모듬 수만큼)</p> <p>☛게임에 운적 요소를 가미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p> <p>☛협력과 경쟁의 과정 속에서 자기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p>
전개	활동 참여	<p>· 활동 참여하기 -각 모듬은 신호가 울리면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에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한다. -다음 사람을 배려하여 줄넘기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놓고 오는</p>	10'	<p>☛자기 관리 역량의 행동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칭찬함으로써 행동을 강화하도록</p>

	<p>중간 점검</p> <p>활동 재참여</p>	<p>행동, 달리기나 줄넘기를 잘 못하거나 실수한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학생들을 관찰하게 한다.</p> <p>• 활동 돌아보고 전략 회의하기 -우리 모두가 잘한 점, 고쳐야 할 점을 발표해 본다. -다른 모둠으로부터 배울 점을 이야기 나누며 다음 게임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전략을 생각해 보게 한다.</p> <p>• 체육수업 규칙 상기하기 -오늘 체육수업에서 강조한 역량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말해 보도록 한다.</p> <p>• 변형된 게임 활동 참여하기 -달리는 거리를 조절하거나 줄넘기나 주사위의 종류를 바꾸어 보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게임을 변형해 진행한다. -규칙을 지키며 변형 게임을 다시 수행한다. -활동이 끝나면 교구를 빠르게 정리한다.</p>	<p>4'</p> <p>10'</p>	<p>한다.</p> <p>● 규칙을 지키는 것은 게임의 기본임을 지도한다. 규칙을 어기면서 이기는 것보다 깨끗한 패배가 더 멋진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p> <p>● 동일한 학습 목표 내에서 게임을 창의적으로 변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p>
정리	<p>목표 달성 확인</p> <p>마음기록 작성</p> <p>차시 예고</p>	<p>• 정리 운동하기 -큰 원형 대형을 만들고, 달리기와 뒹뒹기 활동을 주로 했으므로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풀어 준다.</p> <p>• 목표 달성 확인하기 -오늘의 학습 문제와 중점 역량을 생각하며 수업에 참여했는지 스스로 성찰해볼 기회를 제공한다.</p> <p>• 체육수업일지 작성하기 -체육수업에서 활동한 경험과 그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게 그림 일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p> <p>• 차시 예고하기 -다음 시간에 배울 '다양하게 배턴을 주고받으며 이어달리기'를 안내한다.</p>	<p>8'</p>	<p>● 학급 전체가 모여 정리 운동을 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p> <p>☞ 마음기록장, 필기 도구</p> <p>● 교실에 가서 작성해도 되므로 시간 압박을 받지 않고 작성하도록 한다.</p>
평가 요소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		평가 방법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마음기록장)
평가 계획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의 규칙을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의 규칙을 어길 때가 있으나 즐겁게 참여한다.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의 규칙을 자주 어기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림 19] 줄넘기 이어달리기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

3) 사회적 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과정안에 제시된 본 차시는 표현 영역에서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장기 프로젝트의 8차시 중 마지막 차시로 모둠별 작품 발표와 감상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전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기본 동작 10가지 익히기(2차시), 선생님이 「That That - PSY」 노래에 맞게 구성한 작품 배워보기(1차시), 모둠별로 음악 선정 및 동작 구성, 작품 연습(4차시)에 참여하였다. 3학년 수준의 창작 활동은 기본 동작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동작 순서 구성, 대형 변화, 손동작 추가 등을 제안하였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표현을 인정하고 존중하였다.

[표 24] 사회적 인식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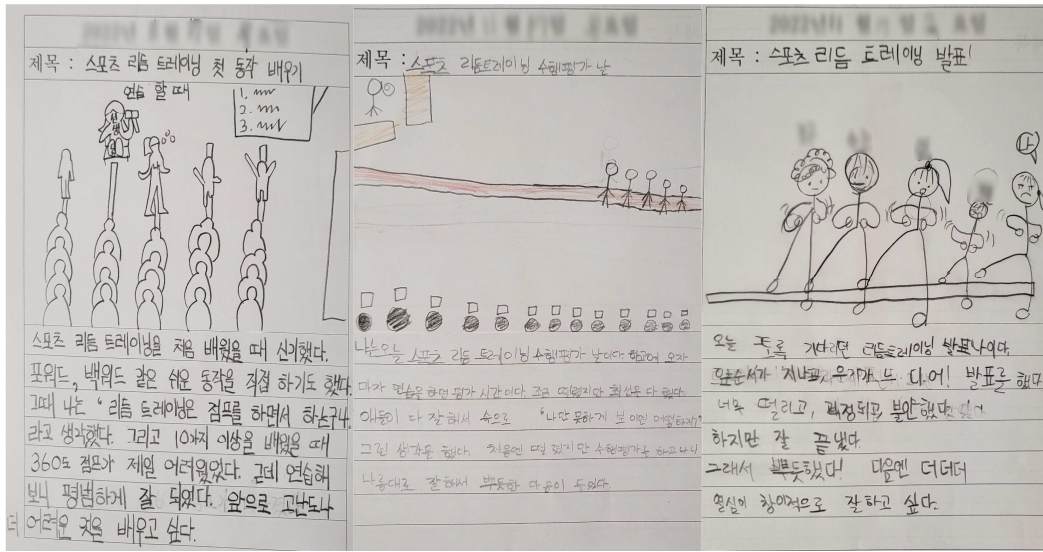
영역	표현 영역	단원	2. 아름다운 움직임, 재미있는 표현 - (8) 움직임 표현 동작을 만들어요
학습 주제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 발표하기	수업 준비물	라인 테이프, 모둠별 음원 파일, 스마트폰, 동료 평가지
학습 목표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할 수 있다.	중점 사회적역량	사회적 인식 역량

학습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p>학습 문제 확인</p> <p>학습 과제 안내</p> <p>역량 확인</p> <p>활동 준비</p>	<p>• 학습 문제 확인하기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해 봅시다.</p> <p>• 학습 과제 안내하기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활동 방법] 1. 4~6명이 1개의 모듬을 이룬다. 2. 모듬원이 협력하여 기본 동작 10가지를 음악에 맞게 구성하고, 대형을 바꾸거나 추가 동작, 도구 등을 창의적으로 준비한다. 3. 음악에 맞춰 반복 연습하며 동작 순서를 익힌다. 4. 구성한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을 발표한다. 5. 다른 모듬이 발표할 때는 바른 태도로 감상한다.</p>  <p>• 역량 확인하기 사회적 인식 역량 :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 (모듬별 표현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함)</p> <p>• 준비 운동과 모듬 구호 외치기 -모듬별로 모여 준비 운동을 한다. -모듬 구호(예: “틀려도 끝까지!”, “우리가 최고야!”, “창의왕 모듬!” 등)를 외치며 활동 전 모듬 결속을 견고히 한다.</p>	6'	<p>●수업 전 미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p> <p>☞ 라인 테이프, 모듬별 음원 파일(약 1분 30초 내), 스마트폰</p> <p>●서로 다른 음악, 동작 구성 도구 등을 준비하였음을 언급하며 학생 수준에 맞게 이해시킨다.</p>
전개	<p>최종 연습 (리허설)</p> <p>중간 점검</p> <p>작품 발표 및 감상</p>	<p>•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 최종 연습하기 -최종 연습을 할 때는 실제 발표하는 것처럼 하고, 잘되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잘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며 전체 흐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게 한다.</p> <p>• 활동 돌아보기 -우리 모듬이 목표 달성(멋진 작품 만들어 발표하기)을 위하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며 서로 모듬원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한다. -공연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p> <p>•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 발표하기 -모듬원들과 함께 구성한 작품을 발표한다.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소품이나 도구가 있을 경우 스스로 준비하도록 허용한다.</p> <p>•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 감상하기 -감상 관점으로 중점 사회적역량인 사회적 인식 역량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p>	<p>10'</p> <p>4'</p> <p>12'</p>	<p>●교사는 순회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p> <p>●발표 중 학생들이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발표하는 태도 다른 모듬의 발표에 집중하는 태도 등 공연 예절의 기초를 배울 수 있다.</p> <p>☞ 동료 평가지</p>

		-모둠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동작을 하나씩 뽑고 발표하며 그 모 둠의 표현 방식의 창의성과 노력을 인정해 준다.		
정리	목표 달성 확인 마음기록 작성 차시 예고	• 정리 운동하기 -두 명씩 짝을 지어 다양한 부위의 근육과 관절을 스트레칭 한다. • 목표 달성 확인하기 -오늘의 학습 문제와 중점 역량을 생각하며 수업에 참여했는지 스스로 성찰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 체육수업일지 작성하기 -체육수업에서 활동한 경험과 그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게 그림 일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 • 차시 예고하기 -다음 시간에 배울 '깨끗한 생활 습관 기르기'를 안내한다.	8'	✎ 마음기록장, 필기 도구
평가 요소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평가 방법	관찰 평가, 동료 평가(체크리스트)
평가 계획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을 잘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작품을 존중하며 감상한다.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한다.	모듬원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모듬의 작품을 바른 태도로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림 20]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작품 발표 및 감상하는 모습




[그림 21] 학생들이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수업 후 작성한 마음기록

4) 대인관계 기술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경쟁 영역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본 차시는 ‘협력’에 더욱 초점 맞추었다. 협력 풍선 놀이 활동은 학기 초나 새로운 모둠 구성을 하였을 때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학생들은 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손)를 맞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해야 하고 나의 의지만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에 협력이 필수적이며 풍선을 오래 띄울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소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표 25] 대인관계 기술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영역	경쟁 영역	단원	2. 기능과 전략 찾아 익히기 - (7) 손으로 풍선을 쳐서 넘겨요
학습 주제	협력 풍선 놀이하기	수업 준비물	전자 호루라기, 풍선, 모둠 전략 회의판 세트
학습 목표	모둠원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협력 풍선 놀이를 할 때 실천할 수 있다.	중점 사회정서역량	대인 관계 기술 역량

학습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p>학습 문제 확인</p> <p>학습 과제 안내</p> <p>역량 확인</p> <p>활동 준비</p>	<p>• 학습 문제 확인하기 모둠원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협력 풍선 놀이에서 실천해 봅시다.</p> <p>• 학습 과제 안내하기 [협력 풍선 놀이 활동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둠원과 등글게 모여 손을 잡는다. 2. 풍선을 던져 모둠원과 협력하여 풍선을 오래 띄운다. 이때, 모든 신체 부위를 활용해 풍선을 띄울 수 있다. 3. 풍선을 받지 못해 바닥에 닿거나 모듬원과 손이 끊어지면 게임이 종료된다. 4. 가장 오래 풍선을 띄운 모듬이 승리한다.  <p>• 역량 확인하기 대인관계기술 역량 : 자기주장과 설득을 발휘하고 의사소통하며 협력하는 능력 (게임 전략을 세우는 데 자기주장을 분명히 소통하고 협력함)</p> <p>• 준비 운동과 모듬 구호 외치기 -모듬별로 모여 준비 운동을 한다. -모듬 구호(예: “오래, 오래!”, “너도나도, 협력하자!” 등)를 외치며 활동 전 모듬 결속을 견고히 한다.</p>	8'	<p>● 수업 전 미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p> <p>☞ 풍선(모듬 수만큼)</p> <p>● 풍선 크기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므로 학생들 스스로 풍선의 크기를 정하여 활동하도록 한다.</p>
전개	<p>활동 참여</p> <p>중간 점검</p> <p>활동 재참여</p>	<p>• 활동 참여하기 -의자에 앉아 협력 풍선 놀이를 수행한다. -손을 잡고 준비하면 교사가 가운데로 풍선을 던져 주거나 모듬원 한 명이 풍선을 던진 후 손을 잡아 놀이를 시작하도록 한다. -풍선을 이어 줄 때 예상 낙하지점에 가까운 우리 모듬원의 이름을 불러 분명하게 소통하여 친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 활동 돌아보고 전략 회의하기 -잠시 앉아 눈을 감고 15초간 체험한 활동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학생들은 목표 달성(승리)을 위해 전략에 관한 의견을 내고,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동의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한다. -전략 실행을 위한 개인의 역할을 분담한다.</p> <p>• 변형된 게임 활동 참여하기 -학생들이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형해 본다. -연속 터치 금지 규칙을 추가하거나 시간 내에 풍선 띄운 횟수 세기로 승패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p>	10' 4' 10'	<p>● 활동 중 어느 위치에서, 누가 받을 것인지 서로 적극 소통하며 협력하도록 유도한다.</p> <p>☞ 모듬 전략 회의판 세트</p> <p>● 학생들이 전략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p> <p>● 게임 중간에 전략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p>

		-변형된 게임 활동에도 전략(예: 침착하게 움직이기, 함께 풍선 쪽으로 이동해 주기, 풍선 살살 치기 등)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리	목표 달성 확인 마음기록 작성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리 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별 정리 스트레칭을 한다. -본 활동에서 주로 사용한 손목과 어깨를 중심으로 마무리한다. 목표 달성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 세우기, 의사소통하기, 협력하기 등의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손가락 점수로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우리 모듬의 좋은 전략을 발표하며 서로 공유한다. 체육수업일지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수업에서 활동한 경험과 그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게 그림 일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 차시 예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시간에 배울 '풍선 배구'를 안내하며 풍선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창의력을 자극한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모듬 전략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창의적인 전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마음기록장, 필기 도구
평가 요소	모듬원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협력 풍선 놀이를 할 때 실천한다.		평가 방법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모듬 전략 회의판, 마음기록장)
평가 계획	잘함	모듬원과 함께 전략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력 풍선 놀이에 세운 전략을 대부분 실천한다.	보통	모듬원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협력 풍선 놀이를 할 때 세운 전략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노력 요함	모듬원과 함께 전략을 세울 때 비협조적이며, 협력 풍선 놀이를 할 때 전략을 거의 실천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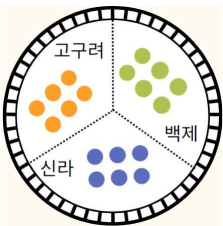


[그림 22] 협동 풍선 놀이에 열중하는 학생들 모습

5)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체활동으로 꼽았던 피구를 경쟁 영역에서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공을 던질 기회를 가지고, 만약 공에 맞아 아웃되더라도 외곽에 나가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한다. 반면에 공을 무서워하는 학생에게는 공을 맞아야 게임이 종료된다는 사실이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에 공을 던지고 받는 기본 움직임 기술과 함께 팀 활동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자신과 팀을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보는 수업을 계획하였다. 본 차시 활동을 할 때, 교사는 기본적으로 팀 구성의 균형과 기회의 평등, 서로 존중하는 말 사용을 강조하여 목표 달성에 힘써야 한다.

[표 29]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교수·학습 과정안

영역	경쟁 영역		단원	3. 규칙을 지키며 게임하기 - (9) 전략을 세워 게임을 해요	
학습 주제	삼국 피구하기		수업 준비물	전자 호루라기, 접시콘, 피구공, 빅발리볼	
학습 목표	삼국 피구를 하고 활동을 성찰할 수 있다.	중점 사회정서역량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학습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학습 문제 확인 학습 과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하기 삼국 피구를 하고 활동을 성찰해 봅시다. · 학습 과제 안내하기 [삼국 피구 활동 방법] 1. 학급 전체를 세 팀으로 나눈다. 2. 각 팀은 고구려, 신라, 백제 중 자신의 팀(나라) 이름을 정한다. 3. 공을 던져 다른 두 팀의 백성들을 맞으면 상대는 아웃된다. 4. 아웃된 백성은 다른 나라 외곽에서 공격을 진행한다. 5. 만약 백성이 모두 아웃되어 나라가 멸망하면 마지막 백성을 맞힌 나라가 그 나라의 땅을 흡수한다. 6. 한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된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전 미리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 접시콘, 피구공 ☛ 두 모둠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되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구성한다.

	역량 확인 활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확인하기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 성찰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하는 능력 (성찰을 통해 팀의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책임감 있게 해결함.) • 준비 운동과 모둠 구호 외치기 -모둠별로 모여 준비 운동을 한다. -팀(나라)별 구호(예: “승리의 고구려!”, “백제, 백제, 백제!”, “신라, 신라, 파이팅!” 등)를 외치며 활동 전 팀 결속을 견고히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으로는 경기 수행 능력과 사회 정서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에 초점 맞춘다.
전개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참여하기 -신호가 울리면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하도록 한다. -활동 중 몸이나 마음이 다치는 학생이 없도록 잘 관찰한다. -모든 팀원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을 던질 기회를 골고루 돌아가며 갖는다. • 활동 돌아보고 문제 해결 방안 회의하기 -잠시 앉아 눈을 감고 30초간 우리 팀의 잘한 점과 문제점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문제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을 위해 활동 시 친구를 아프게 맞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하기를 통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른다.
	중간 점검 활동 재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수업 규칙 상기하기 -오늘 체육수업에서 강조한 역량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말해 보도록 한다. • 변형된 게임 활동 참여하기 -학생들이 게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안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피구공 대신 빅발리볼을 이용해 보는 게임으로 변형된 게임을 수행해 본다.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발리볼 ● 아웃되었을 경우 어느 팀의 외곽에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 보게 한다
정리	목표 달성 확인 마음기록 작성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 운동하기 -큰 원형 대형을 만들고, 주요 활동으로 피로한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며 마무리한다. • 목표 달성 확인하기 -스스로를 학습 문제와 중점 역량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고 반성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 체육수업일지 작성하기 -체육수업에서 활동한 경험과 그때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게 그림일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한다. • 차시 예고하기 -다음 시간에 배울 '뉴스포츠 플로어볼'을 안내한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끝나면 교구를 정리하며 큰 원형 대형으로 재빠르게 모인다. ☞ 마음기록장, 필기 도구 ● 교실에 가서 작성해도 되므로 시간 압박을 받지 않고 작성하도록 한다.

평가 요소	삼국 피구를 하고 활동을 성찰한다.		평가 방법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마음기록장)
평가 계획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삼국 피구를 하고 활동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삼국 피구를 하고 활동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만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삼국 피구를 하고 활동을 성찰하지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림 23] 빅발리볼로 삼국 피구를 하는 모습

마. 프로그램 운영의 주안점

사회정서학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담당하는 1년간 체육시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활동 및 생활 지도를 꾸준히 실시한다. 첫째, 학급 전반적으로는 고마워교실을 운영한다(양경윤, 김미정, 2021). 고마워교실에서는 언어점화 효과를 활용하여 긍정적이고 행복한 교실로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침을 [그림 24]와 같은 ‘긍정확언’으로 연다. 이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오고 싶은 학교, 편안한 교실, 상호존중하며 고마운 선생님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중한 나의 마음 (4월)

방법

- 아래의 느낌말 중, 내가 겪은 일에 대한 느낌 선택하기 (사용하지 않았던 느낌말 중에서 선택해보세요.☺)
- 그 느낌이 생긴 이유에 대해 글쓰기
- 사용한 느낌말에 ○표시하기

예시

- 포근한 :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다. 헤어지기 전 할머니께서 안아주셨는데 포근했다.

4월의 느낌말

두근거리는 통쾌한 고마운 산뜻한 친근한
차분한 흥가분한 당당한 용기나는 평온한
가벼운 사랑하는 포근한 만족스러운 편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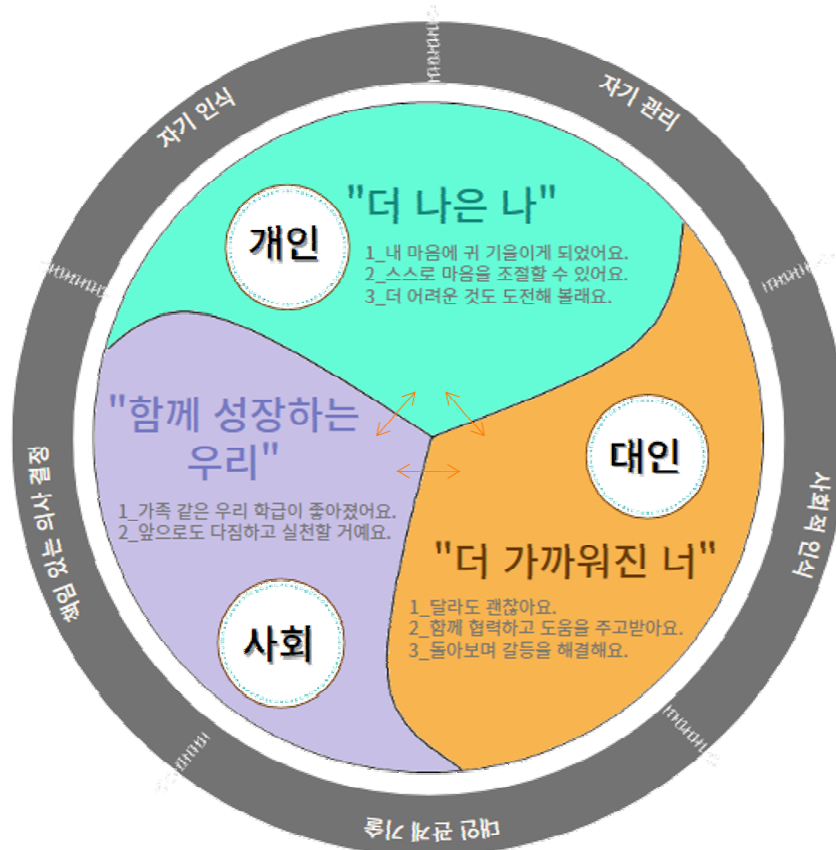
비참한 속상한 서운한 화나는 심술나는
미운 지루한 눈물나는 겁나는 막막한
걱정되는 신경쓰이는 힘든 지친 심심한

[그림 26] 감정 관련 수업 사례

넷째, 본 연구에서 교사는 학급에서 학생들이 만나는 어른으로, 사회적 서역량의 완성본과 같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생활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용하고, 학생들을 전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2.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변화

본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과정을 서술한 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Pearson & Nicholson(2000)의 개인(자기), 대인관계(타자), 사회적 차원 기준을 참고하여 분석한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더 나은 나’(자기 인식 역량, 자기 관리 역량), ‘더 가까워진 너’(사회적 인식 역량, 대인관계 기술 역량), ‘함께 성장하는 우리’(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발견하며 사회정서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서역량 변화 도식화

가. 더 나은 나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나타난 미묘한 변화를 먼저 체감하였다고 했다. 자신의 마음 즉, 모호한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언어화하여 표현하고 명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은 감정의 이유를 알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를 더 높이고, 넓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서 나아가 보다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개인적 역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 “내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인성교육은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특히 의식하여 학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득’될 수 있음이 인성교육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무의식 혹은 반의식적 차원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의 차원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조남기 외, 2022). 학생들은 최소 70가지 이상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배웠고, 상황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특히 체육수업과 같이 학생들이 기대감과 과한 승부욕을 드러내어 흥분하기 쉬운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간 점검과 성찰 시간을 통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다.

송흥미 :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가끔 싸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감정 조절을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흥미는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잘 알아차리나요?

송흥미 : 네 제가 만약에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화난 마음이거나, 좀 화를

가라앉히고 친구한테 먼저 사과하면 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걸 잘 이해하기도 해요.

연구자 : 머릿속으로도 잘 이해하고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군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알아차리나요?

송흥미 : 가끔 잘 못 알아챌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잘 알아차려요.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표정, 몸짓, 말투 그런 걸 보고요.

(송흥미 학생, 사후면담 中)

그리고 체육시간을 마무리하며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을 작성할 때 학생들은 활동 경험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교사들은 학생 마음기록장을 통해 체육수업 후 아이들에게 나타난 마음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매미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나는 술래도 아닌데 선을 넘어서 그것 때문에 찝찝한 기분이 든다. 다음에는 내가 그러지 않고 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연구자 : 마음기록장에 그린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배두근 : 매미 술래잡기는 술래잡기는 술래잡기인데, 술래만 선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선을 따라서만 이동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그렸어요.

연구자 : 네, 그리고 스스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배두근 : 제가 술래가 아니니까 선이 만날 때만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술래를 피하려다가 실수로 선을 점프해버려서...

연구자 :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나요?

배두근 : 뭔가 찝찝한 마음? 누가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나 스스로는 규칙 안 지킨 걸 아니까 조금 찝찝했어요.

(배두근 학생, 중도면담 中)

오늘 피구를 했다. 남자애들이 막 공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자애들은 뭔가 잘 공을 못 잡았다. 그래서 조금 슬펐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도 죽어도(아웃 되어도) 다시 뒤로 가서 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연구자 : 학생 마음기록장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선생님이 알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장초심 : 학생 마음기록장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세밀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제가 24명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저 표정이나 걸음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이 친구의 감정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로는 교사가 생각보다 캐치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마음 기록장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음기록장을 적고 나서야 이 친구가 ‘이런 감정도 느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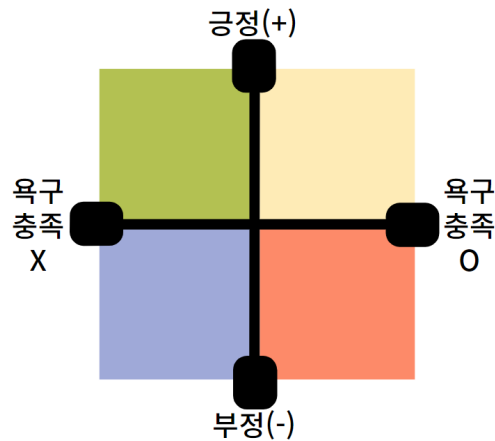
연구자 :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눈만 보이고, 그것과 행동만 보고 아이를 지도하였는데 사실은 자기도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마음기록장에 풀어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장초심 : 네, 맞아요. 저희 반에 함묵증이 있는 친구나 좀 조용한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표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후에 기록장을 보고 많이 알게 됐어요.

연구자 :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군요.

(장초심 교사, 사후면담 中)

장초심 교사의 경우,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체육수업이 힘든 이유 중 하나로 학급에 감정조절이 어려운 학생이나 함묵증이 있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들어주고 조절해 주는 과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수업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해당 학생은 말로 소통이 어려운 상태고, 다른 학생들 약 스물 몇 명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압박감이 든다고 하였다. 그때 학생들이 작성한 마음기록장을 보면 자세한 상황 파악과 학생의 마음을 알게 되어 후에 학생 상담을 진행하며 감정을 다독여주는 일이 많았다고 대답했다.



[그림 28] 감정 체크판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현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그림 28]과 같은 감정 체크판의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이름 자석을 붙였다. 감정을 분류해 보며 더욱 정교하게 자기 인식 역량을 향상시켰다. 자기 인식은 사회정서역량의 기초이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기 주장이나 정당한 요구하기를 어려워하고,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해 불만족스러운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 익숙해지자 타인의 감정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상황에 따라 타인이 느낄 감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

2)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일은 중요하다. 체육수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감정 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너무 들떠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다. 예를 들면 자신의 팀이 승리한 데 흥분하여 진 팀을 놀리듯이 행동하고 도발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수업에 흥미와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눈에 띄게 내비추어 소

속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다. 셋째, 활동 중 승패에 과몰입하여 규칙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다. 이는 주로 짜증과 분노의 형태로 발현된다.

위의 감정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감정이고,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모두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절과 통제**가 필요한 상황들이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고 적절히 감정을 조절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체육수업에서 감정조절이 어려웠던 상황을 서로 공유하며 이후 타 교과 수업(도덕이나 국어)에서 해당 사례를 역할극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특히 짜증이나 화를 무조건 참거나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원인을 판단하고, 서로에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말로 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 맞추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STC (Stop-Think-Choose), 나 전달법(I-message), 자신만의 감정 조절 방법 생각하고 실천하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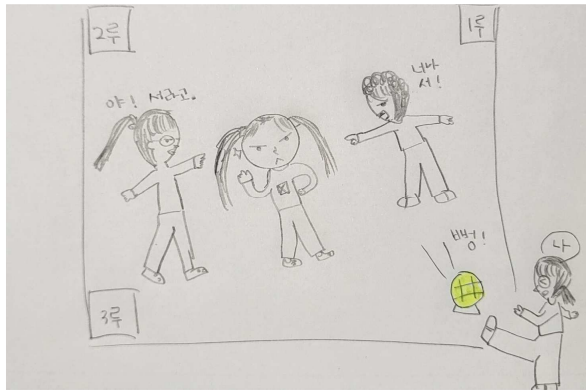
다음은 학생들이 체육수업 후 작성한 마음기록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재빠르게 자각하고 충동성을 조절하여 최선 또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어제부터 비가 와서 오늘 체육은 교실에서 했다. 부산행 슬래집기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았지만 게임 시작 전에는 화나고 불편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설명을 안 들어서 혼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도 게임할 때는 친구들이 잘해서 괜찮았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발야구를 정말 재미있게 했다. 3학년 때 처음 해봤는데 공을 빙 차는 것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가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다른 친구들은 생각을 안 한다. **답답하고 조금 짜증이 났지만 이해해주기로 했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연구자 : 마음기록장에 그린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김시원 : 운동장에서 발야구 수업했을 때를 그렸습니다.

연구자 : 친구들 옆에 말풍선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김시원 : 저희 반에 ○○이라고 있는데 개가 남이 말하면 안 듣고, 자기 의견만 계속 말하니까 친구들이 조금 짜증이 났었어요.

연구자 :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나요?

김시원 :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개랑 같은 팀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도 시간 지나고 사과할 때도 있고 해서 그냥 같이 싸우지 않고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시원이가 볼 때 ○○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김시원 : 음... ○○이는 감정조절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시원 학생, 중도면담 中)

오늘 체육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모뎀이 이겼다고 막 메롱메롱하며 놀려서 기분이 나빴다. 나는 그런 거 굳이 안 하는 편인데 진 팀 놀리면 재미있나? 선생님이 그런 거 하는 팀은 이겨도 태도에서는 진 거라고 했어"라고 말했다니 조용했다. 내가 이긴 것 같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왕피구는 왕 같은 걸 정해서 지켜주는 게임이었는데 한 사람을 지켜줘야 되니까 내가 공에 맞을 수 있으니까 좀 무서웠다. △△△가 체육시간에 엄청 열정적이어서 누가 좀 규칙을 어겼다고 이르면 화가 나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 남자애들이 주로 다뤄서 힘들었다. 나는 개가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냥 눈치를 보면서 앉아 있었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 관리 역량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다양한 문제 상황에 있어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문제 상황의 원인과 예상되는 결과를 고민해 보고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다.

연구자 :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다고 느껴져요?

장만족 : 화난 거 있으면 막 '무조건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관
찮아, 재는 저런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장만족 학생, 사후면담 中)

연구자 :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과정으로 해결하는 편인가요?

백기쁨 :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왜 화를 냈었지
그렇게 내 감정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나는 이랬어. 네가 이런
줄 몰랐어." 하면서 다음번에 바라는 점도 얘기해요. 문제 상황이 생긴
상대방도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대해주는 거예요.

(백기쁨 학생, 사후면담 中)

3)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해 볼래요.”

인성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인성의 핵심을 덕(덕목) 중심이 아닌 실생활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활용·실행 가능한 역량(competency), 행동 기술로 언급한 바 있었다(손경원, 2019). 인성은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수치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말, 행동, 태도를 관찰하여 변화를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 신체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체육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도덕적 판단과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는 인성함양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정택, 2019; 장용규, 이정택, 2021).

- ✓ 게임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는 편견이 없어졌어요.
- ✓ 전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학생 사후 설문조사 내용 中)

위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회정서역량이 성장하였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나요?”라는 사후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 내용의 일부이다. 학생들은 마음을 더 높이고, 넓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역량이 생기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년 초에 회복탄력성이 비교적 취약하여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았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살면서 부딪칠 수 있는 역경과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특성을 의미한다(김윤경, 2020). 학생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이 가진 강점을 잘 알고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사회정서학습은 회복탄력성을 길러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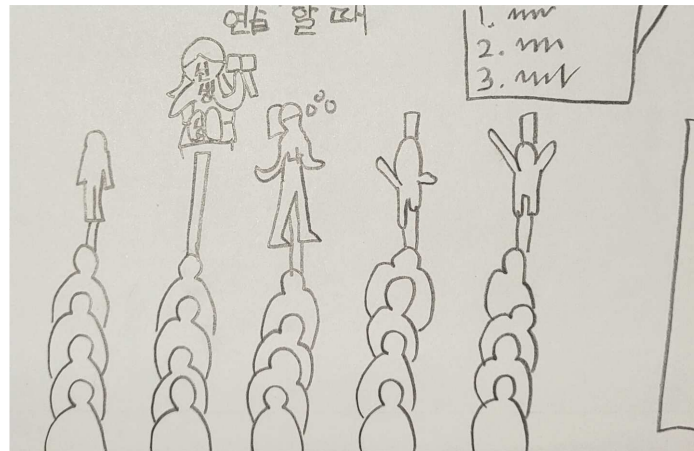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한 뒤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살면서 겪는 여러 좌절, 곤란한 상황, 역경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서도 크게 세 가지 노력을 하였다. 첫째는 학생 개개인이 친사회적인 특성을 갖도록 교육하였다. 낙관적인 사고, 감정 조절 등의 사회정서적 기술을 가르쳐 사회적으로 매력 있는 특성을 가졌다면 기회와 타인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모나 교사, 또래와의 건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증진하여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학생이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과제를 학습하도록 돕는 과제 지지와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도록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돕는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다(Dubow et al., 1991). 특히, 초등학교의 시기는 인생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시기로서 학교에서의 교사, 지도자,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행동은 이들에게 시기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유숙, 허재경, 2005). 셋째는 학생들이 학급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학급 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학급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단체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킨다.

그러자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조절하고 희망과 낙관주의를 활성화하며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수행해 나갔다. 이는 자기 관리 역량과 대인 관계 기술 역량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개인적 목표에 대한 도전 의식, 노력하고자 하는 긍정적 자기 지각 등을 언급하였다.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을 처음 배웠을 때 신기했다. 포워드, 백워드 같은 쉬운 동작을 직접 해보며 배웠다. 그때 나는 '아, 점프를 하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종락)...** 근데 연습해보니 평범하게 잘 되었다. **앞으로 고난도나 더 어려운 것을 도전해보고 싶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연구자 : 마음기록장에 그린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설렘 :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기본 동작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TV에 동작 이름을 써 주시고 박자를 쳐주셨고, 친구들은 다섯 모듬으로 줄서서 연습했어요.

연구자 : 평소에 체육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설렘 : 제가 달리기도 느리고 운동을 잘 못해서... 저는 미술 좋아해요.

연구자 : 음, 그런데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시간에는 평소와 다르게 표현했네요?

이설렘 : **동작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박수를 치면서 봐주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0도 회전 점프 같은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모둠별로 작품 만들기도 기대됐고요.

(이설렘 학생, 사후면담 中)

바나나 술래잡기는 “바나나”라고 외치는 게 재밌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뛰다가 앞을 안 보다가 부딪혔는데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근데 결국엔 화해를 했다. 그 친구들을 보며 나는 내 생각을 말로 할 줄 알고 감정도 조절할 줄 아니까 사회정서역량이 높아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좀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 같다. 더 노력해야지.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김따뜻 : 제가 체육 시간 활동을 좀 재미있게 할 때 달라졌다고 느껴요. 이전에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는데...

연구자 : 전에는 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나요?

김따뜻 :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애들이 맨날 자기한테 달라고 화내고 그러니까 재미없었어요.

연구자 : 아,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김따뜻 : 잘 못하거나 실수해도 서로 “괜찮아” 하면서 공을 주워주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질서를 잘 지키면서 활동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좋은 것처럼 참여해요.

연구자 : 사소한 일에도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군요.

(김따뜻 학생, 사후면담 中)

김따뜻 학생은 면담에서 나타나듯 또래에 비해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진 여학생이었다. 신체활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체육시간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편이었다. 남학생들이 승부욕을 발휘하여 흥분해서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상황을 가장 불편해 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업 시간을 반복하자 김따뜻 학생도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관찰하고 연구자와 토의를 한 결과, 모둠 협력 활동과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기여하는 학급 분위기, 감정 조절하여 말하기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더 가까워진 너

우리는 하나의 주체로서 타자와 일정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관계적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조혜경, 2021). 특히 체육 활동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또래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서적 발달을 도와 전인적인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Smith, 2003; Smith, Ullrich French, Walker & Hurley, 2006). 학생들은 또래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언급하였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 친밀감 증대, 협력과 도움 요청 및 제공, 갈등 해결 등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1) “달라도 괜찮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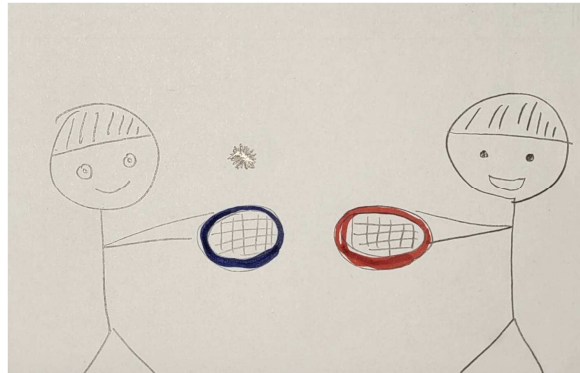
사람은 성장 환경, 가치관, 감정, 성장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학교에서 같은 반, 같은 담임교사, 같은 수업 내용을 접한다 해도 그에 대한 반응과 수용 정도 역시 제각각이다.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사한 친구를 만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자신과 다른 친구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서로 다른 개개인이 만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한 점이 우리만의 새로운 특성이 되어 특별함과 다양성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사회적 인식 역량**으로, 학생들은 개인 및 집단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타인을 존중하는 기술을 길렀다.

먼저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 경험과 신체능력의 차이, 배경지식과 성향의 차이 등을 경험했을 때 상대에게 대항하거나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서로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

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음에도 모듈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이루어내고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였다.

바운스 라켓으로 서로 공을 주고받는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친구가 실수로 떨어뜨려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을 같이 주웠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한 게 즐겁고 뿌듯했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연구자 : 마음기록장에 그린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황궁금 : 바운스 라켓으로 공 주고받기 수업을 했어요. 짝은 계속 달라지고요.

연구자 : 그럼 여러 명을 만나는 거네요?

황궁금 : 네, 그래서 잘하는 애도 만나고 못하는 애도 만나고.. 다양해요.

연구자 : 서로 공을 주고받을 때 어떤 점이 중요했나요?

황궁금 : 일단 잘 주고 잘 받아야 해요. 만약에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서 하고요. 너무 세게 줘도,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열 몇 번인가 했어요.

(황궁금 학생, 중도면담 中)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을 연습을 했다. 교실에서 빨간 선 위로 뛰었다.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었다. 조금 의견이 안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춤이 탄생했다. 가사지에 안무를 적고, 연습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팀워크도 좋아졌다. 거의 반 정도 짤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프로그램 초반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라고 제안하면 목소리 큰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무질서하고 강요하는 모습에 가까웠다. 그러나 많은 연습 과정을 거쳐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 전제이고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해나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후

학생들은 의견을 이야기 나누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두 돌아가며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공평하게 갖기 위해 말차례를 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최선의 결정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 : 프로그램 초반에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한의욕 : 저는 좀 열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정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구자 : 무엇에 대한 열정이었나요? 그때 열정은 좀 과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의욕 : 주로 대장 같이 했어요.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더 뛰라는 말도 하고, 뭐가 부족하면 더 채워라 그런 식으로...

연구자 :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 점에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나요?

한의욕 : 잘 싸우지 않고 친구들의 말도 잘 귀 기울여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둠 활동도 더 잘 참여하게 되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게 되었어요.

연구자 : 지금의 나라면 모둠원과 아예 얘기가 달라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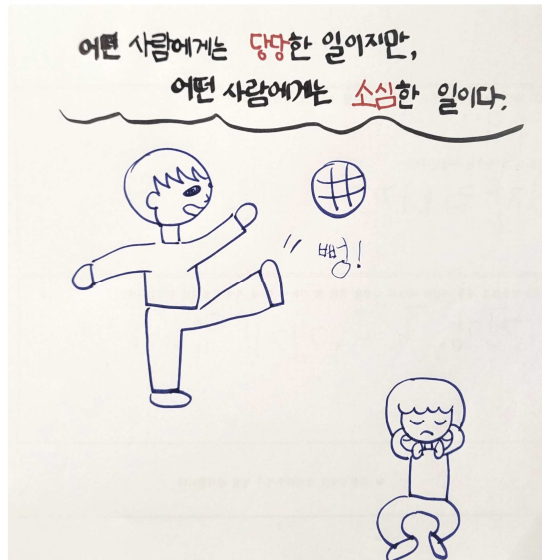
한의욕 : 시간이 되면 더 말을 해서 해결을 하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가위바위보로 오늘은 일단 정하고 다음에는 서로 바라는 걸 조금 더 얘기해보자고 하죠.

(한의욕 학생, 사후면담 中)

한의욕 학생은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적극적이지만 과한 언행으로 또래 친구들이 함께 모듬이 되기를 꺼려하는 대상이었다. 혼자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하여 다른 친구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여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한의욕 학생과의 상담에서 학생 스스로 친구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고 한의욕 학생이 가진 특성에서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소집단 활동, 전략 회의, 친구의 장점 칭찬하기 등 많은 연습을 통해 사람은 모두 다른 특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청하기, 공감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들이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학생의 언어 습관 중에 “그것도 못하는/모르는 사람이 있냐?”처럼 비난하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었다. 그림책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를 활용하여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후 학급 체육시간의 여러 사례를 모아 <다름 인정하기> 책을 각자 한 장씩 만들어 완성하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빠르고, 또 다른 사람은 느리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구가 재미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섭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당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심한 일이다.(발야구 타자를 할 때의 상황, [그림 29] 참고)’와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그림 29] <다름 인정하기> 그림책

2)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아요.”

협동학습은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의존, 개별적 책무,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을 기본 원리로 하며(Kagan & Kagan, 2009), 교실 내 학생들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차를 수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지원적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또래 간의 긍정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학급 공동체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홍정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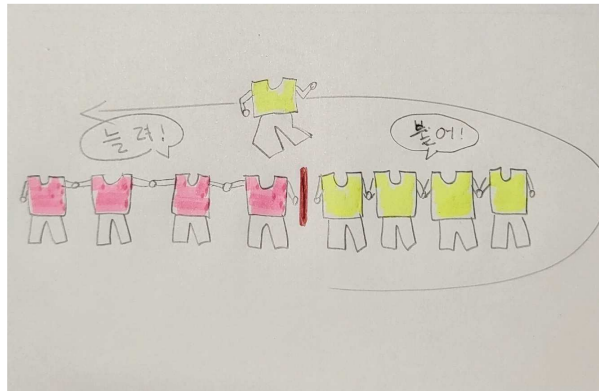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질적으로 구성된 모둠 안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해 수행하며 공동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체육 수업에서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입장을 고려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아래 학생들의 마음기록장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 역량**을 함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모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는데 힘들면서도 재미있었다. 계속 연습하다가 힘들면 물도 마시었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가장 진도가 빠르다고 하셨다. 노래가 짧아서인지 다른 모둠보다 빠르게 끝났다. **협동하는 것은 마음을 베풀어 준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오늘은 '고무고무 이어 달리기'를 했다. 두근거리면서도 긴장되었다. 난 우리 반 계주 선수니까 우리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막상 끝나고 나니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친구들에게 "애들아, 우리 진짜 너무 잘했다~"** 친구들은 "응응, 맞아" "잘했어" "진짜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끝났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연구자 : 마음기록장에 그린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윤개운 : 고무고무 이어 달리기 장면이에요. 자기 차례가 되면 한 바퀴를 돌면 되는데 우리 팀은 친구들끼리 고무고무 붙어서 짧게 돌고, 상대 팀은 친구들끼리 고무고무 늘려서 크게 돌아요.

연구자 : 그 활동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윤개운 : 달리다가 두근이가 넘어진 거랑 끝나고 친구들이 잘했다고 서로 칭찬해준 게 기억에 남아요.

연구자 : 친구들이 어떤 점을 서로 칭찬했나요?

윤개운 : 함께 협동하여 잘 끝내세요. 우리 팀 주자가 지나갈 때 “붙어!” 하면 재빠르게 다다닥 붙어주고, 상대 팀 주자가 지나갈 때 “늘려!” 하면 후다닥 벌려서... 안 뛰는 사람도 계속 움직여야 이길 수 있잖아요.

(윤개운 학생, 중도면담 中)

윤개운 학생은 사회정서역량이 높고 조용한 성격이며 신체활동보다 독서활동을 선호하는 남학생이다. 모둠활동에서 주로 리더 역할에 해당하는 ‘방향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긍정적인 사고와 밝은 모습으로 또래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다. 윤개운 학생이 포함된 모둠은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조정적인 협력을 잘 이끌어내어 학급 전체에 모범이 되었다. 이를 목격한 여러 학생들도 다른 모둠에서 갈등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활동의 승패보다 타인과의 관계 회복이 더욱 중요함을 인지하였다.

...(중략)... ‘우리 모둠이 왕이야!’라는 생각으로 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더 잘 되었고 안심이 되었다. 나의 생각보다 더 잘 돼서 자만만하게 끝났다. 정말 좋고 자랑스러웠던 경험이었다. 열심히 연습한 우리 모둠 친구들! 모두 고마워~ 수고했어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학생들은 신체활동 기반의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팀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다. 박준태, 이종목(2015)의 팀워크 중심 체육 프로그램 연구에서 체육수업에 참여하면서 팀원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과 유사하다. 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호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 소속감과 응집력 등을 키울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도움요청행동은 학생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자신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학습전략이다(최효선, 2002). 최근 체육수

업맥락에서 체육수업분위기(조홍식, 2011; 허진영, 2011)와 교수행동(남인수, 2015)과 학생들의 도움요청행동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자기효능감, 부정적인 경험 등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다. 도움 없이는 혼자 문제를 직면해야 하므로 꼼짝도 못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하는 능력**이 신장되었다. 도움 요청자의 올바른 역할은 잘 모르고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 요청하여 수동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수업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도움 제공자도 역할이 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든 도움 요청자가 될 수도, 도움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여유가 없다면 도움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고, 여유가 있다면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웰빙 즉,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라는 높은 심리적 만족감에 기여한다.

기존에 학생들은 남을 돕는 것이 좋은 행동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회피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도와주었다. 예를 들면 타인을 무시하거나 잘난 체 하는 모습으로 도와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우월감으로 드러났고,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열등감을 느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학습 활동과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잘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움요청행동과 도움 제공자가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전행복 :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리 양보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나도 어린이라 약자인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 아, 그래? 아마 행복이가 몸이 지쳐서 앉아있고 싶은 마음에 양보할 여유

가 없었던 건가 보다. 그런데 지금은?

전행복 : 아니 그때도 양보하는 건 좋다는 건 아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지금은 서로 도우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연구자 :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전행복 : 그니까 내가 누구를 도우면 그 친구가 그게 고마우니까 다음에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주고... 저번에 체육할 때, 발야구 했을 때 제가 차는 사람 잘 못 하니까 □□이가 옆에서 '저쪽으로 차라, 누구 쪽으로. 발등으로 올려 차라.' 이렇게 막 알려줘서 저도 □□이 미술할 때 준비물 빌려주고 정리할 때도 □□이는 다 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고마운 마음 때문에 나도 개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전행복 학생, 사후면담 中)

연구자 : 담임 선생님께서 사랑이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고 그러시던데, 친구들을 도와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사람 : 어... 얼른 여러 친구를 도와줘서 함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하면 더 좋잖아요.

연구자 : 그렇군요. 언제부터 친구들을 잘 도와주게 되었나요?

이사람 : 제 할 일을 다 끝나고 나면 그 전에는 선생님한테 "다했으면 뭐해요?" 질문했는데요. 이제는 "친구들 도와줘도 돼요?" 허락 받고 친구를 도와줘요.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는 방법을 수업해주시고 나서부터요.

연구자 : 그럼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나요?

이사람 : 그럴 때도 있긴 한데 제가 도와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끝낼 때가 더 많아서...

(이사람 학생, 중도면담 中)

이사람 학생의 남을 돕는 행동은 개인적 차원의 봉사와 행복을 넘어 모둠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 다르고 배우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친구에게 정중히 도움을 요청하고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친구들이 주는 도움을 고맷게 받아들였다. 학생들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공동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학생들이 나아가며 마주할 다양한 사람들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였다.

3) “돌아보며 갈등을 해결해요.”

학생들은 대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 갈등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을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갈등의 결말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심각하면 관계를 단절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갈등을 마주했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며, 더 나아가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본 연구자는 사전면담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과 다수결이나 가위바위보, 차례차례(나 한 번, 너 한 번)의 방법에 따라 해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모둠, 팀, 학급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경험하여 협력적 소통과 동시에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해결하는지 알아보았다. 학급 전반적으로 **갈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시간을 갖고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성원 모두와 협의하였으며 공동 규칙을 정해 갈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포함한 상황을 민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였다. 만약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우선순위를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쉬는 시간이나 하교할 때 혹은 며칠 후에 갈등이 있었던 친구와 대화로 해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연구자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갈등이 있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백기쁨 : 네. 저희 모둠에서 약간 자신의 기분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랑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삐질 때도 있어요.

연구자 : 그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였나요?

백기쁨 : 나랑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가 너 말을 들어보고 한 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걸 하고 다음 번에는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렇게 하면 대화나 과제 같은 게 잘 해결됐나요?

백기쁨 : 해결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생각이 안 맞거나 정반대인 친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재밌게 한 번 활동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노력합니다.

연구자 : 그렇군요. 모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백기쁨 :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사회정서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잘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감정도 더 표현을 열심히 해보고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리더십 있는 사람이 상의가 안 될 때는 그거를 잘 풀어줘요.

(백기쁨 학생, 사후면담 中)

연구자 : 체육 시간을 내가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세 가지만 말해볼까요?

이뿌듯 : 첫 번째는 친구들과의 갈등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요.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내 의견은 어떨어떨하다 보니까 합쳐가지고 우리 모두가 좋은 의견으로. 두 번째는 친구들이랑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기랑 세 번째는 다 같이 행복하게, 활기차게 활동해야 해요.

(이뿌듯 학생, 사후면담 中)

기존에 학생들이 갈등 조정, 해결의 중재자로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일관된 방식으로 해결을 돕는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답해보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다. 질문의 예시는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자발적 책임 갖기)’,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성장의 기회로 삼기)’,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재발 방지 노력하기)’ 등이다. 이러한 질문들이 갈등 당사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며 갈등해결 과정에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돕는다.

연구자 :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학년 초에 비해 아이들의 사회정서역량이 함양되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오열심 : 네, 많이 느껴져요.

연구자 : 어떤 부분에서 특히 많이 느껴지셨나요?

오열심 : 처음 1학기에는 아이들이 갈등 상황도 좀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남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과하는 방법도 잘 몰라 대충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특히 아이들이 서로 '이 친구는 이런 성격이야'라고 많이 대인관계적으로 가까워지면서 학급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죠.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도 좀 줄어들었고 사과할 때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서 화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사회정서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오열심 교사, 사후면담 中)

연구자 : 3학년에서 실시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함양된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최진심 : 저는 사회정서역량이 함양되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운영으로 체육수업 시간이 즐겁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체육을 통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또 체육시간 후 불평, 불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최진심 교사, 사후면담 中)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학년 초와 비교했을 때 학급관리가 수월해지고 한결 편안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수업시간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학생들 스스로 조절하고 제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수업의 즐거움이 배가되었다. 또한 체육수업이 끝난 후 수업성찰시간에 나누었던 대화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의 입 밖으로 나오으로써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했던 말과 행동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아이들끼리 서로 미러링을 해주며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 : 어떤 점에서 사회정서역량이 성장했다고 느껴요?

김호감 : 친구들이랑 다툼을 거의 안 해요.

연구자 : 네. 3학년 초에는 다툼이 잦은 편이었어요?

김호감 : 엄청 엄청 많이 다투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줄어들었어요.

연구자 :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김호감 : 친구들이랑 사귀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그 친구가 저를 존중해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하다 보니까...

(김호감 학생, 사후면담 中)

위 면담을 통해 학생들 개인적 차원에서 행동적 변화가 나타나자 관계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은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하기’, ‘다름을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하기’,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와 같은 사회정서적 기술을 익혀야 하였다.

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사회정서학습은 학교에 대한 태도, 학교에서의 행동, 학업 수행 등 학생들의 발달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errell & Gueldner, 2011). 초등학생 시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이수재, 채진영, 2015).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과 대인 관계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학생들은 약 950시간(하루 평균 5시간×수업일수 최소 190일)을 함께 보내는 학급 공동체에 대한 변화도 발견하였다. 학생들은 학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반’, ‘우리 모둠’, ‘우리 팀’에서 하나 됨을 느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조영달 외, 2011). 또한 학급에서 학교 전체로, 그리고 또 가정으로 전이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가족 같은 우리 학급이 좋아졌어요.”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적인 분위기, 고마움 표현하기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였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우리 교실이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느끼게 되었고 교실 안에서 개개인이 공동체에 동화되기도, 공동체를 형성해 가기도 하며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이 되었던 3학년 각 학급에는 특별한 아이, (담임교사가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2~3명씩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폭압적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교사의 강압적 권위나 힘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적 압력’이다(정진, 2016). 학급 전체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분위기, 다정한 말과 행동의 문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형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거쳤다. 아래 마음기록장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인식과 대인 관계 기술 역량을 함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점보스택스 쟁탈전 게임을 했다. 처음에는 가위바위보를 질까봐 긴장도 했고 점보스택스를 쌓을 때 실수도 하긴 했다. 같이 응원해주던 팀들 덕분에 안심이 되고 떨리지 않았다. 다 모두 실수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다.

(학생 체육수업일지[마음기록장]에서 발췌)



연구자 : 마음기록장에 그린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양다행 : 달려와서 지킴이와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기면 점보스택스를 하나 가져갈 수 있고, 지면 그냥 돌아가서 점보스택스를 다 가져가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연구자 : 그림에 “괜찮아~”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양다행 : 제가 지킴이를 했을 때 점보스택스를 금방 뺏길까봐 좀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해줘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연구자 : 아, 그 말을 들으니깐 안심이 되었다는 말이군요. 다행이도 다른 친구가 지킴이를 할 때 그렇게 말해주었나요?

양다행 : 네, 네. 우리 반 친구들이 착해서 진짜 좋아요.

(양다행 학생, 사후면담 中)

또한 **학급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매달 진행되는 학급 평화 회의에서 체육수업에서 했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언급되었으며 학생들은 공동체를 위해 좋은 의견을 내거나 개인적인 편의를 양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연구자 : 3학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서 사회정서역량이 성장한 것 같나요?

신든든 :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성장했다고 느껴져요?

신든든 : 3학년 초에는 친구들이 다투면 제가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뭔가 간섭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누가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조절해주려고 해요.

(신든든 학생, 사후면담 中)

위 면담을 보면 신든든 학생은 기존에는 학급 공동체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였으나 2학기 학급 회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난 이후부터는 학급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래 조절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신든든 학생은 유순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은 말을 아끼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3학년 초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발현되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듣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양쪽 입장을 모두 경청하고 평화적으로 화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급 회장이라는 직책에 맞는 역할행동과 사회정서역량의 함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2) “앞으로도 다짐하고 실천할 거예요.”

초등학생은 하루 평균 350개의 선택을 한다. 아침부터 몇 시에 기상할지, 식사를 먹을지 말지, 학교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교실에 와서 책을 읽을지 친구와 이야기를 할지 등 셀 수 없이 많은 고민과 선택이 시시각각 이루어진다. 선택들 중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택도 있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경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실에서의 매 선택이 그들의 삶에서 많은 중요성을 가진다. 다짐하고 실천하는 행동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택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성장에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해 줄 것이다. 학생들이 연습한 사회정서역량들이 학교에서의 학습에서 **삶으로서의 실천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체육 시간에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 저도 짜증내지 않고 인정한다. 저도 재미있게 한다. 감정조절을 한다.
- ✓ 안전하게 활동한다. 차례를 지킨다. 장난을 치지 않는다.
- ✓ 모둠 활동에 협조한다. 협동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 ✓ 친구를 친절하게 대한다. 배려한다. 칭찬한다.
- ✓ 참여하게 도와준다.
- ✓ 친구와 싸우지 않는다.
- ✓ 규칙을 잘 지킨다.

(학생 사후 설문조사 내용 中)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은 크게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개인적 차원으로 활동 참여 시 감정조절과 안전한 행동을 다짐하였다. 대인적 차원으로 모둠 활동에 협동하고 타인의 말을 경청할 것과 타인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차원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형성, 규칙 준수 등을 통해 체육시간에 자신의 사회정서역량을 꾸준히 길러갈 것임을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사회정서역량이 높은지, 낮은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학생의 특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연구자 : 편안이가 보기에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박편안 : 싸울 때에도 말로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 줘요.

연구자 : 또요?

박편안 : 체육 시간에 자기가 먼저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해요.

연구자 : 그렇군. 반대로 사회정서역량이 낮은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박편안 : 친구들한테 자꾸만 짜증을 내요.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자기는 못 던져 봤다고 공을 뺏기도 하고..

연구자 : 그 친구는 체육 시간에 어떤 태도로 참여하나요?

박편안 : 그냥 자기가 무조건 이기고 싶다고 욕심 부려요.

(박편안 학생, 중도면담 中)

연구자 : 사회정서역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통쾌 : 체육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줄을 섰을 때 상대팀 애가 자기 팀이 이겼다고 놀리고, 또 자꾸 누구 때문에 졌다고 비난해요.

연구자 : 아, 그래요? 또?

조통쾌 : 그리고 팀을 이렇게 뺏혔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달리기가 느린 친구가 들어오면 싫어하는 티를 내요.

연구자 : 그러면 자신의 사회정서역량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조통쾌 : 저는 5점 정도요.

연구자 : 그 이유는요?

조통쾌 : 저도 애들한테 좀 짜증을 내고 저의 마음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을 때도 많아서 5점이라고 했어요.

연구자 :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으니 안 좋은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신호 아닐까?

조통쾌 : 네, 감정조절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려고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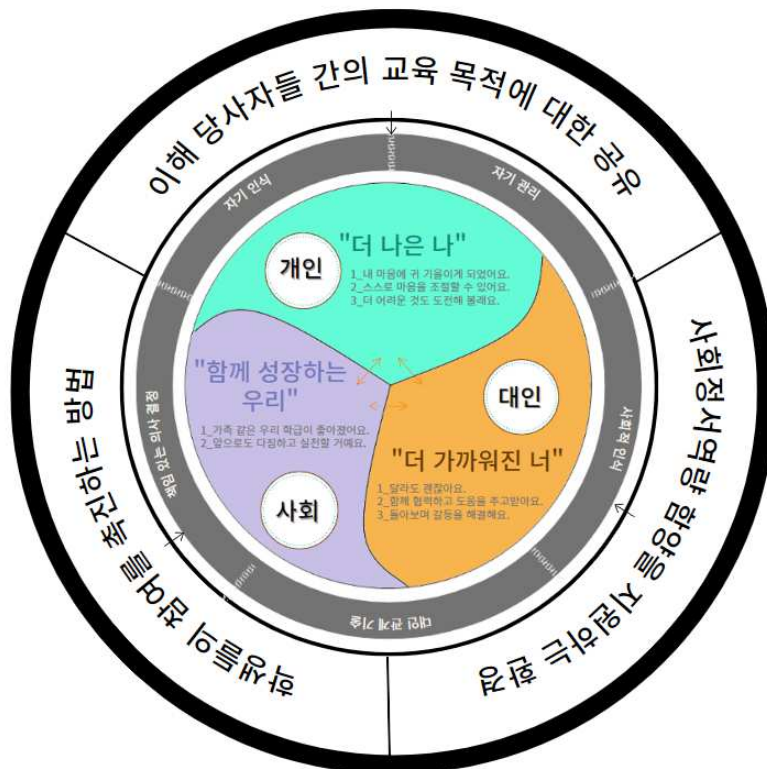
(조통쾌 학생, 중도면담 中)

조통쾌 학생은 체육교과를 굉장히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다. 충동성이 높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즉각 실행하는 경우가 잦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았다. 특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친구의 팔이

나 등을 때리거나 친구를 흘겨보는 모습이 관찰되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선된 말과 행동에 대한 교사의 정적 강화와 학생 자신의 실천 의지가 겹치며 사후면담에서는 자신과 친구의 감정을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다툼이 많이 줄어서 사회정서역량이 많이 자랐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ENTER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서역량의 함양이 눈덩이처럼 커져 확산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포한다.

3.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

본 연구는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더 나은 나(개인), 더 가까워진 너(대인), 함께 성장하는 우리(사회)를 느끼며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결과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과 연구자의 교사 성찰일지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해 당사자들(교사 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사회정서역량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에 대해 공유해야 하고,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반복 훈련·소통·모델링의 학습 방법을 통해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물리적, 사회·심리적 환경 속에서 ENTER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이를 [그림 30]과 같이 ENTER Wheel로 도식화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30] ENTER Wheel

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교육 목적에 대한 공유

1)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 간 협력

기존의 ‘인성교육’이라는 단어에는 친숙하지만 ‘사회정서학습’과 ‘사회정서역량’에 낯섬을 느끼는 교사에게 프로그램의 목표와 의도를 안내하였고 교사들은 크게 동의를 표하였다. 사회정서역량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 있게 결정하는 삶의 기술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사회정서역량은 한 번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교과학습과 생활지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익혀 사회정서역량이 일상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체육 교과와의 역량을 파악하고, 학습 목표와 중점 사회정서학습 하위 역량을 정하여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정서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습은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 체육관, 운동장, 화장실 등 학교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가며 자신의 것이 된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를 모두 **담임교사**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자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초심 :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 그렇게 생각하시는 까닭이 있을까요?

장초심 :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라는 사회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정서역량을 신장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도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장초심 : 저는 아이들과 감정 관련된 책을 읽고 감정 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꾸준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또래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강점과 장점을 인식할 수 있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

리고 다양한 교실 놀이나 보드 게임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대인관계를 발달시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도 일관되게 감정 조절과 친구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가 중요하다고 지도하고요.

(장초심 교사, 사후면담 中)

장초심 교사는 저경력 교사임에도 초등학생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체육 교과 외에도 다양한 교과와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습을 꾸준히 하였다. 장 교사는 학기 초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나 친구 간 의사소통 방법이 원활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감정 언어를 익히고 다른 사람과의 또래 활동을 늘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생활지도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교실 안에 학생 개개인의 감정 조절 방법을 게시하고 감정 체크판, 마음 조절 포스터나 평화 해결법 단계 등을 게시하였으며, 생활지도를 할 때 이를 손가락이나 눈짓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신호를 주기도 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주변의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알며 갈등 상황이 학생들 간의 대화로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실천하고 성공했던 경험이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있어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학급 규칙과 사회적 기술을 설명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체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체육시간에 성공을 경험하고 학습 목표를 달성한 모듬은 아이들과 더욱 원만하게 관계를 이루었고 긍정적인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활동의 성공이 **체육수업 이후까지 이어져나가는 것을 보며, 수업 시간이 곧 생활지도의 핵심 시간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신체활동시간이 아이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의 장이자, 교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교사 성찰일지)

또한 연구자는 성찰일지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시간의 성공 경험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였고 나아가 체육수업 이후 모든 교과 수업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학생에게 체득되어 어떤 다른 이의 개입 없이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초등체육은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의 정착으로 교사 집단의 공유 지식이 점차적으로 팽창하고 있다(조기희, 2015; 최효근, 신기철, 2019; 이기림, 2020; 이은후, 2020).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육수업을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체육수업의 어려움은 크게 환경 요인, 학생 요인, 교사 요인, 수업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교사요인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진술했다(한상모, 2020). 특정 영역이나 종목에 대한 **교사의 기능 부족**에서 기인한 자신감 부족과 **실제 체육수업을 이끌어가는 데 부담스러움**에서 기인한 자신감 결여였다.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단계에서 동학년 교사들과의 협의회와 교사 면담을 통해서도 체육수업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체육수업을 운영할 때 선생님께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장초심 :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룹 피티 활동이랑 댄스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거랑 또 아이들 수업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체육에 있는 여러 종목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지금 3학년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능 지도가 필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배구를 한다거나 배드민턴의 스트로크를 배운다거나 할 때 그런 **기능 지도를 제가 뭔가 정말 운동선수처럼 하나하나 봐줄 수 있을 것인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초심 교사, 사후면담 中)

연구자 : 체육수업 운영에 있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진심 : 저는...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활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활동을 어려워할 때, 놀이 활동 전 기본 기능 익히는 것을 재미없어 할 때, 승패에 대한 과한 욕심으로 교우관계에 갈등 상황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 이야기만으로도 진이 빠지는 상황이네요.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진심 : 체육도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이 놀이로 생각하여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체육시간에 항상 재미있는 것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과한 승부욕을 드러내잖아요.

연구자 : 체육수업 중 선생님께서 자신 있는 것과 자신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진심 : 자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가장 자신 없는 것은 표현활동 영역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부분이요.

(최진심 교사, 사후면담 中)

학생들 간의 갈등 발생 시 흥분한 상태에서 공격성(폭언, 폭력, 물체 파손 등)으로 드러나 체육수업에 방해가 되어 수업 시간이 지체되고 교사도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갈등을 조정해주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체육수업 기피의 원인이 되었다.

연구자 : 체육수업을 지도하실 때 힘든 점이 있다고 평상시에 토로해오셨는데요. 선생님께 제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오열심 : 아무래도 체육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흥분을 하고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좀 제어해주어야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절해주는 과정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 :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오열심 : 저희 반에서 가장 신체능력이 좋은 학생인데 그날은 운적인 요소가 있었던 게임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나는 하기 싫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러는 순간 아예 팀 대결이 무너지더라고요, 개가 한 명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애를 달래는 게 먼저일까 아니면 나머지 애들을 계속 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게 먼저일까 갑자기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기억에 남네요.

(오열심 교사, 사후면담 中)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극복이 가능하다. 교사는 체육수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학급 운영과 직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확신을 갖고 주도자가 되는 체육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교사는 전 교과를 가르쳐야 하지만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도 그 중 하나일 뿐이고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기능 측면의 시범은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학생들 중 기능이 뛰어난 학생이 보여줄 수도 있으며 학

교 사정에 따라 스포츠강사가 본연의 도입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다.

또 체육시간의 갈등을 마주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중요한 순간임을 알아차리고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체육 교육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좋은 수단(고문수, 최덕목, 2009)이다.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사회정서역량을 몸소 실천해볼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교과와도 연계하여 사회 정서학습을 실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은 더욱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조절하며 사회적 기술을 익혀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 :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나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진심 : 학기 초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업 도입부에서 오늘 중점을 두어 지켜야 할 역량에 대해 안내하는 일과 수업 마무리에서 스스로 체육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을 생략하지 않고 매 시간 루틴화 되어야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분이 짧지만 항상 습관처럼요.

연구자 : 본 프로그램이 다른 학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진심 : 네. 체육 교과를 처음 접하는 3학년에게 매우 효과적이었고 학기 초부터 일관성을 갖고 지도한다면 고학년에 적용되어도 사회정서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을 생각돼요.

연구자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진심 : 도덕 시간이 인성교육을 위한 개념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치면, 체육 시간은 실천하는 방법을 직접 익힐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학년에도 사회정서역량을 키우는 것은 꼭 필요하잖아요.

(최진심 교사, 사후면담 中)

교사들은 **체육수업 협의회**를 진행하여 체육수업 계획과 운영, 각 학급의 사회정서학습 지도 사례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업 루틴을 탄탄히 하고, 체육시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 방법을 토의하며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하고 체육수업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통된 교사들의 체육수업 실천은 학생들이 체육이 노는 시간이 아닌 배움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이후 학년의 학습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교사·학생·학부모의 합의된 목표의 공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정규 수업 시간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에 별도의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김현지 외, 2018).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서학습과 교과를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사회정서역량 함양이라는 목표로 체육 중심의 모든 교과학습과 생활지도를 연계하고자 의도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단어로 학생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은 3학년 초부터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익히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사회정서 하위역량 다섯 가지를 명시적으로 학습하였다. 아래는 체육수업에서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매 차시 학습 내용과 관련지어 목표를 제시하였고, 수업 정리 단계에서 도달 정도를 확인하였다.

- 자기 인식 역량: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내면의 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 자기 관리 역량: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
- 사회적 인식 역량: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
- 대인 관계 기술 역량: 자기주장과 설득을 발휘하고 의사소통하며 협력하는 능력
-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성찰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경험이 지속되어

학생들은 사회정서역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지하고 있었고 학생들 간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학생, 낮은 학생의 특징을 관찰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 기술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지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담에서도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학생들 간의 대화에서도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서로 합의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는 꼭 필요하다. 대부분의 3학년 학생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상의 1/3을 학교(정규 교육과정)에서, 1/3을 교외(방과후학교, 학원, 놀이터 등)에서, 1/3을 가정에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만큼 가족, 특히 부모는 학생의 정서와 행동 특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주체이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정서학습은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인 환경 전반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1학기 초 학부모총회를 통하여 사회정서역량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가정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급에서 중시하는 교육 목표에 학부모가 동의하였고 가정에서 학생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때부터 학부모는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을 위해 **함께 연결된 공동체 구성원임을 신뢰하고 협조하기** 시작하였다.

교실에는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 중에는 학교 안에서의 노력만으로 사회정서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 반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충분한 역량을 함양할 수 없는 아이가 있다. 또래 친구들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성공의 경험을 혼자 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협동보다는 갈등에 익숙해 보인다. 어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필요조건인 듯하다. 사회정서학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정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다른 아이들보다 성공의 기준을 낮추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연구자는 사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성찰일지를 통해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동학년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정과의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먼저 학급 SNS를 통해 월 1회 학부모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해보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아버지는 지금 자녀의 나이였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었나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고마운 일 10가지를 떠올려 봅시다.’ 등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한 마음기록장이나 배움 공책을 월 1회 가정으로 보내 피드백을 작성해오도록 하였다. 피드백은 학생의 성장을 찾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전에 함께 공책을 살피며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의 다양한 글쓰기 주제에도 가족에 관한 내용을 넣어 의도적으로 소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로부터 학생에 대한 특성 정보를 공유 받고, 교사는 사회정서역량에 초점 맞춘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공유하며 상부상조하였다.

오열심 : 우리 반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첫째인데, 욕심 질투 같은 게 좀 과하게 있어서 둘째와 갈등이 잦았는데 학부모님은 첫째를 혼낼 때가 많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연구자 : 아, 안 좋은 상황이네요.

오열심 : 근데 애가 교실에서도 갈등이 잦거든요. 제가 보기에 질투심이 많아 보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으면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퉁퉁 대면서 말하고, 세상 다 부정적이게.

연구자 :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나요?

오열심 : **선생님이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잘 아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아이 마음을 다독이면서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냐고.

연구자 :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주셨나요?

오열심 : 학교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지도한다고 얘기하면서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할 줄 아는 아이니까 아이와 어떤 마음이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거기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주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질

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건 자기도 잘 하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었다는 거니까 그 좋은 의욕은 칭찬해주되 표현 방식이 좀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뭐 이런 부분을 아이와 이야기해보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감사하다면서 끊었었죠.

(오열심 교사, 사후면담 中)

가정으로 보내는 글쓰기를 하고 나면 아침부터 학생들은 왈차지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느라 활발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받아오는 피드백에도 자녀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학생들이 직접 읽으며 그 다음의 내용을 작성할 때는 더욱 정성스럽게 잘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가정과의 연계가 다시 학교생활에 활력을 가져다주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함양되었고, 이후 학년이 종료될 때 학부모들은 가정 분위기 역시 지지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학급 담임교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에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반복 훈련, 다양한 소통,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첫째, 반복은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통은 학생들 간 협력 활동을 기본으로 삼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 방식을 안내하는 것이다. 셋째, 모델링은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교사나 또래학생을 모범으로 대리 경험 즉, 모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여러 번 반복 훈련하기

인성은 사람 됨됨이로서 하나의 정적인 속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계발, 발현되어야 하는 하나의 역량이다(조혜경, 2021). 학생

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고 변화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늘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체육수업에서 강조한 사회정서역량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교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며 회피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반복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근접해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체육시간 중 사회정서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모방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이 적합하다. 우리 반의 △△는 사회정서역량이 아직 부족하여 학기 내내 갈등이 많았다. 특히 체육시간에는 아이들의 원성을 자주 듣곤 했다.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동안 △△에게 가장 쉬운 역할을 부여하였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모듬 내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그 중에는 △△는 모듬원들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교과 수업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 소감 말하기 시간에 △△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년 동안 체육시간이 사회정서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가시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사 성찰일지)

연구자 : 사회정서역량 함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오열심 : 당연히 있죠. 한 번에 술술 잘 될 리가 없죠.

연구자 :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오열심 : 근데 하루로 끝이 아니니까 저도 마음을 다잡고요.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1년간 함께 지내는 사이야. 계속 될 때까지, 나아질 때까지 가르쳐주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죠 뭐. 하나 일화로 우리 반 의욕이가 피구를 하다가 자기는 공에 안 맞았는데 아웃이라고 했다고 엄청 화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고 계속 수업을 하다 중간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연구자 : 헉 어디 간 거예요?

오열심 : 수업 끝나고도 안 와서 다음 시간에 아이들 활동하게 시켜놓고 한참 찾아보니까 1층 남자 화장실 칸 안에 문이 잠겨 있는 걸 발견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로 돌아와서 남학생 2명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데려와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개네가 출동했어요. 둘이 가서 불러는데도 대답이 없어서 아래로 슬쩍 확인했더니 의욕이 실내화가 맞대

요. 그러더니 들어서 “그럼 네가 감정조절을 잘 하고 교실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교시 수업 재미있는 거야.” 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후에 보니 거기 문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 맞더라고요. 후에 교실 와서 다시 저랑 잘 이야기하고, 하교할 때는 신나게 갔어요(웃음).

(오열심 교사, 사후면담 中)

사회정서학습이 목표로 하는 태도 변화, 인성, 감정은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수업 후 ‘앞으로 잘 해야지’라고 다짐해도 수업이 끝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행동패턴을 반복하게 된다.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 사회정서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꾸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Devaney, E. et al., 2006)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있지 않다. 매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때 학급 구성원이 분반제도를 통해 새로 구성되고 담임교사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과학습과 생활 전반에 걸쳐 반복 실시함으로써 사회정서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 다양하게 소통하기

본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소집단 협력 활동을 통해 학생들 간 소통을 의도적으로 증진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이 맺고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학교 체육은 대부분 소규모 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해 학습자의 공동체적 사고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호철, 2015). 학생들은 [표 27]과 같이 협동학습의 5가지 요소가 반영된 소집단 협력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정서역량을 증진할 수 있었다. 협동학습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김명수, 2004; 김종석, 이대형, 2014; 박창범, 박대권, 김영식, 2016; Slavin, 1996)에서도 협동과 타인 존중,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가 함양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표 27] 체육 협동학습의 5가지 요소 (Dyson & Casey, 2016)

긍정적인 상호의존 (Positive interdependence)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함을 아는 것
면대면 상호작용 (Promotive face-to-face interaction)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 간 서로 긍정적인 의견 제공, 격려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
개별적 책무성 (Individual accountability)	그룹을 위해 자신의 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감을 갖는 것
대인관계 기술 (Interpersonal and small-group skills)	경청하기, 의사결정 공유하기, 책임지기, 피드백 주고받기, 서로 격려하고 이끌기 등 편안하고 여유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
집단 과정 (Group processing)	협동학습 과정에 대한 학생 중심의 반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연구자 : 체육 교과가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지요?

장초심 : 많이 동의해요.

연구자 :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초심 : 이유는 체육 교과의 특성상 자발적이든 억지로든 상호작용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체육에서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경쟁 요소나 협동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 규칙을 잘 지킨다거나 배려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초심 교사, 사후면담 中)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육에 거의 목숨을 건다. 미세먼지나 우천, 긴급 상황 등의 이유로 갑자기 체육수업이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 아침부터 불멘소리를 마구 해댄다. 그 와중에 체육수업이 없어지면 기뻐하던 ○○이가 이제는 “오늘 운동장 체육인데 비 온다”며 아쉬운 소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기는 그런 거 처음 해본다고, 하기 싫다던 아이가 처음이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재미있다고 달라졌다. 모둠원들이 약 1달간 모둠 이름, 역할, 구호 등을 의논하여 정하고 모둠 깃발을 만들며 체육을 포함한 모든 교과 시간에 협력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모둠원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고 서로 믿고 격려하고 각자 잘하는 걸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가 돋보여서 한층 성장했다고 느껴졌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그리고 또 같이 부딪히며 단단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다.

초등학생들은 신체 움직임 욕구가 강하고 관계 지향적인 특징이 있다. 체육시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과제를 완수해 나가며 소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운동기능 부족,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 등으로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신체활동 기피 경향이 있었던 학생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학생들은 소집단 협력 체육활동에 익숙해지며 모둠원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각자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며 자존감을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려는 태도가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동학습을 촉진하는 모둠 구성 방식과 학생 편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대한 이질적이고 성비가 고르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각 학급의 운영 방식에 따라 1~2달 주기로 소집단을 변경하였는데 교사들은 모둠 편성이 성공적이었다고 한 적도, 모둠 편성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한 적도 있었다.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은 ‘좋은 건 취하고(배워서 습득함), 안 좋은 건 버리도록(분별하고 행하지 아니함)’ 배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사는 학기 초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업적·사회정서적 특징과 또래 관계망을 파악하여 소집단 협력 활동을 위한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 갈등이 생긴 경우에도 바로 모듬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3학년 학생들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어 수준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말로 하는 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기, 여러 선택지 중 고르기, 표정이나 몸짓으로 소통하기, 다른 친구가 대신 말해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모듬 활동을 할 때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 말차레를 정하여 발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청하며 이를 글이나 그림으로 정리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초심 :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간 점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피드백도 하고 전략 회의도 하잖아요. 모둠전략판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체육수업을 하면서 의사결정하고 소통하는 역량도 키움과 동시에 경기 규칙과 기능들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연구자 : 프로그램 내에서 소통 측면으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장초심 : 좀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아이들이 마음기록장이나 중간 점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소통에 좀 익숙해졌다면 우리 반이 체육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학급회의를 통해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간만의 우리 학급 약속.

연구자 : 아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규칙을 정해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군요.

(장초심 교사, 사후면담 中)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선호하였다.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는 공감하고 반응하는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잘되는 팀일수록 대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수업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는 학급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조성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3) 교사나 또래를 모델링하기

사회정서학습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를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 또는 관찰학습으로 일컫는다.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특징의 행동(긍정적 행동)을 강화하여 증가시키고, 반대로 사회정서역량이 낮은 특징의 행동(부정적 행동)을 처벌하여 감소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교사, 또래 친구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찰하며 내면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림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 및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효능감과 타인과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

특히 또래가 보여주는 모델링 행동은 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은 사회정서역량이 높고 낮은 특징을 분별할 줄 아는 시각이 길러졌다. 그래서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 발생 시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또래 조정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다. 각 학급에서는 또래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조정자 역할을 할 학생을 충분한 토의를 통해 정하였다. 역할에 ‘또래천사, 천사친구, 조정자’와 같은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 간 해결이 가능한 수준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말로써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고 서로 요구하는 바를 잘 들어주며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이를 갈등 당사자와 주변 학생들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공감, 갈등 해결의 행동 시연과 훈련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찰 시간을 통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이 조금 향상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기만족에 대한 엄격함의 기준이 다양하였고 메타인지 능력이 아직 부족한 편이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발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반성적 성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상대로 쉽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피드백을 주며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며 그것을 ‘성장한 자신’의 새로운 면으로 인식하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드러냈다. 본 프로그램에서 수업 정리 부분에 교사는 해당 차시의 중점 사회정서역량에 해당하는 행동의 예시를 언급하며 되돌아보기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고백하듯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연구자 : 체육수업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진심 : 저는 사회정서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 성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 반성과 성찰의 시간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최진심 : 그 시간은 아이들이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간에 규칙을 더 잘 지켰는지, 친구를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협동을 했는지,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 이런 거를 성찰하고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피드백을 줄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지 않아야겠다, 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자기 다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심 교사, 사후면담 中)

어떤 때는 아이들이 아직도 객관화가 안 됐구나 싶다가도, 어떤 때에는 어라? 싶은 순간이 있다. 하루 정도 지나니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고 와서 사과를 하는 아이, 모두 잊어버렸는데도 자신이 감정조절을 못하고 짜증을 냈다며 반성하는 아이. 매일 보고 있어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쑥쑥 자라주고 있었구나. 고마운 아이들.

(교사 성찰일지)

또한 체육수업 성찰일지인 마음기록장을 작성하며 학습 장면을 사진 찍듯 객관화하고 자신, 친구, 교사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며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해 갔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행위보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성찰하며 주도적으로 가꾸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하혁, 박대원(2020)은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찰일지를 활용하여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움직임 들여다보기' 경험은 본인 그리고 타인의 움직임을 되돌아보며 분석하는 과정이고, '움직임 발견하기' 경험은 자신만의 신체활동 지식의 구성 및 창출의 과정으로 고차원의 인지 경험이며, '감성 자극하기' 경험은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적 품성, 태도, 사회성 함양 등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성찰의 타당도, 신뢰도와는 별개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되돌아보며 감정과 행동에 초점 맞추어 생각해보는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이다.

다.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환경

사회정서학습은 긍정적 아동 발달 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을 지지하는 관계와 환경의 지원 속에서 사회·정서적 기술을 기르는 것에 초점 맞춘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영향을 준 프로그램의 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1) 물리적 환경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출석부와 자신만의 감정조절 방법 게시물, 평화 해결법 게시물 등을 교실 곳곳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감정조절을 지원하는 공간(zone)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사용 규칙도 정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제안으로 속상한 일을 작성하여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마음치유상자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31] 학생의 감정조절을 지원하는 공간과 교구

연구자 : 교실 환경에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나요?

오열심 : 저희 반은 학생들이 '평화존'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감정 조절을 위한 긍정적 타임아웃 공간으로 꾸민 곳입니다.** 마음이 속상하여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약 1분 정도 사용하기로 학생들이 규칙을 정했고요. 물론 뒤에 사용할 사람이 없고 자신의 감정조절이 안 되었으면 조금 더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 네, 또 학생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었나요?

오열심 : 자기 경험으로부터 감정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면서 좋아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물건을 두자고 했어요. 화분이나 인형, 색종이, 펜, 타이머를 놓기도 했고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사용하라고 빌려주기도 하였어요.

연구자 :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였나요?

오열심 : 처음 공간을 꾸몄을 때는 호기심에 많이 사용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좋게 보면 학생들이 감정조절을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거 같고(웃음). 그래도 어떤 학생이 좀 방해가 될 정도로 행동한다고 하면 “평화존에 가서 감정조절을 하고 오는 게 어때?” 이야기하는 걸 보니 환경이 꾸며져 있는 건 필요한 거 같아요.

(오열심 교사, 사후면담 中)

그리고 수업시간에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였다.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 경청과 말차례의 기본이 되는 토킹스틱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학생 간 소통을 촉진하는 보드게임, 체육 교구 등도 교실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중간놀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실의 게시물을 자주 확인하고 교구를 가지고 놀이를 실시하였다. 생활 속에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반복적으로 인지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준 물리적 환경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심리적 환경

학교는 학습과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는 공간이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매일 5~6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알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학생들은 자신에게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 존중으로 확장할 수 있다. 교사는 학급 전체에 발언권에 대한 개념, 경청을 위한 연습(예: 까마귀와 까치, 가라사대 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또래 관계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윈윈(win-win)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강조한다. 이는 언어를 통해 학습하기보다 비언어적·반언어적 소통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급 전체가 ‘밝은 표정, 고운 말씨’를 반복 연습, 실천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담임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처럼 체육 교과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온전히 키우기 위해 함께 생활하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이다(박미림, 이옥선, 2014).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교사의 언어와 행동, 생활 습관,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을 보고 간접적으로 습득하기도 한다. 사회정서학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도 높은 사회정서역량을 필요로 한다. 교사의 사회정서역량은 학급 공동체 의식이나 학급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고국영 외, 2015).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교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백기쁨 : 사회정서역량은 사회성이랑 감정 이런 걸 통틀어서... 약간 내 일상 뭐 자기 관리랑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연구자 :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해보면 사회정서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백기쁨 : 네,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만나면서 더 한결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 기쁨이의 사회정서역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백기쁨 : 선생님이에요.

연구자 : 어떤 부분에서?

백기쁨 : 선생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다.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도 내 마음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머릿속에 콕콕 박혀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떠올라요. 또 선생님은 되게 친절하시잖아요. 상냥한 말투랑 아이들을 사랑해주시는 마음을 닮고 싶어요. 저희 엄마도 선생님 되게 좋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선생님이 저희 공부도 잘 가르쳐주시고, 같이 놀아주셔서 너무 좋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백기쁨 학생, 사후면담 中)

위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높은 사회정서역량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하며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과학습에서 교사의 설명을 더 잘 경청하고 수업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체육교사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가 높을수록 수업 내용의 질적 변화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서은철 외, 2016)와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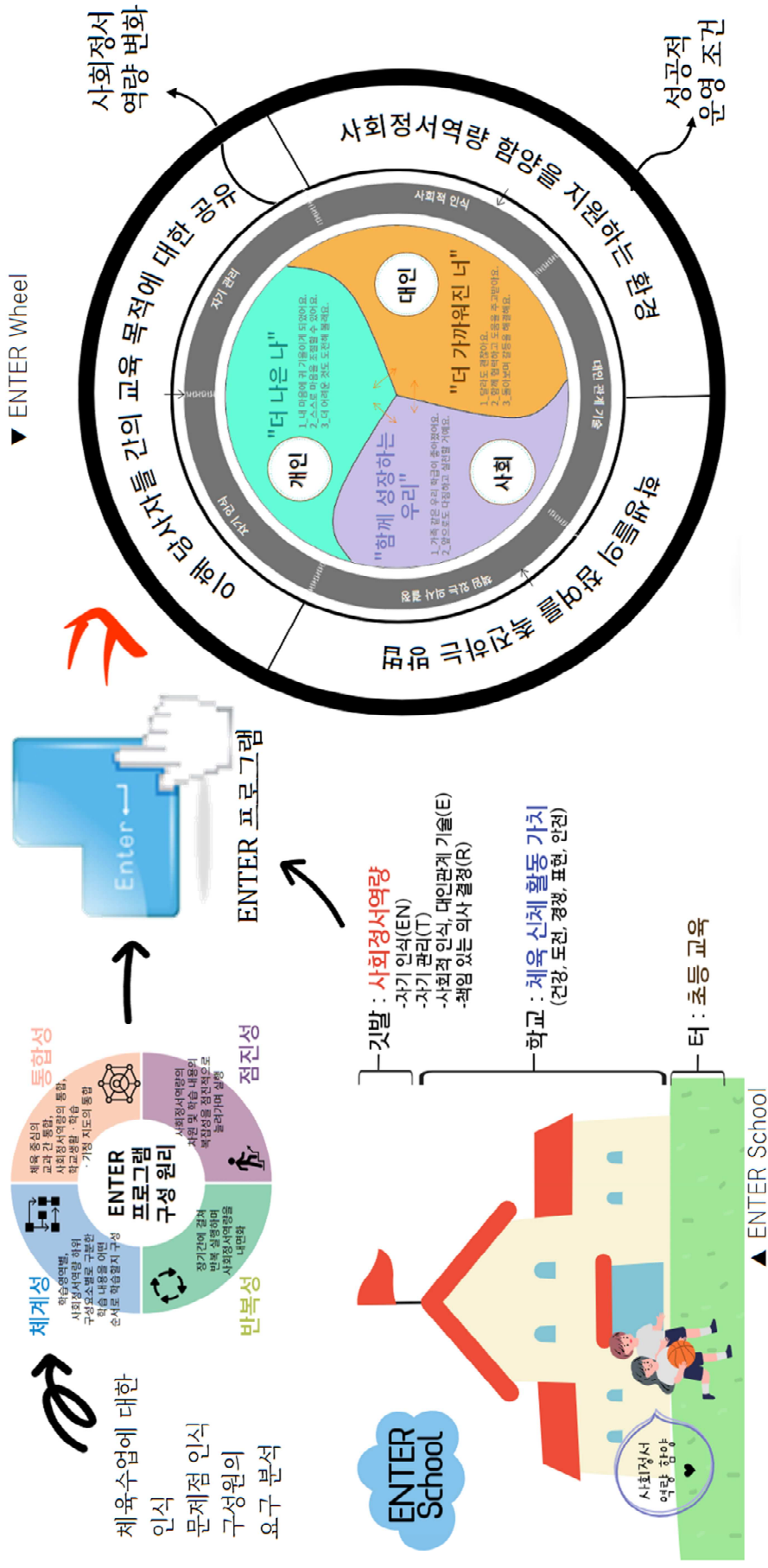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 보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한다. 교실에서의 유일한 어른은 교사이며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곤 한다. 체육시간에 탄지를 걸며 수업에 집중 못하는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주 말을 하곤 했다. 그 말들을 보고 아이들이 모둠활동을 할 때 그 아이에게 내가 했던 똑같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추후에 그 아이와 상담해보니 선생님한테 들을 때는 괜찮은데,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례를 가지고 다른 아이들에게 친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야겠다. 또 문제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함에 있어서 교사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교사 성찰일지)

교사도 학생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 등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사회정서학습 중 반복되는 **일련의 대화 패턴을 학생들이 체득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를 들어 다른 학생을 고자질하는 상황이면 ‘자신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니?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니?’, 친구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시간을 되돌려 그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니?’와 같은 대화이다. 학생들은 이를 여러 번 경험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수반될 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변화와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종합해보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학생들은 사회정서역량의 하위 요소인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개인적 차원, 대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함양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정서역량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을 공유하여 교사 간 협력, 교사·학생·학부모의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반복 훈련, 소통, 모델링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물리적, 사회·심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간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림 32] 초등학교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

4.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지 확인하였으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논의

체육에서 인성교육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인성을 신체활동 학습 과정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 기존에 초등 체육수업을 활용한 인성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에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체육의 신체활동 가치 중 특정 내용 요소를 선정하거나 20회차 이내의 단기간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García-Calvo et al., 2016; Holt, N. et al., 2012; Koh, Ong & Camiré, 2016; 송광섭 외, 2014; 고문수, 곽은창, 2015; 고상수, 신정택, 2016; 박장근 외, 2016; 조필환 외, 2018). 또, 체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Hellison, 2010; Richards & Gordon, 2017; 박대권 외, 2007; 신종필 외, 2009; Jacobs & Wright, 2018; 강지웅, 2016; 강지웅, 박용남, 2017; 최재영, 2019; Dyson, Howley & Wright, 2021; Durlack et al., 2011; 유생열, 2020 등). 인성교육이라는 맥락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초점과 방법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사회정서학습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ENTER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교육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논의

사회정서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김은정, 이상수, 2016). 첫 번째는 독립된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이 접근은 교과수업 외 따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일반 교과와 통합한 접근으로 정규 교과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따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독립된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효과성은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생활교육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략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교과수업(특히 체육)에서, 생활지도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20회차 이내의 단기간 체험식 또는 40~60차시의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프로그램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전체(연간 102차시)와 타 교과 연계 및 생활지도에 일관된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 및 조절, 협력적 소통,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육의 특정 영역 특히, 경쟁 영역을 주로 다룬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신체활동 가치를 모두 다루었다. 이에 교육과정에 적합하고 1년이라는 해당 학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걸쳐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사회정서역량의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체육뿐만 아니라 타 교과 학습, 생활지도와의 통합을 통해 가르쳐야 더욱 효과적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정서 표현 및 조절 능력, 공감 기술의 발달 등은 인성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고 반복적인 실생활 속에서의 연습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타난 ‘더 나은 나’, ‘더 가까워진 너’, ‘함께 성장하는

우리'는 사회정서역량이 개인적 차원, 대인 관계적 차원, 사회 공동체적 차원으로 구체화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는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순차적으로 함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정서 하위 역량인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5가지는 고난도, 고차원으로 나아가지만 사회정서역량이 통합적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를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과는 별개이다.

본 연구에서 ENTER 프로그램의 'enter'에 각각 사회, 정서, 학습의 의미를 담아 제시하였다. 첫째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둘째는 자기 자신의 정서와 인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셋째는 수업을 통한 연습에서 삶 속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다양한 신체활동과 더불어 중점 사회정서역량, 소집단 협력 활동, 중간 점검을 통한 의사소통 기회 증가, 성찰 시간, 마음기록장 작성 등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 속 감정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 방법을 익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후 학급 공동체의 서로 참여를 독려하고 지지하는 문화, 평화로운 분위기 형성뿐만 아니라 체육수업 외의 학교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서 체육 중심으로 교과 간 통합, 교과학습과 생활지도의 통합,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의 통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제시된 바와 같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맥이 같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22).

홍연중(2016)은 초등 여학생 체육수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 탐색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인식과 강점을 고려하여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체육수업을 구성하였다. 체육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국어과, 음악과와의 융합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백승현(2018)은 통합적 체력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건강소양 함양 과정 탐색 연구를 실행하였다.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그림,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서사적 체험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재영(2019)은 초등학생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 실행연구에서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을 구성하였다. 체육과를 중심으로 국어과, 미술과, 수학과 등과 연계하였다. 체육수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 교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업과 생활, 환경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김은희(2021)는 초등학생의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 실행 연구에서 체육과를 중심으로 국어과, 미술과, 사회과, 도덕과를 융합하는 체육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주제 기반 프로젝트 수업으로,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교과 간 통합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특히 도덕과, 국어과, 미술과와의 연계가 주로 이루어졌다. 전인교육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덕수업에서 인간의 감정과 사회문화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를 공통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어수업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말하기 방식,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 등을 익혔으며 체육수업 상황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여러 수업에서 체육시간 경험 사례를 학습 소재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경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경험이 되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장기간, 체육 중심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2)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ENTER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체육 교과를 처음 접하는 시기이다. 기존의 체육 관련 연구에서 학생들의 이전 체육수

업 참여 경험이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가 교육과정대로 수업을 실천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강한 반발과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며 이를 놀이체육의 폐해라고 보았다(한상모,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인정하여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성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준비 단계에서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배경지식과 요구를 파악하였을 때 ‘피구’에 관련된 응답이 다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축구 클럽, 태권도장 등과 같은 주변 체육 시설이나 언니/누나, 오빠/언니와 같은 인간관계로부터 간접 경험으로부터 피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피구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프로그램 초반, 체육 교과의 의미와 인지적·것임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신체활동 경험을 하였다. 프로그램 사후 설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신체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24명의 연구 참여 학생들이 서로 다른 14개의 활동을 선정하였다. 이는 이후 학생들이 진급하여 겪게 될 이후 체육수업 참여에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옥선(2013)은 초등체육 관련 연구가 연구의 용이성과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학년 학생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고, 상대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연구에서 잘 대변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사회정서역량에 대해 학생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단어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3학년 학생들은 프로그램 초반 소수의 감정 낱말만을 알고 있어 감정 표현에 있어 한정적이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 내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이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었으나 점차 감정 낱말 습득과 언어적 표현 사용이 증가하였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면담을 병행하였고, 학생의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선택지 중 고르기 (객관식), 참여관찰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저학년 대상 질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체육수업 다시 말해, 신체활동을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교과와 사회정서학습을 접목한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일반), 국어(동화), 도덕, 실과(농업 체험활동), 음악, 체육(마음 챙김 명상)이 있었다(이인재 외, 2010; 김은정 외, 2015; 성정민, 2017; 오윤아, 김대식, 2019; 이승현, 2019; 최미영, 2019; 권슬아 외, 2020).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성정민(2017)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정서학습 특히, 외국의 Strong kids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설문지를 통해 직접 해보기, 체험 방식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바뀌길 바라고 있었다. 본 연구는 체육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사회정서역량 기술을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겪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담임교사가 체육수업을 통해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실행연구에 해당한다. 체육과 교육과정 3~4학년군 각 영역의 신체활동 내용을 소재로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정서역량 기술을 체육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교과학습과 생활지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운동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자신 내면의 감정과 참여 태도에 집중하고 타자와 함께 하는 즐거움, 갈등 조정을 경험하였고 다양한 친구들을 보며 적절한 소통 방법, 리더십 등을 학습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 흥미 및 요구를 깊숙이 반영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통 방식과 협력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기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사회정서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인정하여 ‘아동을 위한, 아동과 함께 하는 연구(research for children & research with children)’(이옥선, 2013)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중심 인성교육에 관한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체육수업의 신체활동이 중심이 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이 함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이해당사자들 간 교육 목적의 공유,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신체활동 중심 인성교육이 어떠한 교육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천 중심형 인성교육**’으로서 **체육의 전인교육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최의창(2011)은 학교체육이 교과로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 단련만이 아니라, 정의적이고 인지적인 부분의 교육도 맡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체육 교과는 타 교과와 비교했을 때 신체활동 참여의 비중이 높아 심동적 영역 측면의 학습에 교과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과 함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통합적 교육이 가능한 전인교육에 유력한 교과로 볼 수 있다(하혁, 박대원, 2020). 그러나 단순히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전인교육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전략, 수업 모형 등을 사용해왔다(이기대, 2019).

인성교육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가법적인 입장)과 교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승법적인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는 인성교육이 배움의 모든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승법적인 입장을 지향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체육수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천 중심형 인성교육’이라고 본다. 신체활동이 지닌 고유의 특성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였다. 신체활동에 담겨있는 즐거움(Hartmann, 2003)은 학생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김은희(2021)의 체육중심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체육의 소집단 협력 활동 참여**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도승이(2015)는 사회정서발달이나 사회정서역량 증진과 연관한 기초연구를 활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신체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사회정서역량 향상의 기본 전제는 학생 개인의 사회·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집단 협력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소집단 협력 활동은 이질적 집단 구성을 기반으로 학생들 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는 동료 간의 이해와 공감에 기초한 협동과 협력 학습 기반의 수업 환경은 학생들의 동료애와 소속감을 통한 관계성 만족과 정서적 만족을 끌어낸다(Baumeister, Leary, 1995)는 연구와 협동과 협력의 상호지지적 역할을 기반으로 이해와 공감, 응원, 동료애 및 소속감 등과 같은 정서적 만족(최정호, 2018)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소집단 협력 활동 내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자신의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해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한다.

셋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확인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역량의 모델링이 되어 주었고, 학생들과 긍정

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수업상황에서 자신에게 제공되는 교사의 심리적, 물리적인 도움을 지각함으로써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인식한다(오중근, 2021).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사와 동료의 도움으로 배우는 사회적 과정을 경험하며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적, 정서적 학습 환경의 제공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국영 외, 2015; Zins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 중 하나는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회·심리적 환경 조성’이었다. 교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 표정, 말투까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체육과 사회정서학습 접목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역량 중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구성 및 실행하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성공적 운영 조건을 탐색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되는가? 둘째, 체육수업에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은 어떻게 함양되는가? 셋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은 무엇인가? 로 설정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과 교육과정 재구성으로써 통합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 연구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 동료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내용 수준에는 체계성, 통합성의 원리를, 방법 수준에는 반복성, 점진성의 원리가 구성 원리로 도출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ENTER’ 프로그램이다. 이는 사회정서 하위역량인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 만든 것이다. 동시에 enter(들어가다)의 의미를 담아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속으로 enter(사회), 자기 자신의 정서와 인지 속으로 enter(정서), 수업을 통한 연습에서 삶 속 실천으로 enter(학습)를 내포하고 있다. 체계성의 원리에 따라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영역별, 사회정서역량별로 구분하여 학습 내용과 순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 사회정서역량의 통합, 학교생활·학습·가정 지도의 통

합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반복성의 원리에 따라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반복 실행하며 사회정서역량을 내면화할 수 있게 하였고 점진성의 원리에 따라 사회정서역량의 차원 및 학습 내용의 복잡성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실행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체육수업에서 심동적·인지적·정의적 목표를 고루 달성하며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간 세부 수업 계획을 영역별 주제, 활동, 중점 사회정서역량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우천, 미세먼지 나쁨 등의 상황에도 대비하였다. 또한 매 차시 활동 순서를 조직화하여 루틴으로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체육수업이 소집단 협력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질적으로 구성된 체육모둠에는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였고 학생들은 이를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기르고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최의창, 2010). 수업의 도입부에 중점 사회정서역량을 제시하는 것, 전개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것,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성찰 시간을 갖고, 체육수업 성찰일지인 마음기록장을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정서학습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육수업, 타 교과 학습활동 및 생활지도를 꾸준히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정서역량의 완성본과 같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사회정서역량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CASEL, 2015),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타인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보여 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하위 역량이 모두 함양되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인, 대인, 사회적 차원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더 나은 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 내 중간 점검, 성찰 시간, 마음기록장 등을 통해 최소 70가지 이상의 감정 낱말과 상황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분류해 보며 더욱 정교하게 자기 인식 역량을 함양시켰다. 학생들의 마음기록

장과 면담에서 감정 낱말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감정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교사도 마음기록장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감정 조절이 요구되는 세 가지 상황을 관찰하였다. 너무 들떠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정도의 과한 행동, 수업에 흥미와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 승패에 과몰입하여 규칙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이들은 모두 짜증과 분노의 형태로 발현되었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잘못 표현될 경우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재빠르게 자각하고 충동성을 조절하여 더 나은 행동을 선택했다. 이는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자기 관리 역량이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회복탄력성이 많이 높아졌고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트레스나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강점을 알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인 관계적 차원의 ‘더 가까워진 너’에서 학생들은 달라도 같이 하면 다양해짐에 감탄하였다. 제각기 다른 개인적 특성들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험 속에서 또 다른 특별함으로 드러나는 일곱 빛깔 무지개 같았다.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적 인식 역량을 함양하였고, 같은 과제를 제시하여도 모둠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이루어내고 모두 다르지만 멋지게 완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체육수업의 다양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그림책을 완성하였다. 학생들은 함께 협력해가며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하였고, 협동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래 간의 긍정적 관계를 증진하였다. 이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대인관계 기술 역량이 함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활동의 승패보다 타인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함을 인지하고 상호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소

속감과 응집력이 향상되는 과정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잘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행하였다. 도움 요청과 제공은 올바른 태도가 요구됨을 인식하였고, 실천하며 대인관계 기술 역량이 함양되었다. 마치 은혜 갚은 까치처럼, 개인적 차원의 봉사와 행복을 넘어 모둠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공동체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되돌아보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 전 학생들은 갈등 발생 시 교사에게 도움 요청, 다수결이나 가위바위보, 차례차례의 방법에 따라 해결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다수 하였고 학급 전반적으로 갈등이 감소, 평화로운 체육시간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과 직결되며 교사는 일관된 방식으로 갈등 조정을 돕는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공동체적 차원의 '함께 성장하는 우리'에서 우리 학급, 우리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됨'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꼈고 가족적인 분위기, 고마움 표현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인식과 대인 관계 기술 역량이 함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습에서 다가올 삶 속에서도 다짐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학교에서의 연습 경험이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특징을 느끼며 자신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마음에 새겼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수업 ENTER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해당사자들 간 교육 목적에 대한 공유,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활용,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최우선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동료 교사 간, 교사-학생-학부모 간 사회정서역량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한다. 교사들은 학교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사회정서역량을 기르는 연습의 장이 됨을 인식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중 체육수업은 인성교육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체육수업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각 학급의 지도 사례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체육수업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교과학습과 생활지도에서 사회정서역량을 일관되게 지도하여 학생들도 그 의미를 진술할 수 있었고,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었다. 학부모는 교사를 학생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을 위해 함께 연결된 공동체 구성원임을 신뢰하고 협조하여야 프로그램이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학습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여러 번의 반복 학습과 훈련을 통해 프로그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비언어적, 반언어적인 표현과 더불어 글, 그림, 선택하기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안내하고 활용하였다. 소집단 협력 활동은 학생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둠 구성 방식과 학생 편성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더욱 효과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하여 학생들은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교사와 또래 친구를 모델링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였다. 학생들이 학습 장면을 사진 찍듯이 객관화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 동반되었다.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 중 마지막은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교실의 물리적 환경으로 게시물, 게시판, 공간, 교구 등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해당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다양한 감정, 감정 조절 방법, 평화적 문제 해결법, 갈등 조정 질문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또래 관계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급 분위기, 긍정적인 또래 관계, 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모델링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ENTER School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초등 교육이라는 터에서 체육 신체활동 가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서역량 함양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준비, 도출된 구성 원리를 적용하여 ENTER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서 하위 역량 다섯 가지가 개인, 대인, 사회적 차원에서 함양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여 ENTER Wheel로 도식화하였다.

2.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성공적 운영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의 현장 실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두고 실행한 본 연구는 체육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천적 내면화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전반에 체육과 사회정서학습을 접목하는 인성 체육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관리자(교장, 교감)·교사·학생·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고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세운다. 사회정서학습은 학교의 모든 활동을 모든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정한다.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은 도덕성 발달의 기초이므로 사회정서학습은 인성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김윤경, 2017). 사회정서역량은 장기간의 일관된 반복 연습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학교장의 허가 하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시하였으나 더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에 사회정서학습을 공표하고 전 학년에서 경험하며 학교 및 가정의 환경이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부모에게 개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신설하여 가정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둘째,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양정실 외(2013)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서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학습자 무관심의 이유 중 하나가 “수행 평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초등 16.5%)”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 점수를 수치화할 수 있었으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가 객관도가 떨어지므로 교사가 학생의 외면적 행동을 관찰하여 또래 집단 내에서 상, 중, 하 정도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사회정서역량 평가 도구와 방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다면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완점을 발견해 개선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체육도 인성평가 방안의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로그램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김남규, 김영범, 2013; 김윤희 외, 2015). 꾸준히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축적하여 학생의 학년, 성별에 따른 맞춤형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회정서학습의 추진을 위해 교사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조건 중 ‘사회·심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학급 분위기를 이끌어 가느냐에 많이 좌우되는 요소이다. 높은 사회정서역량을 갖춘 교사의 모델링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에 대한 지원과

양성을 위해 사회정서역량 사전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정서역량은 지식, 이해보다는 실천을 강조하여 기존의 인성 덕 개념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사 연수 역시 일반적인 강의식 연수가 아닌 심층적인 마음 살피기, 인간관계 변화를 꾀하는 활동 연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협의, 배움 나눔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교사는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순간들을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기회로 알아차리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정창우, 2013).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틀과 실행 과정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국내 사회정서학습 관련 연구들은 외국의 효과가 검증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예: 강한 아이 Strong Kids, 창의적인 갈등 해결 프로그램 The Resolving Conflicts Creatively Programs 등)을 적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초등 체육 맥락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하였다. 담임교사가 보통 1년 단위로 학급을 독립적으로 맡아 운영하며 전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서행동의 문제,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도 사회정서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한국 사회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 초등 체육에 확대 적용하여 각 학년별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며 학년별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프로세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밝은 미래는 첨단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 성장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가 공유되고 실천될 때 가능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타난 사회정서역량 함양이 일상생활로의 전이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학교 공간에서는 사회정서학습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임교사와 함께 생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과의 연계를 강조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학부모를 연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정환경은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데 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따라서 사회정서학습 운영 과정에서 부모교육, 부모의 인식 변화 등을 기반으로 다루는 연구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정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수준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김남임 외, 2021). 학생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난 사회정서역량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 저학년 질적 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설문지, 마음기록장(그림일기)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 학생 내면의 감정이나 행동, 태도 변화 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저학년 대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의 실행 효과를 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생활지도가 어려운 즉, 사회정서역량이 낮은 소수의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며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높은 사회정서역량 평가 도구의 개발과 함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변화의 지표로 삼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국영, 김은정, 이상수(2015). 초등교사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습자의 사회 정서역량, 공동체의식,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73, 219-239.
- 고문수, 최덕목(2009). 다문화교육에서 체육의 역할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7, 181-190.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2]. 세종: 교육부.
- 김남임, 마은희, 허계형(2021). 다층구조모델 기반 사회정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정에 나타난 부모와 유아의 변화 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21(3), 169-199.
- 김동일, 최선주, 심성용, 이재용, 라영안(2016). 인성중심 미래교육 디자인 과제와 전망. **아시아교육연구**, 17(1), 25-45.
- 김명수(2004). 초등학교 체육교과에서 협동적 수업구조 적용 사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2), 213-230.
- 김성곤, 임소진, 정현주(2006). 초등 체육수업에 있어서 협동학습 모형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스포츠리서치**, 17(4), 721-738.
- 김유숙, 허재경(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0(4), 483-495.
- 김윤경(2020). **사회정서학습 : 이론과 실제 : 학교 교육으로 튼튼한 마음 가르치기**. 경기: 다봄교육.
- 김종석, 이대형(2014). TGT 협동학습 구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경험.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1-12.
- 남인수(2015). 체육 수업에서 지각된 학습 환경이 중학생의 행동 활성화/억제 및 도움 요청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3), 155-168.
- 도승이(2015). 사회정서학습 측면에서 인성교육과 인성의 측정. **교육심리**

- 연구, 29(4), 719-735.
- 박미림, 이옥선(2014).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경쟁 활동영역의 연계성 탐색. **초등교육연구**, 27(1), 29-55.
- 박준태, 이종목(2015). 팀워크 중심 체육 프로그램(TOPPE)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정의적 변화 살펴보기. **한국초등교육**, 26(3), 39-55.
- 박창범, 박대권, 김영식(2016).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체육수업 방안. **통합교육과정연구**, 10(1), 169-193.
- 서울시교육청(2021, April 26). “생활 속 스포츠가치 실천’ 선언식”.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323840733>
- 서은철, 김은성, 송영순(2016). 중학생이 지각하는 체육수업 참여인식의 곤란도: Many-Facet Rasch 모형의 적용. **한국웰니스학회지**, 11(2), 257-268.
- 세종시교육청(2021, March 30). “세종시교육청, 초등학교 맞춤형 담임제도 시범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e_go_kr/222292384671
- 손경원(2019). 인성교육 역량 연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윤리연구**, 127, 249-286.
- 양경윤, 김미정(2021). **고마워 교실: 우리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 쌤앤파커스.
- 유생열(2020).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체육교과에서의 사회-정서 학습. **코칭능력개발지**, 22(4), 49-64.
- 윤진경, 임현주(2013). 창의·인성을 강조한 초등체육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적용.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4): 17-27
- 이기림(2020). 학교기반 교사학습공동체는 초등체육 전문성을 함양하는가? : 운영 양상, 특징 및 효과 탐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도흙(2020).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서울: 특별한서재.
- 이옥선(2013). 초등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4), 113-128.
- 이옥선(2013). 책임감 모형의 실행 양상 파악 및 실행 제고를 위한 모형의

- 개선 방향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1), 17-37.
- 이은후(2020). **초등교사의 체육 교사학습공동체 참여경험 및 배움유형 탐색 : '티처런 커뮤니티'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재, 지준호, 한성구, 손경원(2010).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도덕윤리과교육**, 31, 49-82.
- 이정택(2019).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공정한 규칙과 협력적 팀의 조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803-822.
- 이정택, 이기청(2020). 도덕교육으로서 체육교육: 초등교육에서 체육과의 역할확장 가능성과 의의.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5(4), 21-37.
- 이혜숙, 최인숙, 임신일(2011). 아동·청소년대상의 사회·정서발달프로그램 연구의 메타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69, 233-255.
- 이호철(2015).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체활동가치 함양을 위한 통합 체육교육과정의 실행 경험. **한국초등체육학회지**, 46, 105-122.
- 임명성(2020). 뉴 노멀 시대에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탐구. **경영교육연구**, 35(5), 59-75.
- 장용규, 이정택(2021). 초등체육의 인성함양 메커니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4), 19-32.
- 전세명(2010). **하나로 수업 모형을 통한 초등체육 교수-학습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2016).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운영 가이드북 : 회복적 학급운영에 관한 교사 플래너**. 파주: 피스빌딩.
- 정창우(2013). 사회정서학습의 이론 체계와 도덕교육적 함의. **도덕윤리과교육**, 38, 153-172.
- 조기희(2015). **체육수업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실천 과정과 효과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남기, 안현균, 신민혜, 서은철(2022). 체육교과에서의 스포츠 인성 설명 모형: 다층모형을 적용한 체육교사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7(3), 113-119.

- 조혜경(2021). 역량 중심 인성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양교육연구*, 15(2), 71-85.
- 조흥식(2011).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환경이 학생들의 도움요청 행동과 수업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0(6), 273-284.
- 최의창(2003). *스포츠교육학*. 서울: 무지개사.
- 최의창(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 통합적 체육수업의 이론과 실제*.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2011). 학교체육수업을 통한 정의적 영역의 교육: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 *체육과학연구*, 22(2), 2025-2041.
- 최효근, 신기철(2019). 초등학교 초임 체육 전담교사의 교사 학습 공동체 참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6(2), 69-89.
- 하혁, 박대원(2020). 고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성찰일지 활용을 통한 체육전 인교육의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1341-136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연구자료 ORM 2012-46.
- 한명선(2007). *스포츠교육모형의 여고생 체육수업 실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모(2020). 체육수업을 하는 초등교사들의 어려움과 교육적 요구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3), 59-80.
- 한상모(2022). 초등학생을 위한 신체활동에서의 사회정서적 역량 증진 방안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33(1), 13-32.
- 허진영(2011). 체육수업 분위기와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도움요청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3), 107-122.
- 홍정아(2013). *협동학습을 통한 사회정서학습이 통합학급 학생들의 정서지능, 또래지원 및 또래관계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ng, S. C., Penney, D., & Swabey, K. (2011). Pursu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outcomes through sport education: An

- Australian case study. In P. Hastie (Ed.), *Sport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16-132). London: Routledge.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 Albert Bandura.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ronfenbrenner, U. (1996).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lectronic resource]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 Urie Bronfenbrenn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lson, T. B. (1995). We hate gym: Student alienation from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4*, 467-477.
-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2019). *What i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Retrieved from <https://casel.org/what-is-sel/>
- Durlak, J.A., Weissberg, R.P., Dymnicki, A.B., Taylor, R.D. & Schellinger, K.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 82*, 405–432.
- Dyson, B., & Casey, A. (2012). *Cooperative learning in physical education*. Taylor & Francis.
- Dyson, B., Howley, D., & Shen, Y. (2020) 'Being a team, working together, and being kind': Primary students' perspectives of cooperative learning's contribution to their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26*(2), 1-18.
- Dyson, B., Howley, D., & Wright, P. (2021). A scoping review

critically examining research connec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ith three model-based practices in physical education: Have we been doing this all along?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27(1), 76-95.

- Gordon, B., Jacobs, J. M., & Wright, P. M. (2016).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through a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based after school program for disengaged middle-school boy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5(4), 358-369.
- Hellison, D. (2011).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physical activity* / Don Hellison. (Third ed.).
- Kagan, S. & Kagan, M. (2009). *Kagan cooperative learning*. San Clemente, CA: Kagan Publishing.
- Lane, K., Wehby, J., Little, M., & Cooley, C. (2005). Students Educated in Self-Contained Classrooms and Self-Contained Schools: Part II—How Do They Progress Over Time? *Behavioral Disorders*, 30(4), 363-374.
- Martinek, T., & Hellison, D. (2016).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87(5), 9-13.
- Merrell W. Kenneth & Gueldner Barbara A. (2011). **사회정서학습 : 정신건강과 학업적 성공의 증진** / 신현숙 옮김. 파주: 교육과학사.
- Park, D., Tsukayama, E., Goodwin, G., Patrick, S., & Duckworth, A. (2017). A tripartite taxonomy of character: Evidence for intrapersonal, interpersonal, and intellectual competencies in childre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48, 16-27.
- Pearson, Q., & Nicholson, J. (2000).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Strategies for

- Administrators, Teachers, and Counselors.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38(4), 243-251.
- Ryan K., & Lickona, T. (1992). *Character Development in Schools and beyond*. Washington, D.C. : Council for Research in Values and Philosophy
- SHAPE America – Society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ors. (2013). *National Standards for K-12 Physical Education*. Reston, VA: Author.
- Siedentop, D. (1994). *Sport Education: Quality physical education through positive sport experience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identop, D., Hastie, P.A., & van der Mars, H. (2020). *Complete guide to Sport Education* (3r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lavin, R. (1996). Research on Cooperative Learning and Achievement: What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1(1), 43-69.
- Slavin, R. (2010). Co-operative learning: What makes group-work work? *In The Na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p. 161-178). Paris: OECD Publishing.
- Smith, A., Ullrich-French, S., Walker II, E., & Hurley, K. (2006). Peer relationship profiles and motivation in youth spor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8(3), 362-382.
- Sutherland, S., Stuhr, P., & Ayvazo, S. (2016). Learning to teach: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adventure-based learn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21(3), 233-248.
- Tina Gauthier. (2019). Gaining Effectiveness in the Self-Contained

Classroom. *Social Studies Review (Millbrae, Calif.)*, 58, 12-16.

Whitehead, M. (2019). *Physical literacy across the world* / edited by Margaret Whitehead. (Routledge studies in physical education and youth sports).

Abstract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TER program in PE to foster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okeum Je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implement a physical education program to foster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among the future competencies necessa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explore the educational effects and successful operating conditions of the program. To this en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program organized and practiced to foster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Second, how a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cultivated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ird, what are the

successful operating conditions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 program to foster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The study was conducted for 20 months, from January 2022 to August 2023,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ird-year students of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Yeongdeungpo-gu, Seoul, and a total of 27 participants were including three third-grade homeroom teachers and 24 students, eight students each in three classe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using surveys, in-depth interviews, field document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Also Wolcott (1994)'s technology,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tages were applied. In order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peer debriefing, and member check were utilized and research ethics were observed.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by reorganizing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imed at foster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the integrated program recognized the problems of this researcher who teaches students at school sites and analyzed the needs of students and fellow teachers. The principles of systematicity and integration were derived at the content level, and the principles of repetition and graduality at the method level were derived as compositional principles, and the name of the program thus composed is the "ENTER" program. Through this, students were able to achieve holistic education by evenly achieving physical, cognitive, and affective goals in physical education. Basically, physical education classes were centered on small group cooperation activities. It is characterized by presenting key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at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conducting an interim check in the development process, taking time to reflect on the class at the organization stage, and writing a mind record, a physical education class reflection journal.

Second, students were able to cultivate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by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Social-emotional competency consists of five sub-competencies: self-awareness, self-management, social awareness, relationship skills, and responsible decision-making (CASEL, 2015), which were analyzed as “better me” at the personal level, “closer you” at the interpersonal level, and “growing together us” at the social community level.

Third,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hysical education class ENTER program to foster students'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were to share educational purposes among stake-holders, to promote students' participation, and to create a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was able to integrate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through integrated learning between subjects, life guidance, and connection with families, focusing on physical education subjects. Therefore, this program has the nature of holistic education to integrally cultivate the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 this study is valuable as a qualitative study for the lower grades by reflecting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interests, and needs of students in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ird,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physical activity-oriented personality education to cultivate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al nature of physical education, small group cooperation activities, and the role of homeroom teachers were positive influencing factors.

Finally, as a suggestion for field practice,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operate the program by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for personality-oriented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at incorporate social-emotional learning throughout the school.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through continuous evaluation and feedback, and third, to strengthen teachers' capabilities to promote consistent social-emotional learning.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first need to study the theoretical framework,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K-SEL. Second, a study is needed to find out whether the cultivation of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as an educational effect of the program leads to the transition to daily life. Third,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changes in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that have appeared in students in various ways, expand them to students of various characteristics and ages, and develop reliable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evaluation tools.

keywords : elementary school, PE(physical education), SEL(social emotional learning), social emotional competency

Student Number : 2020-21275